

---

# 국어사개론

---

학교문법을 위하여

쉬라몬 문법

# 국어사개론: 학교문법을 위하여

오르비 쉬라몬(아구몬)문법

## 목차

서론 -----	3
국어사 연구 -----	5
고대 국어 -----	8
1. 국어의 계통 -----	
2. 문자와 표기법 -----	
3. 음운 체계 -----	
4. 문법 체계 -----	
5. 어휘론 -----	
6. 전기 중세 국어 -----	
후기 중세 국어 -----	11
1. 문자와 표기법 -----	11
2. 음운론 -----	18
3. 형태론 -----	40
4. 통사론 -----	66
5. 어휘론 -----	90
근대 국어 -----	
1. 문자와 표기법 -----	
2. 음운론 -----	
3. 형태론 -----	
4. 통사론 -----	
5. 어휘론 -----	
개화기 국어 -----	
1. 문자와 표기법 -----	
2. 음운론 -----	
3. 형태론 -----	
4. 통사론 -----	
5. 어휘론 -----	
붙임 -----	
참고 문헌 -----	

# 1. 서론

이 글은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의 「언어와 매체」 영역의 심화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 혹은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작성하였다. 「언어와 매체」 지문형 문제(35~36)의 소재가 다루는 내용의 깊이는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사설 콘텐츠 팀들이 교과서 이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학생들이 그러한 자료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국어사 공부에 흔히 참고되는 전문 서적은 인터넷에서 접하기 어려울 뿐더러 수능이나 내신 수준에서 보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다. 따라서, 이 책은 **교과서와 기출(평가원&학평)에 기반하되**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고, 동시에 ‘학교문법 수준’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및 기출에 언급/출제되지 않은 부분은 교과서를 고려한 개론서인 나찬연 교수님과 임지룡 교수님의 저서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였고 고영근 교수님과 구본관 교수님의 저서와 개론서 성격을 띤 국립국어원의 자료도 함께 참고하였다. 지엽적인 국어사 지식까지 알고 싶은 학생 혹은 참고할 자료를 찾고 싶은 콘텐츠 제작자들이라면 이 책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신 대비를 위해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 혹은,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습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식상한 얘기겠지만 국어사는 왜 배우는 것일까? 언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 선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언어의 변화를 관찰하며 음운·문법·어휘 체계의 통시적 변천을 살펴 볼 수 있는바, 국어사를 연구함으로써 단순히 과거의 언어 모습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sup>1)</sup>

한편, 2015 개정에서 제공하는 언매의 성취 기준에서는 “상세한 국어사 지식의 학습”을 지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실제 수능 국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어과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상세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세함”과 다를지도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출제된 지문형 문제의 수준은 분명 “상세하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성취 기준은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심화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차자 표기 자료로 남아 있는 고대 국어, 한글 창제 이후의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 중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도, 상세한 국어사 지식의 학습 보다는 개략적인 어휘의 변화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각 단원의 소단원마다 **별의 개수로 임의로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별 4개는 대다수의 교과서<sup>2)</sup>에서도 언급되었고 비중이 높은 내용, 3개는 일부 교과서에서 언급되었고 언급된 교과서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내용, 2개는 교과서에서 비중이 적은 경우 또는 기출에 나왔거나 함께 알면 좋을 지엽적인 내용, 1개는 필자가 알아서 선별한 수능에 나올 일 없을 정도로 지엽적이지만 국어사 연구에서 알면 좋은 내용이다(개론서의 ‘심화’에 해당). 수능 언매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후기 중세 국어」의 별 3~4개만 읽으면 충분하다. **수험생 신분으로 국어사를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며 빈출 단원인 중세국어더라도 이를 깊게 공부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수험생이라면 굳이 안 읽어도 되니

1) 국어사 교육과 학교문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병기(2023)가 참고된다.

2) 현행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미래엔, 창비, 지학사, 천재, 비상)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언매가 약하다면 차라리 현대 문법에 집중하자. 수능용으로 심화 내용을 깊게 공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어차피 문제로 출제되면 보기로든 지문으로든 충분히 설명해준다. 그러나, 언매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후기 중세 국어」뿐 아니라 「고대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도 좋은 소재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내신 학습자나 교습자라면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기에 내신에도 활용될 수 있다.

언매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여전히 수능에서 문법 영역은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국어사가 배제될 일은 없기에 이 책이 계속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래는 2022 개정 「화법과 언어」 성취 기준인데, 필자의 주관이지만 국어사 내용이 다소 강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2학언01-01] 이 성취기준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곧 인간에 대한 이해임을 바탕으로 언어를 인간의 사고·사회·문화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국어와 국어생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이해하며 국어 활동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실제 언어 자료에 나타난 언어와 사고의 관계, 사회·문화와 언어의 표상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고대 국어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국어와 국어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이와 변화를 탐구한다.

꼭 수능 또는 학교 공부용이 아니더라도, 교양으로 국어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시중의 개론서들은 옛날 책이라면 한자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고 요즘 책이더라도 그 내용이나 서술 방식이 초보자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게 서술하였으니 수능/내신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선인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향유하였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sup>3)</sup>

이 책은 독자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하였다. 즉 아직 음운이나 형태소, 문장 성분 등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장 이 책을 덮고 기초를 공부하러 가길 바란다. 각주에 관련 기출을 넣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며 읽으면 좋다. 평가원 시험은 ‘학년도’에서 1년을 뺀 연도에 시행된 시험이고 교육청 학력평가는 ‘학년도’에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되었으며 고3 학력평가만 언급하였다. 임용 기출은 이 책이 학교문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언급했다. 또한 이 책의 각주를 보면 “~이 참고된다”라고 하며 논문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심화 과정이므로 수험생은 무시하면 되고, 교습자라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학교문법 수준을 넘어서기에 국어사를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따로 찾아보길 바란다.

한편, 교과서에선 ‘형태론’이나 ‘어휘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종 교과서 모두 ‘음운’, ‘단어’, ‘문장’으로 단원명을 기술하고 ‘단어’ 단원에서 형태론과 어휘론을 함께 다룬다. 그러나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기에 일반적인 개론서를 따라 형태론과 어휘론을 분리하였다. 품사와 형태소는 형태론에서, 어휘의 의미와 차용 등은 어휘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제1 편’은 학교문법과는 하등 상관이 없으나 국어사 연구에 필요한 태도를 정리하였으니 만약 국어사에 흥미가 있다면 읽어 보길 권한다.

3) 최대한 교과서/개론서를 따르고 필자의 주관을 배제하려 하였으나 제2편 고대국어의 ‘2.1. 국어의 계통’에 필자의 주관이 강하게 들어갔고, 학교문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일반적으로”나 “보통”이라는 수식어구가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나 개론서에서 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 제1 편 국어사 연구

## 1.1 언어와 변화

언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살아 있는 체계이다. 국어사 연구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밝히는 학문으로, 언어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과 원리에 따라 진행되었는가를 탐구한다. 언어의 변화는 음운·문법·어휘 체계 등 언어의 전 구성 요소에서 일어나며, 이들 체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어의 변화는 우연한 변이가 아니라,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힘**(주로 음운변화)과 **이를 회복하려는 힘**(주로 유추)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sup>4)</sup>. 즉, 언어는 덜 효율적인 체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이행하려는 방향성을 지니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파악할 때 비로소 언어사 연구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언어사는 역사이지만, 동시에 역사 그 자체가 아니다. 언어사의 목적은 정치사나 문화사적 해석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구조와 발달을 서술하는 데 있다. 국어사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어에서 일어난 제 변화의 실증적 탐구를 통해 그 속에서 작용한 보편적 규칙과 원리를 찾아야 한다.

## 1.2 국어사 연구와 문헌 자료

언어의 역사는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므로, 국어사 연구는 문헌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문헌의 성격과 그 속에서 사용된 문자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헌이 반영하는 언어적 실상을 분석하고 그 가치와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문헌을 통한 언어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문자의 환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문자는 언제나 일정한 음운을 완전히 동일하게 반영하지 않으며, 문자 체계의 가치 또한 시대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up>5)</sup> 둘째, **문자의 보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문자는 언어보다 변화 속도가 느리며, 따라서 어떤 표기가 실제 언어의 현상을 반영하는지, 혹은 관습적으로 유지된 옛 표기인지 판단해야 한다. 국어사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언어사 연구와 차별된다. 특히 고대국어의 경우 자료의 결핍이 심하므로, 현존 문헌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언어적 단서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표기의 제약과 전승 과정에서의 소실 등으로 인해 현존 문헌만으로는 언어 변화를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문헌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비교 연구와 방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비교 연구**는 국어와 주변 언어를 대조함으로써 언어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방법이다.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등과의 대조는 차용어/동원어를 알아내거나, 특정 음운이나 문법 요소의 기원을 탐색하거나, 공통된 역사적 변화를 밝히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반드시 엄밀한 음운 대응과 형태 대응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언어 외적 유사성이나 단편적 유사에 근거한 추정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실증적 근거 없이 음운 대응을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는 비교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비교 연구는 유사성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대응 규칙을 ‘입증’

4) “Sound change is regular and causes irregularity; analogy is irregular and causes regularity.” 이러한 음운 변화(음 변화)와 유추의 관계를 ‘Sturtevant’s paradox’라 한다.

5) 단적인 예로 중세국어의 ‘ㅐ, ㅔ, ㅚ’ 등이 현대어와 다른 음자를 지녔다는 사실이 논증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이승녕(1949)이 참고된다. 현대인의 편견은 극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가 답습될 수 있다.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방언 연구** 역시 문헌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문헌이 남기지 못한 음운적, 어휘적 특성이 방언 속에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일부 방언에 보존된 형태는 중세국어 이전의 모습을 유추할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내적재구(內的再構)**라 한다. 그러나 방언의 형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옛 형태의 보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언형은 오히려 근대 이후에 새로 생긴 변이일 수도 있기에 방언 자료를 통해 과거의 형태를 재구할 때에는 그 변이의 연대와 확산 양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국어사 연구는 문헌 자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비교 언어학적 접근과 방언학적 접근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1.3 음운 현상과 음운 변동의 이해

언어사 연구에서 음운 현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음운 현상**이란 음운이 특정한 조건에서 변하거나 달리 실현되는 모든 현상을 말하며, 이는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동을 모두 포함한다. 즉, 음운 현상은 어떤 시점에서 음운이 변화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시점에서 특정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음운의 변화 또는 변천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뜻하고, 음운의 변동은 같은 시대 안에서 조건적으로 실현되는 교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의 경음화나 현대국어의 유음화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모음 체계 변천 혹은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두자음군의 소멸 등은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 본다. 따라서 언어사의 기술에서는 변동이 누적되어 체계 변화를 일으킨 과정을 **음운 변화**로 파악하고, 변화의 과정을 개별 시점에서 관찰할 때는 **음운 변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음운 변화 외에도 언어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유추(analogy)**와 **차용(borrowing)**이 있다. **유추**는 기존의 규칙이나 형태를 본떠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용이다. 가령, 중세국어 시기 ‘오다’는 다른 용언이라면 선어말어미 ‘-거-’가 쓰일 환경에 ‘오나돈, 오나늘’과 같이 선어말어미 ‘-나-’가 쓰였다. 그러나 다른 용언의 활용형에 영향을 받아 근대국어 시기에 ‘오거든, 오거늘’로 바뀌었다. 이처럼, 유추는 불규칙 형태를 규칙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차용**은 다른 나라 언어에서 단어, 형태소, 문자나 개별적 표현 따위를 빌려 쓰는 작용으로 어휘 차원의 차용이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고대국어의 상고한어 차용, 중세국어의 몽고어 차용, 현대국어의 서구어 차용 등이 있다. 외래어가 언어 체계에 들어오며 음운 체계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외래어의 차용으로 근 두음법칙의 예외가 생긴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음운 변화, 유추, 차용은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전통적인 기본 틀로 여겨진다.

### 1.4 국어사 연구의 과제와 의의

국어사 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언어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궁극적 목적은 국어의 변화 원리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국어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언어가 어떻게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는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국어사는 국어학의 기초이자 핵심 분야로서, 음운론·형태론·통사론 등 각 영역의 공시적 연구를 통시적 관점으로 확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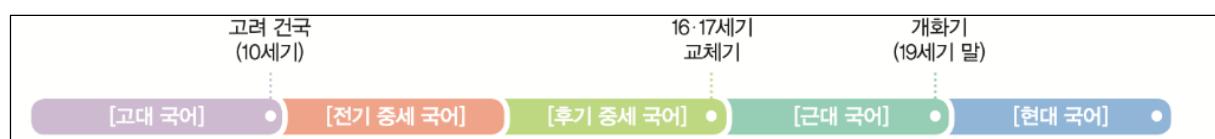
## 1.5 국어사의 시대 구분

1928년에 G. J. Ramstedt<sup>6)</sup>가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시킨 이래로 Ramstedt와 그의 제자 Nicholas Poppe를 비롯하여 John C. Street와 이기문 등의 초기 한국어 연구자들은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하여 논지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때,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한국어의 조상 언어가 알타이어족에서 분화된 이후를 분류하는 것이다. 언어사의 시대 구분은 꼭 역사적인 시대 구분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근대국어’가 나타내는 ‘근대’는 국사학계에서 정의하는 ‘근대’와 시작 시기가 다르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언어 내적인 변화와 언어 외적인 변화가 고려되는데 여기서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대로 둘을 굳이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교과서의 서술에 따르면 **고대국어**는 한국인의 조상이 한반도에 내려온 시기부터 고려 건국 전 시대까지의 언어를 의미한다. 즉 1000년도 넘는 시기를 포함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언어 연구가 가능한 시기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남아 있는 삼국시대부터이다. 고려 건국이 된 10세기부터 **중세국어**로 분류되며 이때 14세기를 기준으로 중세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된다.<sup>7)</sup> 이는 14세기에 그 음운체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고대국어에 좀 더 가까운 시대 즉 10세기~14세기를 **전기 중세 국어로**<sup>8)</sup>,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국어의 전면적 표기가 가능해진 15세기~16세기를 **후기 중세 국어**로 나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경계는 16세기~17세기의 교체기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와 겹친다.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경계는 대체로 개화기로 보며 갑오 개혁과 시기가 겹치는 19세기 말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민현식 외 (2019: 210)



이삼형 외 (2019: 221)

6) 한국어와 알타이어족 간의 친연성은 엄밀히는 Поливанов(Polivanov)가 1927년에 최초로 제시하였으나, Ramstedt의 연구로부터 한국어 계통론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흔히 Ramstedt가 한국어-알타이어족 연구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로 여겨진다.

7) 학계에서는 다른 시기 역시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하나 학교문법에서는 오로지 중세국어만이 시대가 구체적으로 양분된다.

8) 전기 중세 국어를 고대국어에서 다루는 이유는 전기 중세 국어 단원에서 언급하였다.

## 제2 편 고대 국어

‘고대 국어’는 우리말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고대 시기의 국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10세기 고려 건국 이전까지, 곧 통일신라(≈후삼국 시대)까지의 언어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우리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극히 적은 데다 우리말을 직접 표기할 고유의 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차자표기(借字表記)를 통해 남아 있는 문헌이나 금석문(金石文)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고대 국어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복원이 어렵지만, 중세 국어의 기반을 형성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대 국어 자료에는 향가를 비롯한 향찰(鄉札) 표기 자료, 신라 및 고구려의 비문, 『삼국사기』의 고지명이나 관등명, 『일본서기』 등에 남은 어휘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우리말의 음운 체계와 문법적 특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한 연구가 얼마나 “실증”되는가 즉 그 “재구 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는 이견이 분분하겠지만 고대 국어는 국어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중세 국어 이전 언어 변천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 할 수 있다.

### 2.1. 국어의 계통 (☆☆)

국어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조상 언어로부터의 분화와 그로 인한 독자적인 발달 그리고 주변 언어와의 접촉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어의 계통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언어의 친족 관계’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한민족의 역사적 이동과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어의 계통에 대한 연구는 대략 19세기 말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는 주변 언어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학자는 국어를 ‘알타이어족(Altaic) 언어’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일본어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한일조어’<sup>9)</sup>를 가정하기도 하며, 근거가 부족해 계통을 밝힐 수 없는 ‘계통론적 고립어’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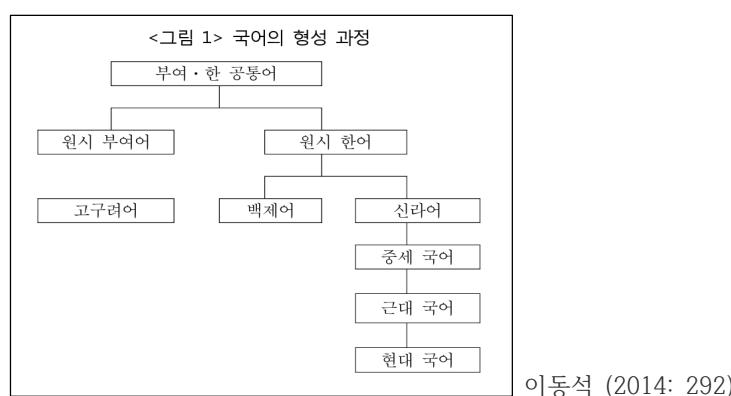
언어의 계통을 논할 때 사용되는 ‘어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어족(語族)’이란, 하나의 공통된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여겨지는 언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같은 어족에 속하더라도 각각의 언어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된 결과일 뿐이다. 하나의 조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세대를 거치며 각기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만, 결국 그 뿐이라는 같다. 언어학에서 특정 언어가 같은 어족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단어가 비슷하다는 인상을 넘어, 비교언어학이라는 엄밀한 방법론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기초 어휘(신체, 숫자, 친족 등), 문법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음운 대응 관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같은 기원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족의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조어(祖語)’ 즉 ‘조상 언어’이다. 조어는 대부분 문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날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가설적이고 재구된 언어이다. 학자들은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후손 언어들에 남은 공통된 흔적들을 역추적하여 조어의 모습을 복원한다.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많은 언어들이 ‘인도유럽어족’이라는 거대한 어족을 형성하는데, 이들의 조어인 ‘인도유럽조어’는 후손 언어들의 통일적인 비교를 통해 재구된 것이다.

9) 한국어와 일본어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조상 언어

국내 학계의 전통적인 통설은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국어를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어가 튀르크어, 몽골어, 통구스어 등과 함께 ‘**알타이조어**(Proto-Altaic)’라는 공통의 조상 언어에서 분화되었다는 가설을 의미한다. 20세기 초중반에는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러한 국어학계의 견해를 수용하여 교과서도 한국어의 어족은 알타이어족이라는 서술을 실은 적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알타이어족의 근거가 사실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언어들 사이에 규칙적인 음운 대응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알타이어족 의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외 학계에서는 알타이어족은 실질적으로 부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 학계에서도 신중론 또는 부정론으로 돌아선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고려되어 교과서의 서술도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에서 ‘한국어의 어족은 확실치 않지만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언어학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알타이어족 자체가 크게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sup>10)</sup> 한국어의 계통을 논함에 있어 “알타이어족이 유력하다”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다. 알타이어족 자체가 가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타이어족은 단순히 하나의 후보군일 뿐이지, 유력한 후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어는 계통론적 고립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현행 5종 교과서 중 4종이 여전히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으로 보거나 혹은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2022 개정 지학사『화법과 언어』의 교사를 위한 문법 지도서의 ‘확인 문제’에선 “①국어의 계통은 알타이어족설이 가장 유력하다.”가 적절한 선지로 되어 있기도 하다. 즉 여전히 **학교문법 체계에서의 정설은 알타이어족이다**. 또한, 전통적인 국내 학계의 의견을 따르자면 알타이어족에서 분화된 원시국어가 한반도 북쪽의 원시 부여어와 남쪽의 원시 한어로 나뉘고, 다시 원시 부여어는 고구려어로, 원시 한어는 백제어<sup>11)</sup>와 신라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한계 언어인 신라어가 고려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말의 조상은 신라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견해차가 큰 이론이므로 교과서에 한정하면 몰라도 교과서를 넘어선 수준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고 믿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어의 계통론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 전행 교과서인 이남호 외(2012:104)<sup>12)</sup>에서는 “알타이 어족설은 기초 어휘의 일치 및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음을 생각하면 현행 및 차기 교과서의 서술은 자못 아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동석 (2014: 292)

10) 알타이어족의 비판점은 Clauson, Doerfer, George, Vovin의 논의가 참고된다. 왜 대다수의 학자들이 알타이어족을 부정하는지는 Campbell & Poser(2008)의 Chapter 7과 Chapter 9이 참고되며 대략적인 알타이어족 연구사는 김주원(2008)이 참고된다.

11) 국내에서 백제어는 부여계로 보기도, 한계로 보기도 하며 그 두 언어층이 모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12) 이동석(2014:292)에서 재인용. 이남호 외(2012)는 『독서와 문법 II』(비상)을 말한다.



## 제3 편 후기 중세 국어

세종 25년(양력으로는 1444년)은 국어사 연구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우리말을 직접 우리의 문자 체계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세국어’라는 용어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상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10세기 초~14세기 말까지의 ‘전기 중세 국어’와 15세기 초~16세기 말까지의 ‘후기 중세 국어’로 나뉜다. 후기 중세 국어는 대략 100여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말 자료가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이며 그만큼 연구된 바가 많아 학자들끼리 합의된 내용이 많다. 그렇기에 교과서에서도 후기 중세 국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능에서도 국어사 문제 중 후기중세국어를 가장 흔하게 출제하는 것이다.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국어사 과목에선 이 부분만 공부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통상적으로 ‘중세국어’라 함은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를 아우르는 ‘광의의 중세국어’가 아니라 후기 중세 국어만을 일컫는 ‘협의의 중세국어’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책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세국어’라는 명칭은 ‘후기 중세 국어’만을 나타낸다.

### 2.1. 문자와 표기법

이 단원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즉 글자가 만들어진 방식과 원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문자 체계가 어떤 논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 체계가 현대 국어의 문자 구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자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도 알아보자.

#### 2.1.1 제자 원리 (☆☆☆☆)

『훈민정음』(예의)<sup>13)</sup>에서는 초성과 종성, 중성에 쓰이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로 이루어진 28자의 자형(정음이십팔자; 正音二十八字)을 제시한다.<sup>14)</sup> 제자 원리에는 어떤 사물의 형상을 본뜨어 만드는 ‘상형’의 원리와 원글자에 획을 더해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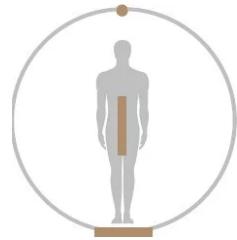
세종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ㄱ, ㄴ, ㅁ, ㅅ, ㅇ’의 자음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를 기본자라고 한다. 이들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 즉 획을 더 그음으로써 만든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ㅎ(여린히읗), ㅎ’을 가획자라고 한다. 이중 ‘ㅋ, ㄷ, ㅂ, ㅈ, ㅎ’은 기본자에 선을 하나만 그었기 때문에 1차 가획자라고 하고, ‘ㅌ, ㅍ, ㅊ’은 선을 둘 그었기 때문에 2차 가획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자음이 있는데 이를 이체자라고 한다. 이체자는 ‘ㆁ(옛이응), ㄹ, ㅿ(반치음)’이 있다. 이체자는 상형으로도 가획으로도 볼 수 없다.



13) 이 책에서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으로 책 제목 훈민정음(1446)은 『훈민정음』으로 표기한다. ‘예의’는 글자의 음가와 운용법을 간략히 설명하는 부분으로 세종이 직접 썼으며, ‘해례’는 초성, 중성, 종성의 글자와 글자 활용의 자세한 원리를 설명한 부분으로 신숙주, 정인지 등의 집현전의 학자들이 썼다.

14) 이들의 음가에 대해선 음운론에서 다룬다.

모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아래아), ㅡ, ㅣ’를 만들었는데 천지인(天地人) 즉 하늘과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천지인을 본떴다는 것이 다소 난해한데 이는 동양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언어학과 동양철학을 모두 이해해야 하므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한다. 모음자에서 확인되는 제자 원리는 ‘상형’뿐이며, 나머지 8자의 모음은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이때 기본자 ‘、’에 나머지 기본자를 합성한 ‘ㅏ, ㅓ, ㅗ, ㅜ’를 **초출자**라고 하며 초출자에 다시 ‘、’를 합성한 ‘ㅑ, ㅕ, ㅛ, ㅕ’를 **재출자**라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4수능에서 제시된 용자례이다.<sup>15)</sup>

###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글	노로	뫼(산)	섬	呣		
가획자	콩	뒤(띠)	벌	죠	하(종이)		
		고티	파	채	부	횡	
이체자	러	ㅎ(너구리)				어름	아
						△(아우)	

###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ㅌ/ㄷ리	믈/그력(기려기)	깃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재출자	쇼	남상(거북의) 일종	슈룹(우산)

종성 글자는 따로 별개의 문자를 설정하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썼다. 이처럼 종성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초성을 다시 쓴다는 원리를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한다. 국어의 음절은 원칙적으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소리(CVC)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초성과 종성이 다른 개념이나 표기를 달리 해야 한다고 보았다면 종성자를 따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그러한 원리를 배제하였기에 그에 따라 종성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자는 모두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ㄹ’이나 ‘ㄺ’ 등의 겹받침(합용병서)은 초성에 나타나지 않고 종성에만 쓰이나, ‘ㄹ’과 ‘ㄱ’이라는 초성에 쓰이는 글자를 이어 쓴 것이니 이들 역시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지킨 것이다.<sup>16)</sup>

15) 2024학년도 수능 지문형(35-36)에서도 가획자는 9개라고 하며 ㅎ도 포함하였는데 고유어 초성에선 쓰인 예가 없어 용자례 표에선 제외되었다.

16) 관련 기출로는 23수능 37번이 있다.

## 2.1.2 28자 이외의 글자 (☆☆☆)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들 28자 외에도 여러 문자가 쓰였다. 세종을 비롯한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28자를 단일 문자 즉 하나의 글자로 본 반면, 나머지 글자는 둘 이상의 글자가 합쳐졌다고 보았다. 즉 단일 글자를 합치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훈민정음』(해례)에서는 이를 글자의 운용으로 설명하는데, 문자(자·모음자)의 창제 차원에서 운용은 병서, 연서, (이자)합용, 丨상합의 네 가지로 나뉜다.

**병서**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으로, ‘ㄱ, ㅋ, ㄲ, ㅆ, ㅉ’ 따위의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각자 병서와 ‘ㄳ, ㄵ, ㄻ, ㄺ, ㄻ’ 따위의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쓴 합용병서로 구분된다. 자음을 위아래로 쓰지 말라는 뜻이다. 합용병서는 위치에 따라 초성 합용병서와 종성 합용병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말 그대로 초성에 나타나느냐 종성에 나타나느냐의 차이이다. **연서**란 순음 아래에 ‘o’을 이어 쓰는 것으로 ‘ᠩ, 甁, 甁, 甁’의 순경음을 나타냈다. 이중 ‘ᠩ’를 제외한 나머지 세 연서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만 쓰였으며 고유어 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합용**<sup>17)</sup> 또는 **이자합용**이란 같은 성격의 모음끼리 합쳐 쓰는 것으로 ‘나, ㅕ, ㅕ, ㅕ’가 있다. 양성 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합쳐 쓴 것이다. 丨상합이란 ‘丨’를 다른 모음 뒤에 합쳐 쓰는 것으로, 한 글자로 된 모음에 ‘丨’가 합해진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과 두 글자로 된 모음에 ‘丨’가 합해진 ‘내, ㅕ, ㅕ, ㅕ’가 있다. 이중 ‘ㄴ, ㄴ, ㄴ, ㄴ’은 현대국어에서는 단 모음이지만 중세국어에는 이중모음이었으며 丨가 상합된다는 것은 끝에 오는 반모음 ‘j’를 나타낸 것이다. 이중 ‘ㅕ, ㅕ, ㅕ, ㅕ’는 고유어 표기에 쓰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중국어 표기를 위해 고안된 문자도 존재하였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중국 한자음에는 존재하는 두 가지 계열의 치음인 치두음과 정치음을 표기하기 위해 국어의 치음을 나타내는 문자인 ‘ㅈ, ㅊ, ㅋ, ㅅ, ㅆ’를 변형한 문자가 그것이다. 왼쪽 끝을 늘인 ‘ㅈ, ㅊ, ㅋ, ㅅ, ㅆ’은 치두음을, 오른쪽을 늘인 ‘ㅈ, ㅊ, ㅋ, ㅅ, ㅆ’은 정치음을 나타낸다. 이들 문자는 『훈민정음』(해례) 대신 『훈민정음』(예의)의 언해본<sup>18)</sup>에만 나오는데, 훈민정음은 한국어 표기뿐 아니라 중국어 표기도 고려하여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다소 특이한 모음자인 ‘ㅣ’와 ‘ㅡ’도 소개된 바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에만 등장하는 문자로 ‘나랏 말에는 없으나 시골말(방언)과 어린아이의 말’에는 있다며 언급되었다. 언급되지만 하였지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으며 이를 통해 훈민정음에서 다루는 ‘나랏말’은 ‘서울말’이었고 세종은 중앙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음운론에서 다시 하겠다.

문자 창제 차원이 아닌 음절을 표기하는 사항을 알린 음절 차원의 운용으로는 부서법과 성음법이 있다. **부서법**은 초성과 중성을 합할 때 그 위치를 정한 것으로 ‘ㄱ, ㄱ, ㄱ’처럼 옆으로 납작하게 생긴 중성자는 ‘ㄱ, ㄱ, ㄱ’과 같이 초성 아래에 붙여 쓰고, ‘ㄴ, ㄴ, ㄴ’처럼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긴 중성자는 ‘ㄴ, ㄴ, ㄴ’과 같이 초성 오른쪽에 붙여 쓰라는 규정이다. **성음법**은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규정으로 초성이나 중성만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17) 중성의 합용도 합용병서로 볼 수 있으나, 방민호 외 (2019: 197)에선 합용병서를 자음에만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따랐다.

18) ‘언해’란 한문으로 된 글을 한글로 풀어 쓴 것을 말한다.

### 2.1.3 기본적인 표기 원리 (☆☆☆☆)

중세 국어의 문헌에서 표기법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이 많다. 그중 두드러지는 것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을 쓰는 방법과 종성을 쓰는 방법이다.

중세국어의 표기는 표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발음대로 이어 썼다. 현대국어라면 명사 ‘집’과 목적격조사 ‘을’의 결합을 ‘집을’이라고 쓰지만, 중세 국어 시기에는 ‘지블’로 썼다는 것이다. 이를 **연철(連綴)** 또는 **이어쓰기**라고 한다. 발음의 원리상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쓴 것이다. 현대국어와 달리 세로쓰기를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철은 매우 합리적인 표기법임을 알 수 있다. 글자의 종성을 바로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 한국어의 표기법은 연철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세 국어의 표기법은 단어의 뜻을 살리는 표의주의적 성격보다는 소리나는 대로 쓰는 **표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은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뿐 아니라 음운 현상이 적용될 때도 보이는 데, ‘앓-+-고’를 ‘알코’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경음화는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비음화는 표기에 반영된 경우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음운론의 음운변동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표기법은 종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받침에는 실제로 종성에서 소리 날 수 있던 8개의 자음만이 쓰였다. 이를 **팔종성가족용법(八終聲可足用法)** 또는 **8종성법**이라 한다.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파열음화)을 생각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체언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한정돼 있는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의 7종성에 더불어 ‘ㅅ’도 음절 말에서 소리 날 수 있었다. 즉 음절 끝에서 허용된 자음은 월칙적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 8개 뿐이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음절 말의 ‘ㄷ’과 ‘ㅅ’을 구별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당시의 ‘ㅅ’은 음절 말에서의 발음이 현대와 달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8종성법을 따라 ‘밭’은 ‘밭’으로, ‘꽃(꽃)’이나 ‘갓(가죽)’은 ‘꽃’과 ‘갓’으로, ‘님(잎)’은 ‘닙’으로 표기된 것이다. 현대국어였다면 ‘받온’이나 ‘놉고’, ‘늦거니’, ‘갓과’ 등은 모두 ‘밭 온’, ‘높고’, ‘늦거니’, ‘갓과’로 적혀야 한다.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법을 ‘**표음주의적 표기법**’ 또는 ‘**음소적 표기법**’이라 한다. 음운변동이 적용된 상태로 적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8종성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쓰이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물론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었지, 많은 15세기 문헌에서는 일관된 표기 원리로 통일되어 쓰였다.

### 2.1.4 사잇소리의 표기 (☆☆)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 또는 구를 이룰 때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있는데 이를 표기하는 방식도 특징적이었다.<sup>19)</sup> 사잇소리 현상이란 현대국어에서 ‘물+고기’가 [물꼬기]로, ‘그믐+달’이 [그믐딸]로, ‘코+날(콧날)’이 [콘날]로 발음되는 따위의 현상이다. 중세국어에도 사잇소리 현상은 존재하였는데 그 자세한 음운변동은 다루기 어렵다. 사잇소리 현상은 선행하는 소리가 울림소리일 경우 나타나는데, 중세국어에선 일반적으로 선행 체언의 받침과 상관없이 ‘ㅅ’으로 사잇소리를 나타냈다. ‘즘겟가재(즘게+갓)’처럼 선행 체언의 받침으로 쓰이기도 하였고, ‘아바님 뒤(아바님+뒤)’나 ‘맏 맏(맏+맏)’처럼 선행 체언의 종성 옆에 쓰이기도 하였고, ‘狄人ㅅ 서리’처럼 선행 체언이 한자로 쓰일 경우 그 뒤에 쓰기도 하였다. 이때 선행 체언에 받침이 있을 경우 ‘ㅅ’

19) 현대 국어에선 합성명사에서만 보이나 중세국어에선 명사구 구성이어도 사잇소리 현상이 보인다.

은 ‘모습 그장’처럼 종성에 쓰이기도 하였지만 ‘모습 셋장’처럼 ㅅ이 후행 체언의 초성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엄쓰리’ 역시 ‘엄+소리’이므로 ㅅ이 후행 체언의 초성에 올라간 것으로 본다.

한편, 『석보상절』(이하 석상)과 『훈민정음』(언해본), 『용비어천가』(이하 용가)에서는 **예외적인 사이시옷 표기법**이 드러난다. 『훈민정음』(언해본)은 『용가』와 함께 선행 음절의 끝소리에 따라 사잇소리를 다르게 표기하는 특이한 예가 등장한다. ‘乃終ㄱ 소리’가 그러하다. 이때의 ‘ㄱ’은 사잇소리를 나타내는 표지로 ‘ㅅ’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중세국어 문헌이었다면 ‘乃終ㅅ 소리’로 쓰였어야 한다. 사잇소리가 실현되려면 선행음이 울림소리<sup>20)</sup>여야 했는데 울림소리의 종류가 다양하니, 그 울림소리의 조음위치에 맞추어 각기 다른 문자로 사잇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초기 훈민정음 문헌에서 쓰이던 사잇소리 표지로는 ‘ㄱ, ㄷ, ㅂ, ㅌ’이 있다. ‘ㄱ’은 ‘ㅇ’ 뒤에, ‘ㄷ’은 ‘ㄴ’ 뒤에, ‘ㅂ’은 ‘ㅁ’ 뒤에, ‘ㅌ’은 ‘ㄷ’ 뒤에 쓰였다. 『용가』에서는 이에 더해 ‘△’ 까지 사잇소리 표지로 사용하였는데 사잇소리 표지로서의 ‘△’는 다른 문헌에선 보이지 않는다. 『석상』은 주로 ‘ㅅ’을 사잇소리 표지 즉 사이시옷으로 썼지만 ‘ㅅ’ 대신 ‘ㄱ, ㄷ, ㅂ’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잇소리 표지는 곧 폐지되고 ‘ㅅ’으로 통일된다.

이때,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을 구별하여야 한다.<sup>21)</sup>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도 기본적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시옷 ‘ㅅ’을 적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이 때 ‘사잇소리’는 단순히 음운론적인 현상을 말하며 ‘사이시옷’은 표기법적 장치를 말한다. 즉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문자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이시옷 ‘ㅅ’의 문법적 지위도 따져 볼 수 있는데 이때 ‘ㅅ’은 관형격조사로 볼 수 있다. ‘아바님 뒤’는 의미상 ‘아버님의 뒤’로 해석된다. 따라서 ‘모습 그장’과 같은 표현을 분석할 때 표기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ㅅ’은 사잇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표기 장치인 사이시옷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을 형태론적으로 보면 ‘ㅅ’은 소유나 관형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가 되는 것이다. 이때 사이시옷의 발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 ㅅ 뒤 평음이 쓰이는 경우는 경음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ㅅ’의 음가가 예외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또, ‘부렷 말’이나 ‘나랗 일훔’과 같이 대응하는 경음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해석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현상은 현대국어와 달리 발음의 변동 양상을 논하기 어렵다.

### 2.1.5 예외적인 표기법 (☆☆)

앞서 얘기하였듯 중세국어의 기본적 표기 원리는 표음주의적 표기법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예들이 종종 관찰된다. 이때 표음주의를 지키지 않은 예들이 모두 같은 문헌에서 발견된다. 즉 특정 문헌을 작성할 때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표음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 표기가 두드러지는 것이 『용가』와 『월인천강지곡』(이하 월곡)이다.<sup>22)</sup>

『월곡』은 연철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표기를 보인다. 선행 체언의 말음과 용언 어간의 말음이 울림소리인 ‘ㅇ, ㄴ, ㅁ, ㄹ, △’일 때 끊어적기를, 그외에는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가령, ‘누네’ 대신 ‘눈에’, ‘므리’ 대신 ‘물이’, ‘다마’ 대신 ‘담아’, ‘즈슬’ 대신 ‘중을’로 적는 따위이다. 이를 ‘분철(分綴)’

20) 비음, 유음을 포함하여 울림소리 또는 공명음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자음 중 비음과 유음만 공명음이고 모든 모음은 공명음이다.

21) 중세국어의 사잇소리의 음운론은 꽤나 복잡한 문제이며, 25수능에서 사잇소리 표기법만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남미정(2012)과 河崎啓剛(2015), 김정인(2023)이 참고된다.

22) 관련 기출로 2025학년도 수능 지문형 문제(35-36)가 있다.

또는 ‘끊어적기’라고 한다. 다만 이어적기를 한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 이때 음절 끝이 ‘ㅇ’으로 된 체언은 『월곡』뿐 아니라 『월인석보』(이하 월석)이나 『석상』에서도 끊어 적기를 하였는데 『월곡』처럼 분철이 규칙적이진 않아 이들 두 문헌에선 ‘쥬의’(중+의) 등의 연철과 ‘중으란(중+으란)’ 등의 분철이 함께 보인다.

또, 『용가』와 『월곡』 모두 8종성법을 지키지 않는 표기법을 보인다. 즉 ‘곳’ 대신 ‘곶’으로, ‘깁고’ 대신 ‘깊고’로, ‘빛나시니이다’ 대신 ‘빛나시니이다’로 쓴 것이다. 이는 현대 맞춤법의 원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당시 학자들이 형태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표기법을 ‘표의주의적 표기법’ 또는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적용에 그쳤고 다수의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표음주의적 표기법이 주되게 쓰였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이러한 표기법의 불일치가 훈민정음 창제 초기 문헌에만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훈민정음 표기의 실험적인 모델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어떤 표기가 실용적일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기 양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훈민정음』(해례본)에서 8종성법으로 정착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지만 그러한 결정에는 세종이 창안한 문자 체계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표의주의적 표기를 통해 당시 학자들이 표의주의적 표기 역시 하나의 표기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가』와 『월곡』은 편찬 과정에서 세종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아마 세종은 이론적 성격이 강한 표의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집현전 학자들은 표음주의를 지향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 두 가지 표기법 중 결국 세종이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였지만 세종이 참여한 문헌에서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이 보인다는 것이다. 『용가』는 『훈민정음』(해례본)보다 일찍 간행되었기에 실험적인 표기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었겠으나, 『월곡』은 8종성법이 규정된 『훈민정음』(해례본)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세종이 직접 편찬에 참여한 문헌이기에 8종성법이 규정됐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sup>23)</sup>

## 2.1.6 한자음의 표기 (☆☆)

중세국어 문헌은 대부분 국한문 혼용체로 쓰였는데 이때 한자만 쓴 경우가 있고 한자음과 함께 적은 경우가 있었다. 『용가』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월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으며, 『월석』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다.<sup>24)</sup>

1. “海東 六龍이 누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2. “마魔왕王이 노怒흔둘 뚫道리理 거출씨”
3. “世宗이 날드려 니르샤다 追尋薦전이 轉輪經 경 곤하니 업스니”

(1)은 『용가』의 한 부분으로 한자만 쓰였으며 이러한 표기는 『용가』와 『두시언해』에서만 보인다. (2)는 한자음이 큰 글자로 적혀 있고 한자가 작은 글자로 달려 있다. 이러한 주음 방식은 『월곡』에만 보인다. (3)은 『월석』의 예문인데, 『월석』이나 『석상』, 『능엄경언해』 등 중세국어 문헌에서 국한 문훈용을 했다면 대체로 (3)처럼 썼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3) 『월곡』은 세종의 형 수양대군이 어머니인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작성한 『석상』을 바탕으로 세종이 쓴 찬불가 형식의 글이다. 『세조실록』에 세조가 세종이 쓴 『월곡』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존재하므로 세종이 직접 썼음을 알 수 있다.

24) 관련 기출로 25 수능 지문형 문제가 있다.

### 2.1.7 그 외의 표기 원리 (☆)

현대 맞춤법에서는 어절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지만 중세국어 문헌은 일반적으로 붙여 썼다. 띄어쓰기는 가로쓰기와 더불어 도입된 근대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옛阿僧祇劫時節에 훈菩薩이 王 두 외야 겨샤나라 훌아 죠 맛디시고 道理 빗호 라나 아가샤**”

위의 예는 『월석』 권1의 『석상』부터의 첫머리 부분인데 어느 곳에서도 띄어쓰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sup>25)</sup> 그러나 『용가』에는 현대 맞춤법의 띄어쓰기의 공간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일정한 부호가 사용되었다.

“**불휘기픈남근 ○ 부 른 매아니 월씨. 곶도코 ○ 여름하누 니**”

위의 문장은 어미 ‘-르씨’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후행절인 주절과 선행절인 종속절 사이에는 우권점(。)을 사용하였고, 앞뒤의 마디는 중권점(○)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권점을 율격 표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

25) 물론 원문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문장은 없으나 편의상 앞으로는 중세국어 문장을 현대 맞춤법의 원리를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도록 한다.

## 2.2. 음운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표기법을 살펴보면, 중세국어의 문자 체계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녹음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 500년 전의 화자가 현재 살아 있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문자가 어떤 발음을 나타냈는지 알 아내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혹자는 과거의 언어는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며 과거의 언어를 재구하는 것을 부정할지도 모르겠으나, 문헌 자료의 표기법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훈민정음』 등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당시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발음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즉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그 당시 선인들의 발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아낼 수 있는 것이다. 중세국어는 그 자료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에서 고대국어보다 훨씬 실증된다는 의의가 있다. 중세국어의 자·모음 체계는 오늘날의 자·모음 체계와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지만, 일부 음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재에는 사라진 음소가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문자는 같지만 그 소리가 다르기도 하였다. 음소와 운소 체계를 알아보고 그러한 음운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떻게 쓰였고 변하였는지 알아보자.<sup>26)</sup>

### 2.2.1 자음 체계

#### 2.2.1.2 단일 자음 체계(☆☆)

『훈민정음』(해례)에선 17자의 단일 구성 초성을 언급하고 각 자음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그 당시의 중국의 음운을 연구하는 학문인 성운학을 참고하였기에 분류 체계가 현대와는 달랐다.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17자의 단일 자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음	ㄱ	ㄷ	ㅂ	ㅅ, ㅈ	ㅎ		
차청음	ㅋ	ㅌ	ㅍ	ㅊ	ㅎ		
불청불탁음	ㆁ	ㄴ	ㅁ		ㅇ	ㄹ	ㅿ

또한, 『훈민정음』에서 언급된 각자병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전탁음	ㄲ	ㄸ	ㅃ	ㅆ, ㅉ	ㅎㅎ

최상단은 조음위치, 최좌단은 조음방법의 분류이다. 이는 성운학의 용어를 따른 것인데, 조음위치는 한자를 안다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아·설·순·치·후음(牙·舌·脣·齒·喉音)’은 각각 ‘여금닛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청소리’를 뜻한다. 반설음과 반치음은 ‘반혀소리, 반잇소리’이다. 조음방법은 그 명칭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은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26) 중세국어 음운 체계의 쟁점은 김성규(2009)와 김지은(2022)이 참고된다.

기본적인 자음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을 테니, 현대국어처럼 자음체계표를 만들어보자. ‘아설순치후음’에서 ‘설음’과 ‘치음’은 그 조음 위치가 사실상 같아 하나로 합쳤다.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설음과 치음 모두 음성학적으로 ‘치조음(치경음)’이다.<sup>27)</sup> 자세한 분류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이 표는 참고용으로만 보자. 일반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훈민정음』의 분류를 따른 표만 제시하나, 현대문법에 익숙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이해가 편할 것으로 생각되어 따로 만든 것이다. 5종 교과서 모두 중세국어의 음운(자음)의 특징으로 ‘崩’과 ‘△’의 존재를 언급하고 몇몇 교과서에서 경음 표지로 ㅅ계 합용병서까지 언급하므로 이들까지 포함하였다. ‘○’은 임의로 추가하였다. 이탈릭체(崩, △, ○)는 유성음이다.<sup>28)</sup>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ㄱ	ㄷ	ㅂ	
		격음	ㅋ	ㅌ	ㅍ	
		경음	ㄲ (=ㅅㄱ)	ㄸ (=ㅅㄷ)	ㅃ (=ㅅㅂ)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ㅉ		
마찰음	평음		ㅅ, △	崩	○	ㅎ 29)
	격음					
	경음		ㅆ		ㅎㅎ	
공명음	비음		ㄴ	ㅁ	ㆁ	
	유음		ㄹ			

이제 자음의 자세한 음가를 알아보자. 우선 연구개 파열음, 치조 파열음, 양순 파열음은 현대국어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치조 파찰음 계열은 현대국어와 그 발음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국어라면 ‘ㅈ, ㅊ, ㅉ’은 경구개음이겠지만 중세국어 시기 이들은 모두 치조음에 속했다(『훈민정음』의 분류상으로는 치음). 즉 이 당시에는 센입천장(경구개)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고 치조 파찰음 [ts], [tsʰ]였을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자음체계의 차이로 인해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선 ‘ㅈ, ㅊ, ㅉ’ 뒤에 반모음 ‘j’가 올 수 있었으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져’와 ‘저’가 유의미하게 변별되었고 ‘굳이’와 같은 단어는 ‘구디’로 쓰였다는 것이다.

또한 ‘ㅅ’은 종성에서의 발음이 현대국어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8종성법에서 ‘ㅅ’과 ‘ㄷ’을 구별하여 적었는데, 만약 현대국어에서 이러한 표음주의를 적용한다면 7종성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옷[온]’처럼 종성에서의 ‘ㅅ’이 대표음 ‘ㄷ’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선 이러한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은 ‘ㅅ’과 ‘ㄷ’을 종성에서 구별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 발음은 완전히 달라지 않은 채 짧게 내뱉는 외파된 [s]로 추정된다. 즉

27) 『훈민정음』의 ‘치음’은 성운학 용어의 ‘치음’이라 현대 언어학 용어 ‘치음(Dental consonant)’과 다르다.

28) 유성음 계열은 엄밀히 말하자면 평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평음·경음·격음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편의상 평음행에 포함하였다.

29) ‘ㅎ’은 일반적으로 격음으로 분류되나 현행 5종 교과서 모두 ‘ㅎ’을 위의 표처럼 다루고 있다.

30) [ts]는 t와 s를 이어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치조 파찰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스’처럼 완전한 음절이 아니라 /s/라는 소리를 약하게 남기며 짧게 끊는 소리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맛(味)’을 영어 ‘mas’라고 생각해 보자. /마스/보다는 짧고 /맙/보다는 긴, 그 사이의 어딘가가 느껴지는가?<sup>31)</sup> 앞에서 사이시옷의 음가가 애매하다고 한 것이 이 때문이다. 만약 사잇소리를 경음화로 처리한다면 종성의 ‘ㅅ’ 중 사이시옷의 경우 [s]로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 ‘ㅎ’처럼 단순히 경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도 고려되어 학교문법 수준에서 중세국어의 사잇소리의 음가를 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ㅎ’은 현대 국어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음과 유음 역시 현대국어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ㅇ’은 현대국어의 종성 ㅇ 발음인데 특이하게 ‘바울(방울)’과 ‘려울(너구리)’, ‘서에(성애)’처럼 ‘ㅇ’이 초성에 쓰인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어두에서 ‘ㅇ’이 발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단순히 종성의 ‘ㅇ’이 연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자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베트남어의 ‘응우옌’을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전청 계열 중 ‘ㅎ’은 중세국어 시기 그 쓰임이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자음체계표에서 제외하였다.<sup>33)</sup> ㅎ은 훈민정음 초성 체계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고유어 초성에서 쓰이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쓰였다.

- 1) 지브로 도라오싫 제, 니르고져 훔 배<sup>34)</sup>
- 2) 先考 ㅎ 뿐, 快 ㅎ 字, 하 ㅎ 뿐
- 3) 音 흔, 安한 / 不 ㅎ, 八 ㅎ

(1)은 ‘ㅎ’이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 아래 쓰인 것인데 된소리 부호로 기능하였다.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경음화하여 발음하라는 표지이다. (2)는 앞서 언급한 예외적인 사잇소리 표기이다. (3)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인데 한자음 표기에서 보이는 ‘ㅎ’을 이영보래라 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쓰임으로 인해 ‘ㅎ’은 『원각경언해』(1465) 이후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 더 알아보기: 청탁

사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다 보니 사용하는 용어도 다른데, ‘전탁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장애음(학교문법상 안울림소리)과 공명음(학교문법상 울림소리)의 차이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sup>35)</sup> 우선 자음을 발음할 때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으면 ‘장애음(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라 하고, 기류의 흐름이 방해를 덜 받으면서 구강이나 비강의 진동을 일으키면 ‘공명음(비음, 유음)’이라고 한다. 또한, 사람이 소리를 낼 때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지나면서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성대가 진동하면 ‘유성음’, 성대가 진동하지 않으면 ‘무성음’이라 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b/와 /p/의 경우, 유성음인 /b/를 발음할 때는 성대가 울리지만 무성음인 /p/를 발음할 때는 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두 소리가 조음 위치와 방법은 같지만 성대의 진동 여부가 다를 때, 두 소리는 유성음-무성음의 대립을 이룬다고 한다.

31) 중세국어에서 종성의 ‘ㅅ’이 이미 ‘ㄷ’과 같았다고 보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긴 하나 정설은 아니다.

32) 다만 종성의 ‘ㄹ’을 현대국어와 달리 보는 견해도 있는데 소신애(2008)가 참고된다.

33) 24주등에서도 ‘ㅎ’이 용자례 표에서 제외된 것이 참고된다.

34) 관형사형 어미를 ‘-ㄹ’이 아닌 ‘-ㅎ’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ㄹ’로 표기하도록 한다.

35) 이삼형 외 (2019: 55)에선 [b]와 같은 소리를 ‘유성음’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같은 책 52쪽에서는 ‘울림소리’를 ‘공명음’으로, ‘안울림소리’를 ‘장애음’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적절치 못하다.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구본관 외(2015: 48)를 참고하자.

중국 성운학에서 탁음은 유성음을, 청음은 무성음을 나타낸다. 이때, 무성음이면서 예사소리이면 전청, 무성음이면서 거센소리이면 차청, 유성음이면서 장애음이면 전탁, 유성음이면서 공명음이면 차탁이라고 한다. 『훈민정음』에서는 성운학의 용어를 따랐으나 ‘차탁’은 ‘불청불탁’이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엄밀히는 『훈민정음』에서 의도한 전탁음은 ‘된소리’가 아니라 [g], [d], [b] 따위의 유성파열음이다. 중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음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어는 그 렇지 않다. 가령, ‘바보’의 어두 ㅂ과 어중 ㅂ은 각각 무성음과 유성음이지만 한국어 화자에게 다른 음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에, 유·무성음 대립의 언어 화자라면 이를 ‘pabo’로 들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무성음 대립을 이루는 중국어를 연구하는 성운학의 용어는 당연히 한국어와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어는 적어도 중세국어 시기부터 유·무성음 대립을 이루지 않았기에 당시 중세국어 화자들도 전탁음을 의도하였으나, 음소 체계상 없는 유성파열음을 실제로 발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말에선 전탁음과 경음이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느껴졌을 테니, 지향한 바와 달리 실제 발화에선 경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탁음은 된소리로 보아도 무방하다.<sup>36)</sup>

고유어의 경우, 각자병서는 분명히 된소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때 ‘ㅆ’과 ‘ㅎ’만이 어두에 쓰였고 나머지 각자병서는 형태소가 결합될 때에 쓰였는데 이러한 각자병서를 경음 표지로 본다. 특히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 뒤에 오는 평음은 각자병서로 쓰였는데 이 역시 경음으로 해석된다.

#### 2.2.1.2 유성음 체계(☆☆)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선 유성음이 음소 체계에 포함되었다. 물론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유·무성음 대립이 존재하지 않아 파열음 체계에서는 유성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찰음 체계에서는 유성음이 확인된다. ‘崩[β], ㅋ[z], ㆁ[h]’이 그것이다.

- 1) 모음 사이: 사崩, 드븨
- 2) j와 모음 사이: 대崩, 쇠崩ㄹ, 메ahn고
- 3) ㄹ과 모음 사이: 글발, 말崩
- 4) ㅋ과 모음 사이: 웃崩니

‘崩’은 ㅂ에 ㅇ이 연서된 글자로 ‘순경음 ㅂ’이라 불린다. 예외적인 사잇소리 표지를 제외하면 출현 환경은 위의 네 가지였다. 『훈민정음』(해례)에서 제시한 발음 방법을 고려하면 ‘崩’은 입술을 달을락 말락 하게 하여 ‘ㅂ’을 발음한 유성 양순 마찰음 [β]로 발음됐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崩’은 훈민정음 창제 후 얼마 안 가 소멸되었다.

‘ㆁ’과 ‘ㅋ’은 꽤 복잡한 사정을 갖는데, 우선 ‘ㆁ’의 경우엔 현대국어처럼 음가가 없는 단순한 글자의 역할도 하지만 특정한 환경 아래서는 자음의 역할도 맡은 것으로 보인다.

- 가. 1) 아히, 보아
- 2) 욕(欲), 총(此)
- 나. 1) 몰애, 살이고, 놀이, 달아, 알어늘, 알오
- 2) 굿애, 웃이리라, 암이, 굿어
- 3) 여희오, 이어늘, 비애

36) 이 부분은 어려우니 복잡하다면 넘어가도 좋다.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에서 전탁음을 된소리로 보았으니 학교문법에선 단순히 된소리로 보고 굳이 유/무성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가)는 현대국어처럼 소리가 없지만 글자의 형상을 갖추기 위해 적힌 ‘o’이다. (가1)은 고유어의 초성, (가2)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쓰인 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소리가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음가를 지닌 자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음가가 없었다면 연철이 되어 ‘모래, 다라, 아려늘, ㅋ새’로 쓰이거나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 ‘여희요’와 ‘이여늘’의 표기가 보여야 할 것이다. ‘o’이 후음의 불청불탁(공명음)에 속한다고 설명됐으므로, **후두 유성 마찰음 [h]**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sup>37)</sup> 또 이렇게 음가가 ‘불청불탁’이라며 적극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아 ‘o’이 단순히 어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문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형태소 내부의 ‘o[h]’과 형태소 결합 시 실현된 ‘o[h]’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음운변동에서 다룬다.

가) 아舛, 새삼, 한숨, 몸소, 궂애, 웃쁘니

‘△’은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로 대부분 울림소리 사이에 쓰였다. ‘△’은 일반적으로 ‘ㄴ, ㅁ, ㅂ, 반모음 /j/, 모음’ 사이에 나타났다. 드물지만 ‘설설’처럼 음성상징어의 첫머리나, ‘悚’처럼 중국어 차용어의 첫머리에 나타나기도 했다. 음성상징어를 제외한 고유어 어두로는 ‘슛(읗)’이 유일례다. ‘△’는 불청불탁의 반치음으로 기술됐으므로 ‘ㅅ’에 대립되는 **치경 유성 마찰음 [z]**를 나타냈다고 추정된다.

종성 ‘△’은 꽤 특이하다. 『훈민정음』에서 8종성법을 설명하며 ‘영의 갗’을 ‘엿의 갗’으로 적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용가』와 『월곡』을 제외한, 표음주의적 표기를 지향한 문헌에서는 음절 말에 ‘△’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궁애, 웃쁘니’ 말고도 ‘것위, 앗이, 붕아, 궂어’ 등 형태소 내부 또는 형태소의 경계에서 종성에 쓰인 기록이 관찰된다. 이러한 어휘들은 ‘ㅅ’을 종성에 표기한 예보다 일반적인 표기인데, 중세국어 당시 모음과 ‘o’ 사이나 모음과 ‘붕’ 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z]’이 음절 말음으로 발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에서 ‘△’을 ‘ㅅ’으로 표기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위들 예는 ‘것위, 앗이, 엿이’처럼 ‘ㅅ’으로 쓰인 용례들도 존재한다. 이는 음절 말의 ‘ㅅ’이 음가가 있는 ‘o’과 ‘붕’ 앞에서는 [z]라는 발음으로 실현되었지만(유성음화) 당시 국어 화자들에게는 ‘ㅅ’의 음절 말 발음 /s/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sup>38)</sup> 즉, 15세기의 종성은 음성적으로 팔종성에 ‘△’까지 더해 아홉 가지의 소리가 있었지만 음운론적으로는 팔종성만 존재하였다. 종성에서는 [z]라는 소리가 별개의 음소로 인식되지 않은 것이다. ‘△’ 역시 ‘붕’과 비슷하게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표기에서 쓰이지 않게 된다.

### 2.2.1.3 각자 병서(☆☆)

각자병서로는 ‘ㄱ, ㅋ, ㄲ, ㅌ, ㅍ, ㅎ, ㅆ, ㅉ, ㅊ, ㅎ’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고유어 표기에 쓰인 ‘ㄱ, ㅋ, ㄲ, ㅌ, ㅍ, ㅎ, ㅆ, ㅉ, ㅊ, ㅎ’는 경음으로 해석되는데 ‘흘 껏, 올 뚫, 여힐 찌기, 철 쓰시’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 뒤(정확히는 ‘-(으/으)ㄹ’ 뒤 된소리 부호 ‘ㅎ’이 나타나지 않을 때), ‘둡չ고(돛습고), 조 족고(좆족고)’와 같은 음소적 표기, ‘엄쏘리, 니쏘리’와 같은 등의 사이시옷의 후행절로의 이동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쓰였다.

37) 전행 지학사 교과서에서 [h]을 인정한 바 있다. 이 ‘o’이 음가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꾸준히 제시되지만 통설은 아니다. 무음가 ‘o’설의 최근 논의로는 신승용(2021)과 고경재(2023), 소신애(2024)가 참고된다. ‘o’의 연구사는 배영환(2011)이 참고된다. 이 ‘o’를 정확히 분류하기는 까다롭기에 여기선 이 책에서 따르는 통설인 유음가 ‘o’설과 무음가 ‘o’설로 단순히 나누어 부르도록 한다. 정확한 분류는 배영환(2011) 참조.

38) 이러한 것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하나의 음소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 것인데 음성적인 수준에서 다른 것이지, 음운적 수준에서는 그 언어의 화자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중 ‘ㅎ, oo, ㄴ’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다. ‘ㅎ’은 고유어 표기의 경우 ‘혀다, 치혀시니’처럼 반모음 ‘j’ 앞에서만 실현되었는데 이때의 음가는 ㅎ을 세게 발음하는 발음하는 [ç]나 [x]로 추정된다. 다만 ‘ㅎ’이 된소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oo’도 ‘쥐여, 미온’처럼 반모음 ‘j’ 앞에서 쓰이는데 ○의 된소리라기보다는 긴장된 ‘j’음을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ㄴ’은 ‘슬느니, 달느니라’ 등에서 보이는데 이는 ‘술느니, 달느니라’의 ㅎ이 동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ㄴ’이 오래 지속됨을 표시하는 것이라 발음은 [n:]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학적으로 ㄴ의 경음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oo’과 ‘ㄴ’을 따로 음소로 보지 않고 변이음으로 처리한다. 중세국어 문헌의 표기를 고려할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o’이나 ‘oo’이나 별반 큰 발음 차이가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ㄴ’ 역시 별개의 음소의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음 체계표에선 이 두 각자병서를 제외한 것이다. 각자병서의 표기는 『원각경언해』(1465)에서부터 쓰이지 않았는데 이는 각자병서를 표기에서만 없앤 것이지, 여전히 경음은 체계상 존재하였다.

#### 2.2.1.4 합용 병서(☆☆☆)

**초성 합용병서의 발음은 선행하는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ㅂ, ㅂ, ㅂ, ㅂ’는 ‘ㅂ계 합용병서’, ‘ㅅ, ㅅ, ㅅ’는 ‘ㅅ계 합용병서’, ‘ㅈ, ㅈ, ㅈ’는 ‘ㅈ계 합용병서’로 구분된다. 이중 ㅅ계 합용병서 만이 된소리 표기이고 나머지 두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 표기일 것으로 여겨진다<sup>39)</sup>. 현대국어의 ‘ㅋ’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ㅋ’는 쓰이지 않았다. ㅅ계 합용병서는 각자병서보다 출현 환경이 자유로웠는데 고유어 표기에 단독으로 쓰였다.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는 된소리설과 어두자음군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국내 학계에서는 된소리설이 좀 더 지지를 많이 받는다<sup>40)</sup>.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ㅅ계 합용병서는 ‘ㅅ, ㅅ, ㅅ’뿐이나 실제 문헌에는 ‘ㅈ’도 쓰였다. ‘ㅈ’을 포함한다면 ㄴ의 경음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ㅈ’은 어두자음군을, ‘ㅅ, ㅅ, ㅅ’은 경음을 나타냈다고 본다. 어두자음군이란 어두에 오는 자음의 연속체를 이르는 말로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두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것이 가능했다. ‘ㅂ계 합용병서’는 ㅂ과 옆에 있는 자음을 이어서 발음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ㅅ계 합용병서가 된소리일 것이라는 의견에 의하면 ‘ㅈ계 합용병서’는 ㅂ과 옆에 있는 된소리를 이어서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ㅂ, ㅂ, ㅂ, ㅂ’는 [pt, ps, pts, pt<sup>h</sup>], ‘ㅈ, ㅈ, ㅈ’는 [pk, pt]<sup>41)</sup>였다는 것이다. 위첨자 ‘h’는 거센소리를, 어깻절은 된소리를 나타낸다. 이때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ㅈ계 합용병서는 3자음군이 된다.**

ㅂ계 혹은 ㅈ계 합용병서는 그 음가가 비교적 명확한 이유는 단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살펴 보았을 때 어두자음군이 아니었다면 설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볍씨’, ‘좁쌀’, ‘입때’ 등은 어원적으로 ‘벼+씨’, ‘조+쌀’, ‘이+때’로 분석된다. ‘씨’와 ‘쌀’, ‘때’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벼’와 ‘쌀’, ‘때’로 쓰였는데 만약 ㅂ계 합용병서가 된소리를 나타냈다면 ‘벼벼’와 ‘조쌀’은 ‘벼씨’와 ‘조쌀’, ‘이때’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ㅂ이 종성에 나타날 수 없기에 ‘ㅂ’이 덧나려면 ‘벼ㅂ시’, ‘조ㅂ술’, ‘이ㅂ때’처럼 ㅂ이 발음되었어야 가능하다. 어두자음군이 사라지면서 ㅂ계 합용병서의 ㅂ의 소리가 선행 음절의 종성으로 인식된 것이다. 우리말에선 갑자기 ㅂ이 첨가되지 않으므로 원래 ㅂ이 발음되었다고 본다. ‘솜씨’와 ‘함께’와 같은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둘은 각각 ‘손벼(손+쁘--이)’, ‘훈뼉(훈+뼉)’였는데, 만약 ㅂ이 발음되지 않았다면 현대국어에선 각각 ‘손씨’, ‘한께’로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ㄴ’이 ‘ㅁ’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ㄴ이 ‘ㅂ’에 의해 ‘ㅁ’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법[뭄쩝]’ 따위의 양순음화는 현대국어에서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비표준 발음으

39)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이 아니라 어두자음군으로 보기도 하는데 최근의 논의로는 고광모(2023)와 김정인 (2024)이 있다. 물론 교과서상 음가는 경음이다. 수특 역시 경음으로 처리한다.

40) 각 견해에 대한 근거는 국립국어원(1996:18-20)에 잘 정리되어 있다.

로 빈번히 관찰되고 과거에도 존재하였기에, 합용병서에서 ‘ㅂ’이 발음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음운동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ㅂㅌ’의 존재 역시 ㅂ계 합용병서가 어두자음군이었다는 근거가 된다. 음성적으로 거센소리의 된소리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성 합용병서의 발음은 어말자음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에서도 자음군단순화가 존재하였는데, 만약 모든 겹받침이 자음군단순화를 겪었다면 표음주의에 의해 종성에 겹받침이 쓰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겹받침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기상 종성에서 합용병서가 쓰였다면 모두 발음되었다고 본다.<sup>41)</sup> 자세한 내용은 음운변동에서 다룬다.

## 2.2.2 모음 체계

중세국어의 중성(모음)은 초성(자음)에 비해 음가를 추정하기가 다소 어렵다. 당시의 문헌이 모음의 실제 발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음의 음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훈민정음의 용어를 현대 음성학의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중성자들의 사용 예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음성학 용어와 현대 음성학의 개념이 완벽히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고 다소 학자의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신뢰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자료만으로는 음가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외국 문자로 옮겨 적은 기록(외국어 전사 자료)이나 외국어를 한글로 옮겨 적은 기록(한글 전사 자료)도 함께 참고한다.

### 2.2.2.1 단모음 체계(☆☆)

『훈민정음』에서 단일 구성 11자의 모음을 제시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ㆍ, ㅡ, ㅣ
- 2) ㅗ, ㅏ, ㅜ, ㅓ
- 3) ㅕ, ㅑ, ㅠ, ㅕ

이중 단모음인 (1)과 (2)의 음가부터 알아보자. 국어학자들은 『사성통해』를 통해 파스파자와 중세국어 모음자의 대응 관계를 비교하고, 중국어 자료인 『번역박통사』, 류큐어 자료인 『해동제국기』 등과의 대응을 함께 고려하여 음가를 추정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한자음과 국외 전사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데 연구 결과, ‘ㅡ, ㅣ, ㅗ, ㅏ, ㅜ, ㅓ’의 음가는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2)</sup> ‘ㆍ(아래아)’의 음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현대국어의 ‘ㅓ’와 유사한 **후설평순 중저모음 [ʌ]**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음가 추정을 바탕으로 『훈민정음』(해례)의 용어를 해석할 수 있다. 제시된 용어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sup>43)</sup>

41) 어두자음군 관련 기출로는 14수능 B형 16번과 21학년도 3월 학평 37번이, 어말 합용병서의 발음으로는 25학년도 10월 학평 지문형이 있다.

42) 원칙상 표준어의 ‘긴 ㅓ’는 [ə:], ‘짧은 ㅓ’는 [ʌ]에 가까우나 이러한 구별이 없어지며 현실적으로 ‘ㅓ’는 [ʌ]로 통일되고 있기에 현실음을 고려할 시 중세국어의 ‘ㅓ[ə]’는 현대국어의 ‘ㅓ[ʌ]’보다 혀가 좀 더 앞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43) 이 내용 역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설불축	설소축	설축
구축		ᄀ	ᄂ
44)	丨	—	、
구장		፤	፤

『훈민정음』의 모음에 대한 서술이 난해하여 이러한 용어들의 이해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우선 순전히 『훈민정음』의 용어대로만 해석해 보자. 최상단의 ‘설’과 ‘축’은 ‘舌(혀 설)’과 ‘縮(줄일 축)’이고 최좌단의 ‘구’와 ‘축’은 ‘口(입 구)’와 ‘蹙(움츠릴 축)’이기 때문에 한자 뜻 그대로 볼 때 가로줄은 혀의 움츠림을, 세로줄은 입의 오므림을 나타낸다고 본다. 혀의 경우, ‘설축’이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설축(舌縮)’은 발음할 때에 혀가 움츠려든다는 뜻이다. ‘설불축(舌不縮)’은 발음할 때에 혀가 움츠려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설소축(舌小縮)’은 ‘설축’과 ‘설불축’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혀가 덜 움츠려든다는 뜻이다. 이때, 이러한 ‘혀의 움츠림’을 ‘혀의 전후 위치’로 해석하면 ‘설/설소/설불축’은 각각 ‘후설/중설/전설’의 모음 대립을 설명하는 기준이, ‘혀뿌리의 전진/수축(ATR/RTR)’이라는 소위 ‘혀뿌리 자질’로 해석하게 되면 ‘설/설소/설불축’은 모음조화의 대립을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sup>45)</sup>

‘구장’과 ‘구축’ 역시 매우 복잡하고 그 해석에 있어 이견이 많다. 우선 『훈민정음』의 용어만 따져서 이해해 보자. 『훈민정음』(해례)에서는 초출자인 ‘ᄂ’, ‘፤’, ‘ᄀ’, ‘ᄃ’의 소리를 상형자인 ‘、’와 ‘—’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즉 ‘ᄂ’와 ‘ᄃ’는 ‘、’와 ‘—’에 대한 구축(口蹙) 즉 ‘、’와 ‘—’보다 입이 오므라지며 나는 소리이고, ‘፤’와 ‘ᄀ’는 ‘、’와 ‘—’에 대한 구장(口張) 즉 ‘、’와 ‘—’보다 입이 펴지는 소리이다. 초출자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축’과 ‘구장’의 대립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때, 입의 모양을 원순성으로 파악하면 ‘구장’과 ‘구축’은 각각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을 나타낸다. 개구도(≈혀의 높낮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개론서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순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따라서 위 표를 보고, ‘—’와 ‘、’의 위쪽으로는 입이 오므라들고 아래쪽으로는 입이 덜 오므라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와 ‘—’는 구장과 구축 어디에도 해당하진 않으나 평순 모음으로 본다.

### 2.2.2.2 중모음 체계(☆☆☆)

중세국어 시기에도 단일 모음이 아닌 복합모음 즉 중모음이 존재하였는데 현대국어는 이중모음뿐이지만 중세국어는 삼중모음도 존재하였다. 이 역시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상향중모음과 반모음으로 끝나는 하향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재출자 ‘ㅑ’, ‘ㅕ’, ‘ㅛ’, ‘ㅕ’는 현대국어와 같이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었다. 중세국어에서 반모음 ‘w’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은 ‘놔’와 ‘꺾’가 있다. ‘꺾’는 현대국어에서 혀용 발음 /wi/가 있긴 하지만 중세국어에선 단모음 ‘ᅮ’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었다.

앞서 문자 체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와 어울리는 ‘፤’ 상합자는 그 모음이 반모음 ‘j’로 끝남을 나타낸다. ‘ㅚ’, ‘ㅕ’, ‘ㅛ’, ‘ㅕ’, ‘ㅕ’가 있다. ‘፤’ 상합자는 모두 반모음 ‘፤’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던

44) 이 칸을 [-구장], [-구축] 자질로 놓기도 하고 ‘구장’과 ‘구축’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2013학년도 임용 1차에서는 [-구장], [-구축] 자질로 보았다. 여기서는 빈칸으로만 두고 더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45) 다른 견해도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전자가 우세하였고 최근의 논의에서는 후자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대국어와 달리 이중모음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ㅐ’나 ‘ㅔ’ 등이 중세 국어 당시에 단모음이었다면, 어째서 『훈민정음』에서는 그 음가를 밝히지 않고 ‘ㅣ’상합자’의 범주에서 처리하였는지, 어째서 자형상 두 모음을 합자하였는지 등을 해명해야 한다.<sup>46)</sup> 또 ‘孔子’와 같은 표기도 문제다.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는 ‘ㅣ’였는데 ‘공자가’를 중세 국어 표기법으로 쓰면 ‘공지’가 된다. 즉 ‘孔子’와 ‘공지’의 발음이 같을 것이므로 ‘지’의 ‘ㅣ’을 단 모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가 쓰일 때 모음 ‘ㅣ’ 뒤에서는 ‘다리’, ‘다리라’처럼 표면상 실현되지 않는데 ‘ㅣ 상합자’들과의 결합에도 ‘불휘라(불휘 + ㅣ라)’와 같이 동일한 양상이 보인다. 이는 ‘ㅣ 상합자’가 ‘j’로 끝나는 모음이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보야흐로’와 ‘뵈아흐로’가 혼용되는 것은 ‘보야’와 ‘뵈아’가 모두 ‘보 j ㅏ’여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반모음 ‘j’가 ‘아’와 함께 표기될 때는 ‘보야’로, ‘보’와 함께 표기될 때는 ‘뵈아’로 표기된 것이. 따라서 ‘ㅓ, ㅗ, ㅚ, ㅕ, ㅙ’는 글자 자형 그대로 단모음 ‘ㅓ, ㅗ, ㅚ, ㅕ, ㅙ’와 ‘반모음 ㅣ(j)’가 결합한 이중모음으로 발음은 각각 /Aj, ɯj, oj, aj, ej/이다.<sup>47)</sup>

한편 ‘ㅐ, ㅔ, ㅚ, ㅟ’와 ‘내, ㅖ’는 삼중모음이며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상향과 반모음 j로 끝나는 하향이 모두 나타나거나 ‘w’로 시작하는 상향과 반모음 j로 끝나는 하향이 모두 나타난다. 고유어 표기에 쓰인 중모음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j계 상향 이중: ㅑ, ㅕ, ㅒ, ㅕ
2. w계 상향 이중: ㅘ, ㅙ
2. j계 하향 이중: ㅓ, ㅗ, ㅚ, ㅕ, ㅙ, ㅛ
4. j 상향 & j 하향 삼중: ㅕ, ㅕ, ㅙ, ㅛ, ㅕ
5. w 상향 & j 하향 삼중: ㅖ, ㅖ

### 2.2.2.3 중앙어에 없던 이중모음(☆)

『훈민정음』에 중앙어엔 쓰이지 않고 방언에서 쓰이는 ‘!’와 ‘!’도 언급된 바 있다 하였는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꽤 중요한 모음이다. ‘중앙어’란 조선 전기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한양(서울) 중심의 언어를 말한다. 『훈민정음』에서 말하는 ‘나랏말’이 바로 이 중앙어이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음운 체계는 이러한 중앙어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중앙어에 없던 음소’란 곧 비중앙 지역 방언에만 존재하던 음운을 뜻한다. 공식적인 모음자는 아니었으나 중세국어의 중모음 체계 즉 중세 국어 중앙어의 음운 체계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는 ‘.’ 앞에 ‘j’가 붙은 모음으로 ‘.’가 현대국어의 ‘ㅓ’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므로 ‘ㅓ’를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자형의 관점에서 볼 때 ‘.’는 다른 재출차처럼 ‘.’가 결합하여 j계 상향 이중모음임을 나타내는 것이 일관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이 의문이기에 ‘.’로 쓰기도 한다. 후기 중세 국어 이전에는 ‘!’가 존재하였으나 후기 중세 국어로 오면서 ‘ㅓ’로 합류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제주 방언에는 아직 남아 있으며 ‘!’의 자세한 역사는 전기 중세 국어를 참고하자.

46) 이와 같은 비판점은 스계 합용병서의 경음설에 적용되기도 한다.

47) ㅣ 상합자를 단모음+단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학교문법에선 단모음+반모음으로 본다. 관련 기출로 21수능 15번이 있다.

‘-’ 역시 ‘-’에 반모음 ‘j’가 결합한 j계 상향이중모음인데 ‘|-’를 빨리 한 듯한 발음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j계 상향 이중모음임에도 재출자로 쓰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중앙어에 없었기 때문에 재출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음도 과거의 형태를 재구할 때 사용되기도 하며, 관련 내용은 전기 중세 국어를 참고하자.

### 2.2.3 운소 체계(☆☆☆)

운소란 소리의 장단, 강약, 고저와 같이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 비분절 음운이다. 현대국어의 운소는 표준발음법상 장단음밖에 없으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성조가 운소로 쓰였다.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하는데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였다.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 방점이 쓰였는데 ‘손(客)’과 ‘손(手)’, ‘서·리(霜)’와 ‘서리(間)’ 등에서 보이듯 성조가 다르면 단어가 다르다. 『훈민정음』에서 제시하는 성조는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의 네 종류이지만 ‘입성’은 고저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때, 성조를 나타내는 점은 글자 왼쪽에 찍어야 한다는 규정을 방점법이라 한다. 이 역시 글자의 운용법이다. 왼쪽에 점 하나를 더하면 **거성(去聲)**, 둘을 더하면 **상성(上聲)**,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은 방점과 상관이 없고 오로지 종성의 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이다. 입성은 음의 높낮이라 기보다는 음절 말 자음의 특징을 기술한 것으로, 촉급한 소리를 나타낸다. 현대 국어에서 ‘ㄱ, ㄷ, ㅂ’이 종성에서 발음되는 것과 같이 소리를 촉급하고 빨리 끝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막’을 발음해 보라. 마치 ‘!’가 끝에 온 것처럼 길게 끌지 못하고 빨리 끝내는 것[mak]이 느껴지는가?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불청불탁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모두 종성에서 입성을 나타냈다. 즉 불청불탁의 공명음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비입성이 된다.<sup>48)</sup> 따라서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성조는 4성 체계이지만 실제로 높낮이로 볼 때는 세 분류뿐이다. 이때 방점 표기가 쉽지 않아 다른 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평성은 ‘L’ 또는 ‘-’, 거성은 H 또는 ‘-’, 상성은 R 또는 ‘~’을 쓴다. 따라서 ‘서·리(霜)’와 ‘·서리(間)’은 ‘serí(霜)’와 ‘séri(間)’<sup>49)</sup> 또는 ‘서리(LH)’와 ‘서리(HL)’처럼 쓸 수도 있다.

상성의 경우 평성과 거성이 합쳐질 때 상성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주로 주격조사의 결합 시 보인다. 영형태 주격조사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begin{array}{l} \text{부텨(LL)} + |-(\text{H}) \rightarrow \text{부:텨(LR)} \\ \text{드리(LL)} + \emptyset(\text{H}) \rightarrow \text{드:리(LR)} \end{array}$$

또, 상성이던 단음절어와 의미가 동일한 평성과 거성의 2음절어도 쓰이기도 했다. ‘두·울(twùwúl)(二)’과 ‘:둘(twúl)’, ‘누·리(nwùrí)(世)’와 ‘:뉘(nwüy)’ 등이 그러하다. 본래 2음절로 쓰였으나 평성과 거성이 합쳐져 1음절상성으로 줄어든 것으로 본다.<sup>50)</sup> 이러한 성조는 중앙어에선 근대국어를 지나며 소멸되었지만 동북 방언(함경도)과 동남 방언(경상도)에는 남아 있다.<sup>51)</sup>

48) 종성의 ‘ㅅ’은 파열음이 아니지만 불청불탁의 자음이 아니므로 역시 입성으로 처리된다.

49) 이는 예일식 표기이다. 중세국어는 로마자로 쓸 경우 관행상 예일식 표기법을 따른다.

50) 상성을 평성과 거성이 병치된 소리로 본다면 중세한국어의 운소 체계는 L과 H로만 이루어진 것이 된다. 자세한 것은 Lee&Ramsey(2011:163-168)를 보길 바란다. 학교문법에서 이를 다루기는 무리이고 소리의 높낮이에는 단순히 ‘평성, 거성, 상성’의 세 부류가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1) 방점이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중세국어가 중국어와 같은 ‘진정한 성조(ture tone) 언어’인지 일본어와 같은 ‘고저 악센트(pitch accent) 언어’인지 학계에서는 아직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 2.2.4 동국정운식 한자음(☆☆)

『동국정운(東國正韻)』은 1444년에 정인지·신숙주 등이 편찬한 운서(韻書)로, 중국의 한자음을 표준화하여 우리 한자음을 바로잡고자 한 책이다. 세종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우리 한자음이 본래의 중국음에서 멀어졌다고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새로 창제한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한자의 발음을 정밀하게 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국정운식 표기는 당시 한국어의 현실 한자음과는 다른, 중국 원음에 더 가깝게 재구성된 체계였다. 당시의 실제 중세국어 화자들의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동국정운』에서 정한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표기 방법을 ‘**동국정운식 표기법**’이라고 한다. 동국정운식 표기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전탁음을 인정하였고 전청음을, 차청음을 자세히 구분함.
2. 모든 한자음을 초성·중성·종성을 모두 갖춘 음절 구조로 표기함.
3. 종성이 ‘ㄹ’로 끝나는 한자음의 경우, 종성 뒤에 반드시 ‘ㅇ’을 덧붙여 적음.

(1)은 유성음인 전탁음을 인정한 것이다. 원래 한국 한자음에서는 전탁음을 따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동국정운』에서는 당대 중국음인 중고음에 기반하여 따로 분리했다. 이때 전탁음 표기에는 ‘ㅋ’과 같은 각자병서를 활용했다. 또 중국어의 전청음(예사소리)과 차청음(거센소리)을 바탕으로 표기를 구별하였다. 가령, 원래 ‘ㅋ’을 초성으로 가지는 한자는 ‘쾌(快)’뿐이었으나 『동국정운』에서는 당시 중고음을 고려하여 ‘큭(克), 킹(企), 킹(器)’ 등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2)는 종성이 없는 한자라도 형식상 종성을 채워 넣어, 한 음절이 반드시 초·중·종성을 모두 갖추게 한 것이다. 이는 훈민정음의 음절 구조 원리를 철저히 따른 결과로 한자음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 ‘ㅇ(꼭지 없는 이응)’과 ‘당’을 표기하였다. 즉 ‘당’과 ‘당’은 현대국어로 치면 ‘다’와 ‘당’이다.

(3)은 ‘이영보래(以影補來)’라 하는데, ‘ㄹ’로 끝나는 한자 뒤에 뒤에 ‘ㅇ’을 더해 /-t/(ㄷ 받침)과 같은 종성 구조를 표기함으로써 중국음의 종성 파열음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 한자음 중 음이 ‘ㄹ’로 끝나는 한자는 중국에서는 ‘ㄷ’ 받침으로 읽혔다. 가령 ‘不’은 한국 한자음으로는 ‘불’이지만 중국 어에선 ‘不分’과 비슷한 발음이었다. 중세국어에서는 ‘ㄹ’로 끝나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ㄷ’으로 끝나는 한자음을 중국어처럼 ‘ㄷ’ 말음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따로 ‘ㅇ’을 추가한다는 표기법을 제정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한자어 발음 표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한자음을 따로 병기하지 않은 『용가』와 『두시언해』를 제외하면 한자가 쓰일 경우 동국정운식 교정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한자가 쓰이지 않았을 때는 당시의 현실음으로 표기되었다.

1. 爲<sup>의</sup>, 迷<sup>멍</sup>惑<sup>惑</sup>, 爲<sup>의</sup>頭<sup>풀</sup>, 公<sup>공</sup>事<sup>상</sup>
2. 위, 미혹, 위두, 공수

(1)은 『월석』 권9에 나오는 한자어이고 (2)는 이에 대응하는 『석상』 권9의 예이다. 전자는 한자가 쓰여 그에 해당하는 동국정운식 표기를 아래에 달았지만 후자는 한자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당대 현실음으로 썼다.

세종은 한자음을 중국의 음과 맞추어 읽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한자음은 현실음이 아니었기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실제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던 소리와는 괴리가 커 큰 성과를 거두지

는 못하였다.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준화하기 위한 이론적 표기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동국정운』이 도입된 1444년부터 『영험약초』(1485)까지 대략 40여년 존속하였고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 2.2.5 음운 변동

현대국어에는 음운 변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는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세국어든 현대국어든 한 언어의 화자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음운을 곧이곧대로 발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의 음운 변동 즉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성조의 변동도 함께 알아볼 것인데 이는 비분절음운의 변동이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 제시하는 음운 현상(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학교문법 수준에서 성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 2.2.5.6 교체(대치)<sup>52)</sup>

#### 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서 언급한 8종성법이 곧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다른 하나의 자음이 오면 평파열음인 ‘ㅋ,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부엌 → [부억]’, ‘꽃 → [꼴]’, ‘잎 → [입]’이 그 예이다. 반면에 중세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ㅅ’까지 포함하여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가지로 제한되었다. ‘꽃 → 곳’, ‘빛 → 빛’이 그 예이다. ‘ㅎ’은 ‘ㄷ’으로 교체되었다. 당시에는 ‘ㅋ’이나 ‘ㄲ’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ㄷ, ㅂ, ㅅ’으로 바뀌는 현상만 확인된다.

예외적인 경우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ㅅ’이 그대로 실현된 ‘앙이’, ‘영이’ 등이 그러하다. 또, 변화 방향이 이상한 예시가 보이는데 ‘좆- + -좁- + -고 → 졸좁고’ 등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좁-’ 앞에서 ‘ㅈ,ㅊ’ 계열이 ‘ㅅ’이 아니라 ‘ㄷ’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 중세국어의 표기 원칙상 ‘좆좁고’로 실현되었어야 하는데 ‘ㄷ’으로 실현된 것이다.<sup>53)</sup> 물론 어디까지나 일반적이진 않다.

또, 중세국어 시기 자음군단순화는 필수적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 겹받침이 쓰인 경우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는데, ‘않-+-고’가 ‘않고’로 쓰이는 등의 현상이 그러하다. 자세한 양상은 자음군단순화에서 알아보자.

#### 나. 비음화(☆☆)

비음화는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현대국어의 ‘국물 → [궁물]’, ‘받는 → [반는]’, ‘임는 → [임는]’ 등이 그러하다. 중세국어의 자료로 확인되는 비음화는 ‘ㄷ→ㄴ’의 비음화가 대다수이며 비음화가 일어날 시 주로 표기에 반영되었다.

‘돈- + 니- + -다가 → 돈니다가’와 ‘돈- + 니- + -어 → 돈녀’와 같은 합성어나 ‘문노라 → 문노라’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에서 보인다. 그러나 ‘돈니며’, ‘돈녀’처럼 비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표기도

52) 관련 기출로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와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지문형 문제가 있다.

53) 이는 매우 논란이 되는 주제이며 ‘ㅅ’의 종성에서의 음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해명은 고광모(2012/2023)가 참고된다.

존재했다.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대표음으로 교체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중세국어에도 있었다. ‘놓- + -는 → 논논’, ‘닿- + -는 → 디논’, ‘붙논 → 븐논’과 같이 어간의 ‘ㅎ’이나 ‘ㅌ’이 ‘ㄷ’으로 바뀌고 ‘ㄴ’에 동화되는 표기가 있다. 비음화의 표기를 볼 때, 대부분 ‘ㄷ’의 비음화가 보이나 ‘굽- - +느니라 → 굽느니라’와 같은 ㅂ의 비음화가 드물지만 가끔 보이고, ‘ㄱ’의 비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경음화(☆☆)

경음화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의 경음화에는 평파열음(ㄱ, ㄷ, ㅂ) 뒤의 경음화, 어간 끝 ‘ㄴ, ㅁ’ 뒤의 경음화,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ㄹ’ 뒤의 경음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등이 있다. ‘국밥 → [국뱁]’, ‘(신발을) 신고 → [신꼬]’, ‘발달 → [발딸]’, ‘할 것을 → [할꺼슬]’이 그 예이다.

현대국어에선 음절 말 ‘ㄱ, ㄷ, ㅂ’ 뒤의 평음은 필수적으로 경음화되지만 중세국어에선 그러한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경음화가 안 일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표기법에서만 경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표기만 안 됐을 뿐이지, 경음화가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sup>54)</sup> ‘받주<sup>부</sup>시니’와 ‘바쭈<sup>부</sup>니’ 등의 경우가 평파열음 뒤 경음화와 관련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세국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음화는 관형사형 어미 ‘-(으/으)ㄹ’ 뒤의 경음화와 ‘넣- + -습고 → 녀<sup>첩</sup>고’와 같은 ‘ㅎ’과 ‘ㅅ’의 결합에 의한 경음화가 대표적이다.<sup>55)</sup>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는 두 가지 표기가 있었지만 모두 동일하게 발음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활발히 보이던 경음화이다.

- (1) 디넓 사르미, 몰뚫 거시라, 이쉽 저그, 닐옳 딘댄, 훙 배
- (2) 디닐 싸르미, 몰흘 꺼시라, 받즈불 쪄그, 닐올 띤댄, 몬흘 빼니

(1)은 ‘-(으/으)ㄹ’ 뒤 ‘ㅎ’을 표기한 것으로 ‘ㅎ’은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하라는 표지이며, (2)는 ‘ㅎ’이 표기되지 않은 대신 각자병서로 표기된 경우이다.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좁-, -습-’이 결합할 때도 경음화가 보이기도 한다. ‘ㅈ, ㅅ’이 ‘չ, ㅆ’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표면상 경음화는 맞지만 학교문법 수준에서는 ㅎ과 ㅅ의 결합처럼 그 자세한 음운변동의 원리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조<sup>첩</sup>고’ 같은 경우는 ‘ㅈ/ㅊ ㄷ →’이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외도 설정하여야 하고 또 ‘존<sup>첩</sup>고’, ‘받쭈<sup>부</sup>니’가 아니라 ‘조<sup>첩</sup>고’, ‘바쭈<sup>부</sup>니’로 실현되므로 ‘ㄷ’ 탈락이라는 규칙도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잇소리로서의 경음화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문법상 중세국어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성격을 다루기는 어려워 논하지 않겠다.

#### 라. 반모음화 (☆)<sup>56)</sup>

반모음화란 단모음 ‘ㅣ’나 ‘ㅗ/ㅜ’가 각각 반모음 ‘j’와 ‘w’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국어에서는 ‘기+어라→[겨라], 보+아라→[봐라]’ 등이 있다.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같이 ‘j’ 반모음화와 ‘w’ 반모음화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현대국어와 달리 ‘j’가 다른 모음 뒤에 올 때도 일어났다.

54)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55) 학교문법에서 ‘놓소→노쏘’와 같은 경음화의 변동 과정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경음화는 맞지만 그 과정을 축약으로 보기도 교체와 탈락이 모두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56)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보면 ‘반모음화’가 아니라 모음 축약이 되지만, 최근 수능의 경향은 반모음화 즉 교체로 보는 것이므로 여기선 반모음도 음소로 보고 이중모음을 두 음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라(1) 모음 앞에서의 'j' 반모음화

- (1) 그리- + -어 → 그려, 즐기- + -어 → 즐겨  
(2) 꾸미- + -운 → 꾸뮨, 스치- + -옴 → 스촘

이는 용언의 활용형에 주로 보인다. 이때 '-아/어'뿐 아니라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일어났다. 그런데 반모음화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디- + -어 → 디여', '서리- + -어 → 서리여'처럼 반모음 첨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 라(2) 모음 뒤에서의 'j' 반모음화

- 주격 조사: 부텨 + ㅣ → 부톄, 바 + ㅣ → 배  
서술격 조사: 전츠 + ㅣ라 → 전치라  
피사동 접사: 셔- + -이 → 셰-  
부사 파생 접미사: 오라- + -이 → 오래  
잇다/이시다 구 구성: 자펴 잇고 → 자팻고, 뵈화 잇도다→뫼햇도다

현대국어와 달리 모음 뒤에서도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중세 국어는 모음 체계에 하향 이중 모음이 많았기 때문이다. 'ㅏ'와 'ㅓ'를 이어 빠르게 발음해 보자. 자연스레 한 음절로 발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쓰- + -이 → 쓰이-'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인다. 반모음화가 일어났다면 '썩-'가 되어야 한다.

### 라(3) 'w' 반모음화

- 오- + -아 → 와, 일우- + -어 → 일워, 뵈호- + -아 → 뵈화

이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끝 'ㅗ/ㅜ'가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만 일어났다. 다만 일어나는 빈도가 적었는데,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보- + -아 → 보와'처럼 'w'가 첨가되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 출현 환경 역시 제한적인데 1음절 어간의 경우 '오-'만이 필수적으로 반모음화가 발생했다. 'ㅗ/ㅜ'로 끝나는 1음절 용언은 '소-(쏘다)'를 제외해선 보이지 않았으며 2음절 이상일 경우 'ㅗ/ㅜ'가 속한 음절이 모음으로만 되어 있거나 후음인 'ㅎ'으로 시작할 경우에만 이러한 반모음화가 일어났다. 즉 현대국어에서 '다투다'나 '가꾸다'는 '다툐', '가꺾'와 같이 반모음화가 일어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그러지 않았단 얘기다. 또, '뫼호-', '뇨호-', '쌰호-' 등 'ㅎ'을 해당 음절에 가지고 있더라도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뫼호아', '뇨호아', '쌰호아'처럼 쓰인 예도 보인다.

## 마. 모음 조화(☆☆☆☆)

양성 모음(밝음): 湲, ㅗ, ㅏ / ㅕ, ㅑ / ㅓ, ㅕ, ㅙ, ㅕ, ㅕ

음성 모음(어두움): ㅡ, ㅜ, ㅓ / ㅠ, ㅠ / ㅓ, ㅕ, ㅕ, ㅕ

중성 모음(중간): ㅣ

모음조화란 같은 성질을 지닌 모음들끼리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 기본적으로 '湲, ㅗ, ㅏ'는 양성 모음, 'ㅡ, ㅜ, ㅓ'는 음성 모음이며 'ㅣ'는 중성 모음이다. 이중모음의 경우 반모음과 'j'와 결합한 모음이 무엇인지에 따라 양성과 음성모음을 구별한다. 즉 'ㅑ, ㅕ'와 'ㅓ, ㅕ, ㅕ, ㅕ'가 양성 모음, 'ㅕ, ㅠ'와 'ㅓ, ㅕ, ㅕ, ㅕ'는 양성모음이다.

모음조화는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일어났는데 ‘나 + 는, 잡- + -오다, 보- + -아’처럼 양성 모음(ㄱ, ㄴ, ㅏ)끼리의 결합과, ‘너 + 는, 먹- + -우다, 꾸- + -어’처럼 음성 모음(ㅡ, ㅜ, ㅓ)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이 보였다. 이중모음도 단모음이 어땠느냐에 따라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용언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 결합 시에 두드러지게 보인다. 중성모음인 ‘ㅣ’는 양성과 음성 모음 모두와 어울렸다.

중세국어의 모음조화는 매우 체계적이었으며 규칙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모음 조화의 예외도 있었다. ㅣ 상합자 중 ‘ㄱ’과 ‘ㅋ’, ‘ㅌ’은 음성모음임에도 체언 끝 음절 모음에 쓰일 경우 양성모음의 목적격 조사인 ‘을’이나 ‘를’과 결합이 가능했다. ‘ㅣ’와 같이 모음조화와 무관하게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만 목적격 조사가 구별된 것이다.<sup>57)</sup> 또한, 선어말 어미 ‘-ㄴ-, -더-, -거-, -습-’이나 어말 어미 ‘-고, -다, -고라, -고쳐, -드록, -도다’ 등은 어간의 모음과 상관없이 붙었는데 이는 이를 어미가 양성/음성쌍의 이형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어미들은 모음조화와 관련이 없었다. 한편, 한 형태소 내에서도 대체로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 바. ‘ㄱ’의 유성후음화(ㄱ 약화) (☆☆)

‘ㄱ’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특정 형태·음운론적 환경에서 음가를 지닌 **후두 유성 마찰음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변동은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ㅇ’의 음가가 있다고 보므로 ‘약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각주 (27)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ㅇ’의 음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현상의 명칭은 ‘ㄱ 탈락’이 되며 음운변동의 종류를 논한다면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 될 것이다.<sup>58)</sup> 또한, 순수한 음운변동이 아니라 형태론적 환경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형태·음운론적 현상이라고 함이 옳다.<sup>59)</sup>

- (1) 알- + -고 → 알오, 울- + -거늘 → 울어늘
- (2) 드외- + -거늘 → 드외어늘, 여희- + -고 → 여희오
- (3) 물 + 과 → 물와, 입시울 + 과 → 입시울와, 말 + 곳 → 말웃
- (4) 눈 + 이- + -고 → 누니오, 하늉 + 이- + -거늘 → 하늘이어늘
- (5) ㅎ- + -리- + -거늘 → ㅎ리어늘, 가- + -ㄴ- + -니- + -고 → 가느니오

위와 같이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앞의 형태소가 ‘ㄹ’, 모음 ‘ㅣ’, 반모음 ‘j’로 끝나는 경우 뒤에 오는 형태소의 ‘ㄱ’은 ‘ㅇ’으로 바뀌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상을 서술하자면, (1)과 (2)는 용언 어간 끝이 ‘ㄹ’이거나 반모음 ‘j’일 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3)은 체언 끝이 ‘ㄹ’일 때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4)는 서술격조사의 어간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sup>60)</sup>, (5)는 선어말어미 ‘-리-’, ‘-니-’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가지다’의 경우 ‘가지- + -고’는 ‘가지오’로 실현되지 않고 ‘가지고’로 쓰였고 ‘하시고’도 선어말어미 ‘-시-’ 뒤에서는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모음 ‘ㅣ’는 음운론적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ㄱ 약화의 음운론적 환경은 자음 ‘ㄹ’ 뒤와 반모음 ‘j’ 뒤이고, 형태론적 환경은 서술격조사 어간 뒤와 선어말어미 ‘-리-’, ‘-니-’ 뒤이다. 이때 서술격조사가 ‘∅-’로 실현될 때도 ‘소리오(소리 ∅- + -고)’와 같이 ㄱ 약화가 일어났다.

여기서 ‘ㅇ’은 후두 유성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로’처럼 연철되지 않는 것이다. 표음주의를 고려할 때, 음가가 없었다면 ‘알오’로 표기됐을 이유가 없다. 또, ‘알-’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상성(R)으로 실현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평성(L)으로 실현되는데 ‘알-+고’ 구성에서 ‘알오(RH)’ 즉 상성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만약 탈락으로 본다면 이들 모두 표기의 예외로 처리된다. 탈락으로 보는 견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통시적으로 ㄱ이 약화

57) 관련 기출로 26 6평 39번과 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37번이 있다.

58) 2017학년도 입용 B형에서는 두 견해가 함께 언급된 바 있다. 김유범(2024)에서 ㄱ 약화(탈락)를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차기 화언 교과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필자의 주관이지만 국어사 심화 내용 중 가장 다루기 좋은 요소라고 생각한다.

59) 자세한 것은 형태론 단원의 “더 알아보기: 형태음운론”을 참고 바람.

60) 이때의 서술격조사 ‘이-’의 음가를 단모음 ‘ㅣ(i)’로 보지 않고 /i:/로 보기도 하나 굳이 논의하지 않겠다.

했음은 인정하나 중세국어만 따졌을 때 이미 음가가 없어졌으며 일종의 표기상 흔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중세국어 화자들이 그 이전 시기에 있던 ‘ㄱ’의 통시적인 변화를 인식하였을 뿐, ‘ㅇ’의 음가는 없었고 이를 단순히 표기에만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ㅇ’의 음가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수한다면 유음가설로 가르치거나 또는 두 견해를 아울러 제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ㄱ의 후두유성음화의 범위는 이러하다.

### 더 알아보기: 체언에서의 ㄱ 약화

이때, 접속조사 ‘과’나 보조사 ‘곳, 가, 곰’ 등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할 때 ‘과, 곳, 가, 곰’이 아니라 ‘와, 웃, 아, 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 역시 ㄱ 약화에 포함하기도 한다. ‘부텨웃(부텨 + 곳), 나웃(나+곳), ㅎㄹ옴(ㅎㄹ+곰)’ 등이 그러한데 이를 포함한다면 ‘체언과 조사’ 결합 시에는 ㄹ과 모든 모음 뒤에서 ㄱ 약화가 일어나고, ‘어간(용언 & 서술격조사)과 어미’ 또는 ‘어미끼리(선어말어미 + 어말어미)’의 결합 시에는 ‘ㄹ, j’ 뒤와 일부 형태론적 환경에서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문법 수준에서 여기까지 다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를 포함한다면 중세국어 시기 ‘ㄱ-ㅇ’ 대응을 보이는 모든 조사의 기본형은 ‘ㄱ’형뿐이고 ‘ㅇ’형은 단순히 음운변동이 적용된 형태에 불과하게 된다. 즉 조사 ‘와, 웃, 아, 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처럼 조사의 형태 설정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ㄹ, j’ 뒤에서의 ㄱ 약화만 다루고 조사는 ‘과/와, 곳/웃, 가/아, 곰/옴’으로 놓고 출현환경에 따른 달리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 교육상 더 나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체언이든 용언이든 음운론적 환경은 ‘ㄹ, j’ 뒤에서의 ㄱ 약화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형태론 단원의 ‘2.3.2.4의 더 알아보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 2.2.5.7 탈락

##### 가. 자음군단순화(☆☆)<sup>61)</sup>

자음군단순화란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국어의 ‘흙 → 흑’, ‘삶만 → 삼만’, ‘몫 → 목’이 그 예이다. 중세국어에도 자음군단순화는 확인되나 그 양상이 사뭇 달랐다. 중세국어는 어두에서뿐 아니라 어말에서도 최대 두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음주의적 표기를 원칙으로 삼은 중세국어 문헌에 종성 표기에서 겹받침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 자음군단순화는 필수적 현상이 아니었다.

우선 『용가』와 『월곡』을 제외한 문헌에서 확인되는 종성의 합용병서 중 사이시옷과 관련된 표기를 제외하면 ‘ㄹㄱ, ㄹㅁ, ㄹㅂ, ㄴㅅ, ㅁㅅ, ㄱㅅ, ㅂㅅ’의 여덟 가지가 있다. 이중 ‘ㄹㅂ’은 ‘ㅂ’이 음가를 가졌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 (1) 용언의 활용: 붉게, 옮디, 붉고, 숱더니, 앉디, 옮디, 낮는
- (2) 체언의 단독/자음 조사 결합: 흙과, 여덟 字, 넓 일허, 값과

용언의 ‘앉-’ 표기의 경우, 모음 앞에서는 ‘앉-(안자, 안즈니, 등)’으로 실현되며, ‘읊-’ 기표의 경우는 모음 앞에서는 ‘읊-(움츠며, 움쳐, 등)’으로 실현되었다. 즉 ‘ㄴ’이나 ‘ㅁ’ 뒤의 ‘ㅈ’과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자음 앞에서 ‘ㅅ’으로 바뀐 예이다. ‘붉게, 옮디, 붉고’ 등도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겹받침이 그대로 쓰였다. 비음이나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의 경우에는 ‘ㄹㅎ’을 제외하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넓’, ‘값’ 등의 ‘ㄱㅅ, ㅂㅅ’도 표기애 모두 나타났으니 이들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표기상 겹받침이 있다면 표기애 쓰인 자음 모두 발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61) 관련 기출로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지문형 문제가 있다.

- (1) 갓- + -고 → 갓고, 봇- + -디 → 봇디, 맛- + -느니 → 맛느니
- (2) 없- + -고 → 업고, 없- + -거늘 → 업거늘
- (3) 굽- + -는 → 글는, 숱- + -늦다 → 슬늦다

그러나 어말에서 최대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음에도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은 ‘ㅅ’, ‘ㅈ’처럼 ‘ㅅ’으로 시작하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예외 없이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어 /ㅅ/으로만 실현되었다. (2)와 같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에도 적용되었으나 ‘값’과 같이 ‘ㅂ’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ㅂ’으로 끝나는 용언이 ‘없-’뿐이라 ‘없다’에만 적용된 제약인지 ‘ㅂ’에 대한 제약인지는 알 길이 없다. ‘ㅎ’ 역시 자음군단순화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ㅎ’이 음절 말에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나. ㄹ 탈락(☆☆)

ㄹ 탈락은 용언의 활용과 복합어의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대국어에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ㄴ’, ‘ㄷ’, ‘ㅁ’, ‘ㅅ’, ‘ㅈ’ 앞에서도 나타나는 등 그 출현 환경이 넓었다.

- (1) 살- + -는 → 사는, 알- + -디 → 아디, 알- + -습- + -고 → 아습고
- (2) 놀- + 니- + -샤 → 노니샤, 솔 + 나모 → 소나모, 둘 + -님 → 두님, 활 + 살 → 화살
- (3) 굽- + -는 → 글는, 앓- + -는 → 앓는

(1)은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ㄴ’, ‘ㄷ’, ‘ㅁ’,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2)는 ‘ㄹ’로 끝나는 어근이 복합어 형성에 참여했을 때이다. (1)은 필수적이었고, (2)는 복합어의 경우 용언이 결합할 때는 일반적으로 ㄹ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체언의 경우에는 ㄹ이 탈락이 필수적이진 않았다. ‘아들님’, ‘둘째’ 등의 예도 보인다. 현대국어와 같이 용언의 활용 (1)은 필수적이고, 합성/파생 (2)는 수의적이었으며 (1)과 (2)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3)은 ‘ㅎ’ 겹받침의 경우인데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ㅎ’이 탈락할 뿐,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ㄴ’ 앞에서 ‘ㄹ’이 그대로 쓰였다. 즉 ㄹ 탈락이 생산적었음에도 ‘ㄹㄴ’ 연쇄가 가능한 했다는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교체 항목에서 유음화를 다루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인데, 15세기에는 유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sup>62)</sup> ㄹ 탈락은 15세기에는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한 반면, 순행적 유음화는 16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하였다. 따라서 ㄹ과 ㄴ이 만나더라도 이미 ㄹ 탈락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16세기가 되어서도 순행적 유음화를 겪지 않았고, ‘ㅎ’과 같이 자음군단순화로 ‘ㄹㄴ’ 연쇄를 가졌다 단어는 16세기가 되어서 유음화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음운 현상의 역사로 인해 현대 국어에서 ‘아는’, ‘우느냐’ 등과 같은 용언 활용형 및 ‘소나무’, ‘따님’ 등과 같은 복합어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ㄹ’ 탈락이 적용되는 반면 ‘끓는’이나 ‘앓는’은 자음군단순화 후 유음화를 겪게 된다.

또한 중세국어는 ‘ㅎ’ 탈락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국어라면 ‘낳-+-어’는 [너어]로, ‘끓어’는 [끄러]로 발음되는 등 연음이 될 환경에 ㅎ이 탈락하는데<sup>63)</sup>, 중세국어에는 ‘낳- + -어 → 너허’, ‘굽- + -을 → 글흘’ 등 ㅎ이 그대로 연음되었다. 즉 ㅎ이 제대로 발음되었다.

62) 이와 관련해선 19수능 12-13번과 26학년도 수특 92쪽의 지문형 문제가 참고된다. 16세기 역시 중세국어에 포함되나 이 당시엔 크게 생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63) 교과과정상 이 ㅎ의 탈락은 자음군단순화가 아니다. 평가원 기출엔 없으나 학력평가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다.

## 다. 모음 탈락 (☆☆)

모음 탈락은 모음끼리 결합할 때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현대 국어의 ‘가- + -아 → 가’의 동일 모음 탈락과 ‘쓰- + -어 → 써’의 — 탈락 등이 있다. 중세국어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가-’, ‘나-’, ‘놀라-’ 등과 같이 ‘ㅏ, ㅓ’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나’, ‘가’, ‘놀라’처럼 두 모음 중 하나만 남는다. 다만 ‘가아’처럼 두 모음이 모두 실현된 예도 존재한다.

중세국어는 어간 끝 ‘—’뿐만 아니라 어간 끝 ‘、’도 탈락하였다.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용언들을 제외하면, 용언 어간 말 모음 ‘、/—’는 ‘ㅏ, ㅓ, ㅗ, ㅜ’ 등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부사파생 접미사 ‘-이’ 앞에서 탈락하였다.

‘ㅊ- + -아 → 차, ㅌ- + -오- + -ㄴ → 톤, ㅎ- + -옴 → 흄, ㅍ- + -어 → 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와 ‘—’를 약모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리가 약해 탈락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히다’는 예외적으로 ‘ㅎ- + -아 → ھ야’, ‘ㅎ- + -옴 → ھ옴’처럼 어간의 ‘ㅎ’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였기 때문에 ‘ㅎ-’를 제외해선 약모음 탈락은 필수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 더 알아보기: ㄹ 탈락과 매개모음

**매개모음**이란 본디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발음의 용이를 위해 두 자음을 매개하여 삽입되는 모음을 뜻한다. 즉 모음의 삽입/첨가를 내포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니까’, ‘-면서’, ‘-시-’ 등의 어미는 자음 어간 뒤에 올 때 ‘으’가 삽입되어 ‘먹으니까’, ‘잡으면서’, ‘닫으시다’처럼 쓰인다고 보았고 이 ‘으’를 매개모음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으’가 삽입된다고 보기에는 의문문 ‘먹니?’와 연결형 ‘먹으니’와 같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동일한 환경임에도 ‘으’가 삽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삽입이 아니고 ‘으니’가 있는데 ‘으’가 탈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다만, 워낙 ‘매개모음’이란 용어가 학계 전반에 퍼져 ‘으니’, ‘으면서’ 등도 하나의 어미로 보더라도 이 ‘으’가 있는 어미를 **매개모음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매개모음이란 용어는 현재는 다소 확장된 쓰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니까’, ‘-면서’, ‘-시-’ 등을 기본형으로 인정하면 ‘으’의 삽입을, ‘-으니까’, ‘-으면서’, ‘-으시-’ 등을 기본형으로 인정하면 ‘으’의 탈락을 전제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문법(교과서)은 매개모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으’의 삽입으로도 ‘으’의 탈락으로도 보지 않는다. 음운의 첨가 중 ‘— 첨가’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음운의 탈락 중 ‘— 탈락’은 있으나 이는 어미가 아니라 어간의 ‘—’에 관한 경우이다. 현행 교과서의 기술 방식은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데, ‘으’형과 ‘으’부재형을 음운론적 이형태로 놓고 그 둘을 모두 기본형으로 잡는 것이다. 방민호 외(2019), 이관규 외(2019), 최형용 외(2019)에서 각각 ‘둥근, 거친, 산’을 ‘둥글- + -ㄴ’, ‘거칠- + -ㄴ’, ‘살- + -ㄴ’으로 분석하였다. 즉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이 ‘으’가 없는 모음은 자음 ‘ㄹ’과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붙고, ‘으’가 있는 모음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결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64) ‘히다’의 이러한 특이한 활용은 형태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학교문법의 설명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양상을 서술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국어는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은, -을, -으니, -으며’ 등은 중세국어의 경우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ㄴ, -ㄹ, -니, -며’가 결합했다. 즉 ‘산, 살, 사니, 살며’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시-’와 ‘-쇼서’는 특이하게 매개모음형 어미가 결합하였다. ‘아시니, 아쇼서’ 등의 용례는 보이지 않고 ‘사르시니(살- + -으시- + -니)’와 ‘아르쇼서(알- + -으쇼서)’ 등의 용례만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르 탈락을 볼 때 결합하는 어미는 현대국어와 대체로 동일하나,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나 ㅎ쇼서체의 일부 종결어미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매개모음형 어미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2.5.8 첨가(☆☆)

중세국어에서 주로 다뤄지는 첨가는 반모음 첨가이다. 이는 모음이 연달아 나타날 때 모음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인데 현대국어에서 규범상 첨가되는 반모음은 ‘j’뿐이다.<sup>65)</sup> ‘피어’의 원칙 발음은 [피어]인데 [피여]도 허용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중세국어에도 보이는데, ‘j’와 ‘w’ 모두 수의적으로 첨가됐다.

- (1) ㄷ외- + -아 → ㄷ외야, 내- + -옴 → 내용, 그르메 + 에 → 그르메예
- (2) 흐리- + -어 → 흐리여, 지- + -어 → 지여, ㄷ리 + 에 → ㄷ리예
- (3) 모도- + -아 → 모도와, 두- + -어 → 두워, ㅋ초- + -아 → ㅋ초와

(1)과 (2)는 반모음 ‘j’가 첨가되는 경우로 (1)은 반모음 ‘j’로 끝나는 형태소 뒤, (2)는 단모음 ‘ㅣ’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났다. (3)은 반모음 ‘w’가 첨가된 경우이다. 다만 수의적인 현상이라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 2.2.5.9 축약(☆☆)

중세국어의 축약은 격음화만 다뤄진다. ‘ㅎ’과 평음이 결합할 때 평음이 격음이 되는 것을 격음화라고 한다. 현대국어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도 선행하는 ‘ㅎ’과 후행하는 ‘ㄱ, ㄷ, ㅂ, ㅈ’이 결합하면 ‘동- + -고 → 도코’, ‘나랗 + 과 → 나라콰’, ‘곯- + -부- → 골푸-’, ‘낳 + 들- → 나틀-’, ‘않 + 밟 → 안팎’처럼 ‘ㅋ, ㅌ, ㅍ, ㅊ’의 격음으로 바뀌었다. 평음이 선행하고 ‘ㅎ’이 후행할 때의 격음화 역시 일어났는데 표기상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피- (잡- + -히-)’나 ‘무티- (묻- + -히-)’, ‘안치- (앉- + -히-)’ 등 피사동사는 격음화가 반영된 반면, ‘ㅋ득호니, 고죽호니, 하딕호시고’는 발견되고 ‘ㅋ드코니, 고즈ㅋ니, 하디ㅋ시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 2.2.5.10 성조의 변동(☆)<sup>66)</sup>

중세국어의 성조는 환경에 따라 변동을 보이기도 한다.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일어나는 성조 변동과 형태소들이 결합된 후 해당 형태소가 들어 있는 음절 수에 따라 나타나는 성조의 변동이 있다. 역시 성조는 잘 다뤄지지 않으므로 이해가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65) 물론 이는 표준 한국어에 한해서이다. 표준발음법에서 인정하는 반모음 첨가는 ‘j’뿐이나 현실음은 ‘w’도 첨가되기도 한다. 다만 ‘보아라’를 [보와라]로 발음하는 것은 비표준 발음이므로 제외하였다.

66) 극히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다. 수험생은 넘어가도 된다. 다만 국어사 연구에서 중세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성조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이전 어형 재구에 중요하게 쓰인다.

### 가. 대명사의 성조 변화 (☆☆)

대명사 중 인칭대명사는 어떤 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성조가 바뀔 수 있었다. ‘나’, ‘너’, ‘누’, ‘저’는 주격조사 ‘ㅣ’와 결합할 때와 관형격조사 ‘ㅣ’와 결합할 때 그 성조가 달리 실현되었다. 1인칭 대명사 ‘나’는 주격 조사와 결합 시에는 거성으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 시 평성으로 실현되었다. 2인칭 대명사 ‘너’와 재귀칭 대명사 ‘저’는 주격 조사와 결합 시에는 상성으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 시에는 평성으로 실현되었다. 미/부정칭 대명사 ‘누’는 주격 조사와 결합할 시 거성으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시 상성으로 나타났으며 의문 보조사 ‘고’가 결합할 때는 거성으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문자상 동일한 형태이더라도 방점의 존재로 ‘내(H), 네(R), 제(R), 뉘(H)’는 주격이고, ‘내(L), 네(L), 제(L), 뉘(R)’는 관형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67)</sup>

### 나. 유동적 성조 어간 (☆)

일부 용언의 경우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자신의 성조가 바뀐다. ‘알-(知), 뷔-(空), 담-(滿)’ 등은 용언은 ‘담고(RH)/다마(LH)’와 같이 자음 어미 앞에서는 상성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현대국어의 1음절 장음 어간이 단음이 되는 단음화와 관련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용언의 성조를 ‘유동적 상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은 ‘두고(LH)/두느니(HLH)’처럼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성조의 교체를 보인다. ‘흐-, 보-, 가-’ 등이 여기에 속하며, ‘-고, -다, -게’ 등의 어말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된 반면, ‘-느-, -술-, -(으/으)시-’ 등의 선어말어미와 어말 어미 ‘-어/아’ 앞에서는 거성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용언의 성조를 ‘후의적 성조’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달리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성조를 지니면 ‘고정적 성조’라고 한다.

### 다. 성조의 율동 규칙 (☆)

개별 단어의 성조는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와 결합한 이후 하나의 기식군<sup>68)</sup>을 이룰 때,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단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성조의 조합이 실제 발음 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율동규칙’이라고 한다. 율동규칙은 발화의 편의를 위해 실현되는 후처리 작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율동규칙으로는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 규칙’과 ‘어말평성화(語末平聲化) 규칙’이 있다. ‘거성불연삼 규칙’은 글자 그대로 ‘거성이 셋 이상 연속되지 못한다’는 규칙이다. 하나의 어절 내에서 높은 소리인 거성이 셋 이상 연달아 나타날 경우, 그중 하나를 낮은 소리인 평성으로 바꾸어 발음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예를 들어, 거성이 단어 ‘불(火)(H)’에 거성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며’(HH)가 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브리며’(HHH)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칙이 적용되어 뒤에서 두 번째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는 ‘브리며’(HLH)로 실현되었다. 이 규칙은 특정 환경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어말평성화 규칙’은 어절 끝에 오는 거성을 평성으로 바꾸는 규칙이다. 어절의 끝이 두 개 이상의 거성으로 끝날 경우, 마지막 음절의 거성을 평성으로 바꾸어 발음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없다’

67) 2012학년도 임용 1차에 나온 적 있는 주제인데 주격/관형격 성조 교체만 다뤘다. 다른 격에서도 성조 변화가 관찰되는데 김성규(2007)가 참고된다.

68) 발화에서 휴지(休止) 없이 한 호흡으로 이어서 발음되는 소리의 덩어리이다. ‘망할 놈’을 [망할룸]으로 발음하는 것 따위로,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의 관형사형 ‘업순’(RH) 뒤에 명사 ‘중을(명사 중+목적격 조사 을)’(RH)이 와서 ‘업순 중을’이라는 기식군을 이룰 때, ‘업순’의 끝의 거성 ‘순’이 평성으로 바뀌어 ‘업순 중을’(RL RH)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 다만 이 규칙은 ‘거성불연삼 규칙’과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칙이 아니었다.

## 2.2.6 음운 변화

후기중세국어 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음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후기중세국어는 15세기~16세기라는 대략 100여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꽤 많은 음운이 변하였다.

### 2.2.6.1 자음의 변화

#### 가. 유성음 체계의 변화(☆☆☆)<sup>69)</sup>

‘봉[β]’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드물게 나타나고 1450년대까지 존속하다가 쓰이지 않게 되었는데 대체로 반모음 ‘w’로 변하였다. ‘고방>고와’처럼 ‘w’로 바뀌기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고비>고이’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한 예도 있다.<sup>70)</sup> 따라서 15세기 초중반에 쓰이던 ‘덥고/더벽’라는 활용은 15세기 말~16세기 초부터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덥고/더워’라는 활용을 보이게 된다. 15세기 중엽에 소멸이 시작되고 16세기 초에는 완전히 소멸되면서 ㅂ 불규칙 활용이 형성되었다.

‘△[z]’는 15세기 말부터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일부 흔적을 남기고 소멸된 ‘봉’과 달리 ‘△’은 ‘아우>아우’에서처럼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은 16세기 중엽 문헌에 가끔 등장하나 16세기 말에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의 소멸로 ‘긋고/그서’라는 활용은 ‘긋고/그어’로 변하게 되며 이로 인해 ㅅ 불규칙 활용이 형성되었다.

‘o[h]’은 15세기 말에 소멸이 시작되며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소멸하였다. ‘몰애’, ‘놀애’, ‘굼애’ 등은 o[h]의 소리가 사라지며 ‘모래’, ‘노래’, ‘꽈배’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ㄹo’의 경우 많은 경우 ‘ㄹㄹ’로 변하기도 하였는데, ‘별애>벌레’, ‘달애다>달래다’, ‘들이다>들리다’ 등이 그러하다. ‘놀애’나 ‘몰애’ 역시 ‘놀래’, ‘몰래’로 쓰인 예가 관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성음 체계는 16세기를 거치며 비음운화 과정을 겪었고 17세기로 넘어서며 즉 근대국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중앙어는 이러한 방언에 따라선 변화 양상이 달랐다. ‘△’은 ‘ㅅ’, ‘o’은 ‘ㄱ’, ‘봉’은 ‘ㅂ’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때 유성마찰음이 기원적인 음소 즉 원래부터 존재하였다고 보는 견해에선 중앙어에서는 ‘봉[β], △[z], o[h]’가 비음운화를 겪은 반면 방언에서는 ‘봉[β], △[z], o[h]’가 ‘ㅂ, ㅅ, ㄱ’으로 변화하였다고 파악한다.(이러한 견해에서도 o[h]은 기원적인 음소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봉[β]’과 ‘△[z]’만이 기원적 유성음 음소가 된다) 그러나 유성마찰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중앙어는 원래 ‘ㅂ, ㅅ, ㄱ’이던 형태가 ‘봉[β], △[z], o[h]’으로 변화한 결과이고 방언에서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ㅂ, ㅅ, ㄱ’으로 남아 있다고 파악한다.<sup>71)</sup>

69) 관련 기출로 17 6평 11~12가 있다.

70) 이때 ‘고이’의 ‘o’을 음자가 있다고 보기도 하나, 이삼형 외(2019: 212)에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소멸한 예로 제시하므로 이를 따랐다.

71) 이 부분은 심화 과정이니 넘어가도 괜찮다. 한편, 전통적으로는 전자의 견해가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후자

#### 나. 합용병서의 변화 (☆☆)

‘ㅂ계 합용병서’와 ‘ㅂ계 합용병서’가 ‘ㅂ’이 선행하는 어두자음군임은 이미 밝혔다. 그런데 어두자음군은 15세기 말부터 변화가 관찰되는데 ‘쁨’과 ‘뿔’이 16세기 초에는 주로 ‘쉼’과 ‘술’로 쓰였다. 문헌 자료를 근거할 때 ‘版权所有’ 등은 16세기에 된소리로 변화하였고, ‘ㅂ’, ‘ㅂ’, ‘ㅂ’는 그 후 17세기에 된소리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두에 올 수 있는 음절의 개수가 1개로 한정되었다.

#### 2.2.6.2 모음의 변화 (☆☆☆)

중세국어의 특징적인 모음으로는 ‘、’가 있는데 ‘、’는 총 두 차례에 걸쳐 비음운화를 겪는다. 우선 제1차 변화는 15세기 중엽에 시작하여 16세기 말에 완성되었다. 비어두에 놓인 ‘、’가 ‘一’로 변한 것인데, ‘흐 며 → 흐물며’, ‘모르- → 모르-’, ‘가풀 → 가풀’ 등에서 관찰된다. 또한 ‘말미 → 말미’와 같이 ‘、’가 이중모음의 일부여도 비어두에 위치하였다면 ‘一’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모음조화가 점차 문란해지기 시작한다. 18세기에 1음절의 ‘、’가 ‘ㅏ’로 변한 2차 변화도 있으나 이는 근대국어의 음운 변화에서 다루도록 한다.

#### 2.2.6.2 운소의 변화 (☆☆)

15세기의 성조 체계는 16세기를 거치며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방점 표기의 혼란이 일어났는데, 15세기와 16세기에 동일한 어형이더라도 방점이 달리 표기된 예가 많아졌다. 또한 율동규칙도 문란해졌는데 16세기 초에 이르러선 ‘HHH’와 같은 거성의 3연속형이 자주 쓰였다. 그런데, 성조를 표기 하던 방점은 16세기 말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진다. 이렇게 방점이 사라진 것이 성조의 소멸을 반영한 것인지는 이견이 있다. 다만, 민현식 외(2019:213)에서 ‘방점 표기의 소멸 = 성조의 소멸’로 보았으니 학교문법에서는 16세기에 성조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근대국어로 들어서며 즉 17세기가 되면서 성조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방점도 사라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학교문법 수준을 벗어나 보자. 갑자기 방점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성조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방점의 표기가 문란해지긴 하였으나 16세기 말까지 15세기의 성조를 유지한 형태소도 있었기 때문에 16세기 말까지는 성조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때, 16세기까지 성조가 존재하였다면 성조가 17세기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사라졌을까? 이에 따르면 성조는 단순히 표기에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근대국어를 거치며 점차 소멸의 길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6세기의 방점의 혼란이 극심하여 이것이 곧 성조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면 방점 표기의 폐지는 실질적으로 성조가 소멸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72)</sup>

의 견해도 보인다. 전자는 이승재(1983)가, 후자는 김한별(2012)과 소신애(2012)가 참고된다.

72) 이와 관련하여 유필재(2001:147-148)와 이문규(2017)가 참고된다.

## 2.3. 형태론

형태론은 단어와 단어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로, 품사의 분류, 어근과 접사, 합성과 파생, 그리고 형태소 간의 결합 양상을 분석한다.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체계는 현대국어의 그것과 기본적인 원리를 공유하지만, 어미 체계나 파생 접사의 형태, 조사 체계 등에서 오늘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중세국어 문법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대국어 문법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의 형태소와 단어 구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형태론적 특징이 어떻게 현대국어의 문법 체계로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 2.3.1 품사의 체계<sup>73)</sup>

품사란 단어를 그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중세국어의 단어도 현대국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 체계에는 없는 품사의 설정 논의라든가 하는 등의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학교문법 수준의 체계만 고려하자.<sup>74)</sup> 학교문법의 9품사 체계를 중세국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	기능	품사	용례
불변어	체언	명사	여름(實), 나모(木), 생종(世宗), 아난(阿難)
		대명사	나, 너, 그느, 조가, 아모, 이어그, 그어그
		수사	후나ㅎ(一), 둘ㅎ, 온, 즈믄, 후나차이, 둘차이
수식언	관형사	새, 므슈, 어누, 여라문(十餘)	
	부사	못, 더욱, 아니, 몯, 아마도, 그러나	
독립언	감탄사	이, 아으, 아소, 에에[哭聲]	
	조사	이, 를/를, 으로/으로, 는/는, 도, 와/과	
관계언	(서술격 조사)	이라/   라/Ø라	
	동사	가다, 후다(爲), 맛나다, 놀다(遊), 듣다, 살다	
가변어	용언	하다(多), 크다, 끄르다, 둉다(好), 좋다(淨)	

임지룡 외 (2020: 387)

#### 2.3.1.1 체언

##### 가. 명사 (☆☆)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표시하는 말이다. 명사는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뉘는데 중세국어나 현대국어나 기준은 똑같으니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명사는 통사 과정의 의존성에 따라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로 나뉜다.

73) 품사론은 형태론, 어휘론, 통사론과 관련을 맺고 있어 형태론의 하위 영역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개론서를 따라 품사론은 형태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어휘 체계는 어휘론에서 다룬다.

74) 첨사, 지정사, 계사 등의 학술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ㄱ. 諸法이 비론 일후민 둘 아는 衆生 爲乎야
- ㄴ. 虛空이 네 心識을 내옳 드 아니니라

(ㄱ)은 ‘드 + 올’, (ㄴ)은 ‘드 + 丨’로 분석되는데, 의존명사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못한다. 필수적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한다. 중세국어의 의존명사에는 ‘드(것/)’ 외에도 ‘것’, ‘바’, ‘스(것/줄)’, ‘이’, ‘줄’, ‘쭈름(따름)’ 등이 있다. 이때, ‘드’와 ‘스’는 뒤에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가 오더라도 ‘디/디라’나 ‘시/시라’와 같이 쓰이지 않고 ‘디/디라’나 ‘시/시라’와 같이 ‘.’가 탈락하였다. 의존명사는 뒤에 결합할 수 있는 조사가 제한되어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주어성 의존 명사, 서술성 의존 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그리고 이러한 제약이 없는 보편성 의존명사로 나뉜다.

중세국어 시기에선 주어로만 쓰이는 주어성 의존명사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만 쓰이는 서술성 의존명사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부사어로만 쓰이는 부사성 의존명사는 비교적 자주 보인다. 현대국어에선 ‘채(선 채로 죽었다)’나 ‘대로(허락되는 대로 하겠다)’ 등이 부사성 의존명사로 처리되는데, 중세국어에선 ‘대로’를 의미하는 ‘다鄙’, ‘채’를 의미하는 ‘자히’, ‘듯이’를 의미하는 ‘듯/드시’ 등이 쓰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없이 한 의존명사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면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바(사물)’, ‘이(사람)’, ‘적(시간)’, ‘넉(장소)’, ‘드(것)’ 등이 있다. 이러한 중세국어의 보편성 의존명사는 그 성격이 유지되어 대체로 현대국어에서도 ‘통탄하는 바이다’, ‘느낀 바가 크다’, ‘원하는 바를 말하라’와 같이 보편성 의존명사로 쓰인다. 다만 현대국어의 ‘뿐’과 ‘따름’은 서술격조사 ‘이다’와만 어울리는 서술성 의존명사인데 이들의 직접적인 소급형<sup>75)</sup> ‘쭈름’과 ‘쑨’은 중세국어 시기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어 중세국어 시기에선 보편성 의존명사였다고 볼 수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도 있는데 ‘번(番)’을 의미하는 ‘디위’와 ‘불’, ‘낱’을 의미하는 ‘낱/낫’, ‘시의 수(首)’를 나타내는 ‘마리’ 등이 쓰였다. 이들을 ‘단위성 의존명사’라 한다.

#### 나. 대명사 (☆☆☆)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체언으로,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같이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 있다. 중세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1인칭의 ‘나’와 복수형 ‘우리’, 2인칭의 ‘너’와 ‘그디/그듸’, 복수형 ‘너희’가 있다. 이때, ‘나’의 낮춤말인 ‘저’는 쓰이지 않았고 ‘그디/그듸’는 ‘너’보다 높임의 의미를 지녔다. ‘우리’와 ‘너희’는 복수형이지만 다시 복수 접미사 ‘-들’이 결합한 ‘우리들’, ‘너희들’이 쓰이기도 했다. 현대국어의 3인칭 대명사 ‘그’는 중세국어에서 보이지 않는다. 미지칭이나 부정칭은 그 쓰임이 현대와 일치했는데 미지칭은 ‘누’, 부정칭은 ‘아모’로 쓰였다. 재귀칭은 ‘저’와 복수형인 ‘저희’가 나타나며 ‘저’보다 높임의 재귀칭인 ‘조가’도 쓰였다.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지시하느냐 쳐소를 지시하느냐느냐에 따라 사물 대명사와 쳐소 대명사로 나뉜다. 지시대명사는 화자를 기준으로 하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근칭, 중칭, 원칭으로 나뉜다. 중세국어에선 각각 ‘이, 그, 데’로 나타난다. 사물 대명사도 부정칭이나 미지칭을 가지는데

75) 소급형은 현대국어의 어형에 대응하는 옛 형태를 말한다.

부정칭은 ‘아모, 아모것’으로, 미지칭은 ‘어느’, ‘므슥/므슴’, ‘현마’, ‘엇데’ 등 다양하게 쓰였다. 처소 대명사는 근칭, 중칭, 원칭이 각각 사물 지시대명사에 ‘-어그’, ‘-에’가 연결되어 나타난다. 즉 ‘이어 그, 그어그, 데어그’, ‘이에, 그에, 데에’로 쓰인다. 또 여기서 ○이 탈락한 ‘여그, 거그, 데그’와 ‘예, 게, 데’가 나타나기도 한다. 처소 대명사의 부정칭으로는 ‘아모드, 아모디’가 있고, 미지칭으로 ‘어드, 어드메’가 쓰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칭 대명사	1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나	예사말	우리/우리 <sup>둘</sup>
		겸사말 <sup>76)</sup>		겸사말	
	2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너	예사말	너희/너희 <sup>둘</sup>
		공대말	그더/그듸	공대말	그더내/그듸내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데 <sup>77)</sup>	
	미지칭	단수		복수	
		누			
	부정칭	단수		복수	
		아모			
	재귀칭	단수		복수	
		예사말	저	예사말	저희/저희 <sup>둘</sup>
		공대말	주가	공대말	

		근칭	중칭	원칭	부정칭	미지칭
지시 대명사	사물	이	그	데	아모, 아모것	어느, 어느, 므스, 므슥, 므슴, 므스것, 현마, 언마, 언마, 엇데
	처소	이어그, 여그, 이에, 예	그어그, 그에, 게	뎅어그, 데어그, 데그, 데에, 데	아모디/ 아모드	어드, 어드메, 어드메

76) 현대국어에선 1인칭 단수 겸사말로 ‘저’가, 1인칭 복수 겸사말로 ‘저희’가 쓰인다. 물론 3인칭 ‘저희’ 역시 아직 현대국어에 남아있다.

77) 임지룡 외(2020)에선 3인칭 대명사가 없다고 보았으나 나찬연(2020)과 고영근(2020), 구본관 외(2016)에서 3인칭 대명사 ‘데’를 설정하므로 이를 따랐다. 『석상』과 『법화경언해』의 용례를 보면 ‘데’의 설정이 합리적.

## 다. 수사 (☆)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데 양수사(기수사)와 서수사로 나눌 수 있다.

양수사: ㅎ 낭, 둑, 셩, 넬, 다솟, 여슷, 닐굽, 여돐, 아흡, 옽, 스돐, 셜흔, 마순, 쉰, 여순, 닐흔, 여든, 아흔, 온(百), 즈믄(千) : 몇, 여령

서수사: ㅎ 나차히/ㅎ 날재, 둘차히/둘재, 세차히, 네차히, 다솟차히, …

서수사는 양수사에 ‘-째’의 옛말인 ‘-자히/차히’<sup>78)</sup>가 결합하여 나타났는데, ‘자히’, ‘차히’에서 ‘ㅎ’이 탈락하여 반모음화를 겪은 ‘재’와 ‘채’가 붙기도 한다. 수사는 한자어계도 있는데 양수사는 ‘一, 二, 三, 四, 五, …’로 나타나고 서수사는 ‘第一, 第二, 第三, 第四, 第五, …’로 나타난다.

## 라. 체언의 복수 표시법<sup>79)</sup> (☆)

현대국어에서는 체언이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접미사 ‘-들’이 쓰이는데,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접미사 ‘-들’의 소급형인 ‘-돐’이 쓰였다. 접미사 ‘-내’도 쓰였는데 ‘-닮’은 평칭의 체언, ‘-내’는 높여야 할 대상의 체언에 쓰였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라면 ‘사람들’과 ‘누님들’로 동일하게 복수가 실현되지만 중세국어에선 ‘사름닮(사람들)’과 ‘누의님내(누님들)’와 같이 높임의 대상이 되면 그 접미사가 달리 붙었다. 대명사도 같은 이유로 예사말은 ‘너희닮(너희 + -닮)’로, 공대말은 ‘그듸내/그듸내(그듸/그듸 + -내)’로 실현된다.

### 2.3.1.2 체언의 형태 바뀜<sup>80)</sup>

중세국어 시기에는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변하기도 하였다. 마치 일부 용언 어간이 특정 어미와 붙으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듯이 일부 체언은 특정 조사와 결합하면 그 형태가 불규칙하게 바뀌기도 하였다.

#### 가. ㅎ 종성 체언 (☆☆☆)<sup>81)</sup>

‘ㅎ 종성 체언’이란 중세 국어에서 종성으로 ‘ㅎ’을 가지고 있는 체언을 말한다. ‘그 술(秋), 둑(石), 하돐(天), ㅎ 날(一), 앓(牝)’ 등 대략 80개의 ㅎ 종성 체언의 존재가 확인되며, 체언 말음이 ‘ㅎ’으로 끝났지만 뒤에 어떤 조사가 오냐에 따라 형태가 변했다.

- (1) 하돐히(하닳+이), 고해(꼴+애), 돌ㅎ로(돐+으로)
- (2) 하닳토(하닳+도), 돌콰(돐+과), ㅎ나토(ㅎ 날+도)
- (3) 암닮(앓+닮), 수닮(승+닮), 안닮(앓+밖)
- (4) 갈 빼기(앓 빼--기), 하닳 광명(하닳 + ㅅ), 냇믈(냇+믈)

78) 이들을 의존명사로 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접미사로 처리된다.

79) 복수 접미사 ‘-희’를 설정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공시적으로 ‘-희’를 분석하지 않는 입장 을 취하겠다.

80) 학교문법에서 ‘곡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체언의 형태 바뀜”으로 서술한다. 학교문법에서 인정하는 굴절은 용언의 활용뿐이지, 체언의 곡용은 인정하지 않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81) 관련 기출로 16년 6평 B형 16번과 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12번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나타나지만,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할 때는 탈락하였다. (1)은 연음, (2)는 격음화(축약)으로 ㅎ이 나타난 것이다. (3)처럼 ‘ㄱ, ㄷ’으로 시작하는 명사와 합성어를 이룰 때도 ㅎ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현대국어의 몇몇 어형에서 어째서 ㅎ이 덧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sup>82)</sup> (4)는 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편,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에서 종성 ‘ㅎ’이 나타나지 않기에 ‘ㅎ 말음 체언’으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ㅎ 종성 체언’이다.<sup>83)</sup> 이처럼 ‘ㅎ’이 종성에 쓰인 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지적되어 ‘ㅎ’의 위치가 학자마다 달리 쓰이기도 한다. ‘술’이나 ‘돌’처럼 ㅎ을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수ㅎ’이나 ‘돌ㅎ’처럼 ㅎ을 옆에 쓰기도 한다. 최형용 외 (2019:105)에서는 전자를, 민현식 외 (2019:217)와 이관규 외(2019: 202)에서 후자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교과서 편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니 학교문법 수준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나. 특수 어간 교체 (☆☆~☆☆☆)<sup>84)</sup>

중세국어 시기 특이한 형태 바뀜을 보여 주는 일련의 체언들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들을 묶어 “특수 어간 교체 체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와 그외의 경우에 그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며 고대 국어 편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체계의 음변화를 겪어 중세국어에 불규칙한 바뀜 현상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순서	조사 어미	주격	목적격	부사격			서술격	보조사	
				처소	도구	공동		대조	동일
ㄱ	나모(木)	남기	남글	남기	남?로	나모와	남기라	남근	나모도
ㄴ	구무(穴)	굼기	굼글	굼기	굼그로	구무와	굼기라		구무도
ㄷ	ㅎㄹ(一曰)	흘리	흘ㄹ	흘리		ㅎㄹ와	흘이라	흘른	ㅎㄹ도
ㄹ	ㅁㄹ(宗)	물리	물ㄹ			ㅁㄹ와		물른	ㅁㄹ도
ㅁ	노ㄹ(獐)	놀이	놀을	놀이		노ㄹ와	놀이라		노ㄹ도
ㅂ	ㄴㄹ(津)	늘이	늘을	늘이				늘온	ㄴㄹ도
ㅅ	아す(弟)	았이	았을	았이		아す와	았이라	아순	아수도
ㅇ	여스(狐)	엇이	엇을	았이(의)		여스와	엇이라	엇온	여스도

표 9-9 불규칙한 곡용의 양상

임지룡 외(2020: 389)

82) ‘머리카락’도 이와 같은 단어로 함께 언급되나 ‘머리’는 ㅎ 종성 체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ㅎ 종성 체언이어서 ‘가락’이 ‘카락’이 된 것이 아니고 유추 등의 다른 기제로 ‘ㅎ’이 덧났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 참고

83) 관련 논의는 이준환(2010:164)의 각주 (1)이 참고된다.

84) ‘특수어간교체’라는 용어는 학교문법에는 없으나 이기문(1962)에서 제시된 이래 학계에서 널리 쓰이기에 사용하겠다. 여기서 ‘어간’이란 용어는 체언에게도 쓰이기에 학교문법상 적절치 않으므로 이 내용을 교수할 경우,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따로따로 설명하기를 바란다. 관련 기출로는 24학년도 10월 학평이 있다.

#### 나(1). ㄱ 뒷생김 체언(☆☆☆)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sup>85)</sup>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느/느’와 ‘—’가 탈락하고 ‘ㄱ’이 뒷나는 체언을 말한다. ‘나모’, ‘구무’, ‘녀느’, ‘불무’ 등이 있는데 현재 확인되는 ㄱ 뒷생김 체언은 모두 ‘모/무’ 혹은 ‘느’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 (1) 남기, 남근, 남기 ; 나못 일훔, 나모와, 나모 바근
- (2) 굼기, 굼글, 굼기라 ; 구무마다, 구무둘해
- (3) 년기, 년글 ; 녀느 곤거시늘, 녀느 이를
- (4) 뿔기, 뿔괴 ; 불무로, 불무질,

위와 같이 모음 앞에서 ‘낡, 긁, 념, 뿔’으로 교체되었다. 즉 ‘남근’은 ‘나모 + 은’이 ‘낡 + 은’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학교문법에 입각하여 설명해야 한다면 어간 불규칙 활용의 기술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수의 현행 교과서에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어간이 특정 환경에서 다른 형태로 바뀐다고 설명한다. 즉 ‘듣다’나 ‘돕다’를 각각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이 되는 현상, ㅂ이 ‘오/우’가 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를 따르면 모음 앞에서 ‘모/무’와 ‘느’가 각각 ‘ㄹ’, ‘ㄴ’이 되는 현상 혹은 ‘나모’, ‘구무’, ‘녀느’가 ‘낡, 긁, 념’이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체언의 불규칙적인 교체는 곧 용언의 불규칙적인 활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 나(2). △○류 체언(☆☆)

‘ㅅ/스’로 끝나는 일부 체언은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와 ‘—’가 탈락하였다. 이때 ‘.’와 ‘—’가 탈락하면서 △이 연철되지 않고 ‘얇이(아ㅅ + ㅣ)’와 같이 분철되었는데 이 ○을 음가 있는 ○[h]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ㅅ’가 ‘얇○’으로 교체된다고 설명한다.

#### 나(3). ㄹ○류 체언(☆☆)

‘ㄹ/르’로 끝나는 일부 체언의 경우 역시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와 ‘—’가 탈락하였다. 이때도 ‘.’와 ‘—’가 탈락하면서 ㄹ이 연철되지 않고 ‘놀이(노루 + ㅣ)’와 같이 분철되었는데 이 ○을 음가 있는 ○[h]으로 본다. 이 역시 ‘노루’가 ‘놀○’으로 교체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교체를 보이는 예로 ‘노루(獐), 누루(津), 시루(甑), 조루(柄), 자루(袋) ㄱ루(粉)’ 등이 있다.

#### 나(4). ㄹㄹ류 체언(☆☆)

‘ㄹ/르’로 끝나는 일부 체언의 경우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원래 형태로 쓰이나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음절 말 모음 ‘.’와 ‘—’가 탈락하고 ㄹ이 덧났다. 즉 ‘흐루’와 같은 단어는 ‘흐 ㄹ + ㅣ’가 ‘흘이’가 아니라 ‘흘리’로 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흐루’가 ‘흘’과 같이 교체된다고 설명한다. ‘ㅁ루(棟)’와 ‘ㄱ루(粉)’도 같은 교체를 보인다.

85) 2024학년도 10월 학평에서 ‘나모와’를 ‘나모+와’로 보았고 출현 환경을 이와 같이 설명하였음.

이때, 위의 네 부류를 하나로 묶지 않고 (나1)를 그 덧생김으로 놓고, (나2~4)는 ‘으/으’의 탈락이라는 유형으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고영근(2020)과 임지룡 외(2020)에서 이러한 처리 방식을 따른다. 이 책은 고대국어까지 함께 다루므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개론서와 달리 네 부류를 함께 묶었다. 또, 이 네 부류는 모두 성조가 ‘평성+평성’의 구조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 더 알아보기: ‘와’의 처리

분명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들과 결합하면 ‘남기(낡+이)’, ‘굼기라(굵+이라)’, ‘년기(년+이)’처럼 ‘낡, 굵, 년’으로 교체되며 그이 덧나는데 어째서 ‘와’와 결합할 때만 ‘나모와’, ‘구무와’처럼 그이 덧나지 않는 걸까? ‘나모’가 ‘낡’으로 교체되어서 ‘남과’처럼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학력평가의 기술처럼 ‘와’를 예외로 설명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학계에서 이렇게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원리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을 테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실제로 많은 개론서에선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라고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라고 설명하고 ‘나모와’를 그이 덧나지 않은 예시로 제시한다. 어째서일까?

우선, ‘과’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나모+과’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은 것이고 곧 ‘낡’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약화설을 적용하게 된다면 ‘나모와’의 ‘와’의 ‘o’ 은 [h]라고 보는 견해가 된다. 다른 처리 방식도 있다. ‘와’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을, 으로/으로’ 등과 달리 반모음 ‘w’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와’는 엄밀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아니라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낡’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반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소리이므로 반자음이라고도 한다. 즉 자음의 성격을 가지는 ‘와’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처럼 ‘나모’와 어울린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조사 ‘과’는 ‘곳, 가, 곰’ 등과 함께 체언의 그 약화로 흔히 거론되는 조사이므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의 그 약화설을 긍정한다면 ‘나모와’가 되는 이유는 반모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음가 있는 ‘o[h]’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sup>86)</sup>

또한, △o류, ㄹo류 체언에서도 ‘과’가 아니라 ‘와’가 나타나는데 이때의 ‘와’도 보통 ‘o[h]’으로 본다. 이 역시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o[h]’을 긍정한다면 ‘과’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ս + 과’, ‘노르 + 과’에서 체언의 그의 약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약화’의 음운론적 환경을 용언 어간이든 체언이든 ‘ㄹ’과 ‘j’가 끝소리일 때로 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모와’의 ‘와’는 예외로 보기로 한다.

### 다. 대명사의 ㄹ 덧생김 (☆☆)

‘나, 너, 데, 누’ 등의 대명사가 ‘와, 로, 라와, ㄷ려’ 등의 일부 조사와 결합할 때 ‘ㄹ’이 덧생겼다. 위들 대명사가 ‘날, 널, 멸, 눌’ 등으로 나타나는 ‘ㄹ 덧생김’ 현상은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라 수의적으로 나타났다. 현대국어의 ‘절로’나 ‘일로’가 이러한 ㄹ 덧생김의 연장선이다.

86) ‘보기’형 문제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24학년도 학평에서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과/와’ 관련해선 관계언 단원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 ㄱ. 四衆이 울워러 仁과 날와 보느나
- ㄴ. 엇데 옷 바불 뼈 날로 이에 니를어뇨 커늘

#### 라. 기타 체언의 바뀜 (☆☆)

체언 말의 ‘이’가 관형격조사 ‘이/의’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체언 말의 ‘이’의 탈락은 ‘아가(호격)’에서처럼 관형격 조사가 아닌 조사와의 결합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탈락 현상은 ‘아비’, ‘아기’, ‘가히’, ‘늘그니’ 등과 같은 유정명사에 주로 나타났는데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아비옷 이시면 우리를 어엿비 너겨, 아드리 아비 천량 물려  
비운 아기 비디, 그 어미 널오디 아가, 아기 빈 겨지비어든

또, ‘.’나 ‘-'로 끝나는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之字를 쁘로 서로 보니  
谮谮흔 쁘 널오문 어드운 中에 불고미니

중세국어 시기 時를 나타내는 명사는 ‘쁘’ 또는 ‘쁘’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이 주격조사 ‘ㅣ’와 결합할 때 ‘쁘’가 아니라 ‘쁘’ 즉 ‘-'가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의존명사 ‘드’, ‘스’도 말음 ‘.'가 탈락했다.

#### 2.3.1.3 용언

##### 가. 동사 (☆☆)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를 ‘동사’라 하는데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된다. 아래의 ‘닙다’는 ‘머구므를’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타동사이고, ‘니다’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자동사이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목적어의 유무 말고도 선어말어미로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어-’가 결합하면 타동사, ‘-거-’가 결합하면 자동사이다. 중세국어는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능격동사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사론 단원을 참고하자.

- (1) 데의 머구무를 니버니(닙- + -어- + -니)
- (2) 어서 도라 니거라(니- + -거- + -라)

##### 나. 형용사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를 ‘형용사’라 하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의미에 따라 감각, 대상에 대한 평가, 심리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성상형용사와 지시되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지시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형용사로 ‘길다, 높다, 둘다, 슬프다’ 등이 있고 후자는 ‘이려흐다, 그려흐다, 데려흐다, 아므로흐다, 엇더흐다’ 등이 있다. 지시형용사는 대명사와 같이 근칭/중칭/원칭과 부정칭/미지칭으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렷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별법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느-’의 결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느-’가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다면 형용사이다. ‘가다’는 동사이므로 ‘가느니’와 같이 활용이 가능했지만, ‘색르다(빠르다)’는 형용사이므로 ‘\*색르느니’로 쓰이지 않고 ‘색르니’로만 쓰였다. 그런데, 형용사임에도 ‘-느-’가 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형용사가 동사로도 쓰였다고 파악한다. 이와 관련해선 품사의 통용에서 알아보자.

## 라. 보조 용언 (☆)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인데 중세국어 역시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구별할 수 있다. 진행(-어 가다, -고 있다), 시행(-어 보다), 봉사(-어 주다) 등의 보조동사와 희망(-고 싶하다), 부정(-디 아니하다/못하다) 등의 보조 형용사가 쓰였다.

### 2.3.1.4 용언의 활용

#### 가. 규칙활용 (☆☆)

규칙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거나 혹은 변하더라도 그 변화가 규칙적이라서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형태가 바뀌더라도 음운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활용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닙다(입다)’와 ‘자다’는 각각 ‘넓고’, ‘니버서’와 ‘자고, 자디’ 등으로 활용하면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어간의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기도 하지만, 음운 변동의 결과로 어간이나 어미가 규칙적으로 바뀔 수 있다.

- ㄱ. 브터(불어)~붙고, 노포라(높오라)~놉디, 안자(앉아)~앉거늘, 깃거(깃어)~깃노라, 업서~업고
- ㄴ. 푸디~파, 추거늘~차셔, 쓰고~써, 크고~쿠디,
- ㄷ. ㄱ라(글아)~ogni, 사루시니(살으시니)~사더니, 아루쇼셔(알으쇼셔)~아습고
- ㄹ. 다루거늘~달아, 그르눈~글옴, 오루시니~올아셔, 니르고져~닐어도
- ㅁ. 모루실씨~몰라, 부루고~볼롬, 색르니라~쌀라, 므루며~물롬
- ㅂ. 부우디~붓운, 비슨~빙어, 그스며~궁어

(ㄱ)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연음이 되고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8종성으로 교체되거나 또는 자음군단순화를 겪어 자음이 하나 탈락한 경우이다.

(ㄴ)은 현대국어의 ‘— 탈락’의 전신인데, 중세국어는 ‘· / — 탈락’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간 끝이 ‘·’나 ‘—’인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 / —’가 탈락하여 ‘푸- + -아 → 파’나 ‘크- + -우디 → 쿠디’처럼 쓰였다.

(ㄷ)은 현대국어에도 보이는 끝 탈락인데 현대국어보다 그 범위가 넓었다. 중세국어에선 ‘ㄴ, ㄷ, ㅁ, ㅂ’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끝 끼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살다’의 어간 ‘살-’에 어미 ‘-니, -ㄴ, -디, -습-, -져’ 등의 어미가 결합하면 ‘사니, 산, 사디, 사습고, 사져’ 등으로 나타났다.

(ㄹ)과 (ㅁ)은 ‘ㄹ/르’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인데 모음 어미 앞에서 ‘o’와 ‘-’가 탈락하고 ㄹ이 앞 음절의 종성으로 내려간 후 (라)와 같이 ‘o[h]’이 첨가되거나<sup>87)</sup> (ㅁ)과 같이 ‘ㄹ’이 첨가된다. 즉 ‘다 ㄹ- + -아 → 달아’, ‘그르- + -옴 → 글옴’, ‘썩 ㄹ- + -아 → 썰라’와 같이 활용되는 것이다. 현대 국어 문법을 배운 독자들이라면 이것이 일반적인 음운변동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 ‘ㄹ/르’로 끝나는 용언 중 모음만 탈락하여 ‘\*다라’나 ‘\*기 러’와 같이 활용되는 용언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라면 ‘따라(따르- + -아)’, ‘치러(치르-+ -어)’와 같이 — 탈락을 하는 용언이 있으므로 불규칙 활용으로 보아야겠으나 중세국어에는 이러한 용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하게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이다.<sup>88)</sup> ㄹ 탈락이 불규칙 활용이 아닌 이유가 ㄹ 탈락 현상이 음절의 끝에 ‘ㄹ’이 있는 동사에 예외 없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ㄹ)과 (ㅁ)의 경우에도 점이 주로 고려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ㅂ)도 같은 이유로 규칙 활용 용언으로 처리된다. 어간이 ‘수/스’로 끝나는 용언은 모두 모음 어미 앞에서 ‘.’와 ‘-’가 탈락하고 ‘△’이 종성으로 내려가고 o[h]이 첨가되었다.<sup>89)</sup>

#### 나. 어간 불규칙 활용<sup>90)</sup>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데 그 변화를 음운 변동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활용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이때 어간이 바뀌느냐 어미가 바뀌느냐에 따라 ‘어간 불규칙’과 ‘어미 불규칙’으로 나뉘는데, 우선 어간 불규칙 활용부터 알아보자.

##### 나(1). ㅅ 불규칙 활용 (☆☆☆)

어간이 ‘ㅅ’으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현대국 어의 ㅅ 불규칙 용언의 전신이다. ‘짓다’의 어간 ‘짓-’은 자음 어미 ‘-고, -는, -습-’ 등과 결합할 때는 ‘짓-’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어, -으니, -옴’ 등과 결합할 때는 ‘짚-’으로 나타난다. 즉 ‘짓 고/짓는/짓습고 ~ 지셔/지스니/지숨’ 따위로 활용한 것이다. ‘금다, 낫다, 웃다, 젓다, 줄다’ 등이 ㅅ 불규칙 용언이다. 이때, ‘벗다, 빗다, 솟다’ 등과 같은 어휘는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 대신 ‘ㅅ’만이 나타나므로 ㅅ 불규칙 활용을 설정할 수 있다.

##### 나(2). ㅂ 불규칙 활용 (☆☆☆)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崩’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현대국 어의 ㅂ 불규칙 용언의 전신이다. ‘돕다’의 어간 ‘돕-’은 자음 어미 ‘-고, -는, -습-’ 등과 결합할 때는 ‘돕-’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아, -으니, -옴’ 등과 결합할 때는 ‘돌-’으로 나타난다. 즉 ‘돕 고/돕는/돕습고 ~ 도박/도복니/도봄’ 따위로 활용한 것이다. ‘덥다’, 곱다, 눕다, 갓갑다, 춥다, 눕다, 빽다, 엷다’ 등이 ㅂ 불규칙 용언이다. 이때, ‘곱다, 넙다, 잡다’ 등은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崩’ 대신 ‘ㅂ’만이 나타나므로 ㅂ 불규칙 활용을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ㅂ 불규칙 용언은 현대국어에서도 불규칙 활용을 보이나 ‘鼙다’와 ‘엷다’ 등 일부 ㅂ 불규칙 용언은 현대국어로 넘어오며 규칙 용언으로 변하였다.

87) 음가 있는 o[h]을 인정하지 않으면 단순히 모음만 탈락하고 ㄹ이 종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

88) 이를 불규칙 활용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여기선 고영근(2020)을 따라 규칙 활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89) 학계에선 이들을 특수어간교체 용언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90) 관련 기출로 19 7월 학평 13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체’란 ‘음운 변동의 교체(대치)’가 아니라 이형태 를 기술할 때 쓰이는 ‘형태소의 교체’를 말한다. 자세한 것은 구본관 외(2015: 64)의 각주 36 참고.

#### 나(3). ㄷ 불규칙 활용 (☆☆)

어간이 ‘ㄷ’으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ㄷ 불규칙 활용과 동일하다. ‘묻다’의 어간 ‘묻-’은 자음 어미 ‘-고, -는, -습-’ 등과 결합할 때는 ‘묻-’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어, -으니, -움’ 등과 결합할 때는 ‘물-’로 나타난다. 즉 ‘묻고/묻는/묻습고 ~ 무려/지르니/무롭’ 따위로 활용한 것이다. ‘묻다, 걷다(步), 듣다, 흘다, 듣다, 씨닫다, 아천다’ 등이 ㄷ 불규칙 용언이다. 이때, ‘얻다, 믿다, 굳다’ 등과 같은 어휘는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ㄹ’ 대신 ‘ㄷ’만이 나타나므로 ㄷ 불규칙 활용을 설정할 수 있다.

#### 나(4). ㄱ 덧생김 활용 (☆)

어간이 ‘ㅁ/므’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모음 어미 앞에서 ‘-’와 ‘-’가 탈락하고 ㅁ이 앞 종성으로 이동하고 ㄱ이 덧났다. ‘시므다’의 경우, ‘시므-’에 ‘-고’가 결합하면 ‘시므고’로 쓰였지만 ‘-어’가 결합하면 ‘심거’로 쓰였다. 즉 ‘시므-’가 모음 어미 앞에서 ‘쉼-’으로 교체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으로 ‘시므다’ 외에도 ‘너므다’, ‘나므다’, ‘조므다’, ‘드므다’ 등이 있다.<sup>91)</sup>

#### 나(5). 기타 개별 어간의 활용 (☆)

중세국어 시기에는 개별 어휘에만 국한된 불규칙 활용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시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시-’로 쓰이지만,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으로 나타난다. 즉 ‘이셔/이쇼니~잇고/잇더니’ 등의 활용을 보였다. ‘녀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녀-’로 나타나나, ‘거’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니-’로 교체된다. 즉 ‘녀/녀실~니거늘/니거시니’ 등의 활용을 보인다.

#### 더 알아보기: ㅅ, ㅂ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sup>92)</sup>

앞서 언급한 ㅅ 불규칙 활용과 ㅂ 불규칙 활용을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것으로 보고 아예 ㅅ/ㅂ 불규칙 활용을 설정하지 않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경우 어간이 ‘ㅅ’과 ‘ㅂ’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고 ‘ㅈ’과 ‘ㅌ’으로 끝난다고 본다. 즉 어간의 기본형을 ‘짓-’, ‘돕-’으로 보지 않고 ‘짚-’, ‘돌-’으로 보고 이들 어간이 ‘짓-’과 ‘돕-’으로 교체된다고 보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우선 현대국어 ‘짚다’를 생각해 보자. 현대국어에서 기본형은 모음 앞의 발음 형태이다. /지퍼(짚어)/, /지픈(짚은)/ 등을 고려하여 어간을 ‘짚-’으로 처리하고 ‘집고’를 ‘짚>집’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폐쇄음화)으로 설명한다. 이와 똑같이 보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돕고’와 ‘도박’을 볼 때 모음 앞 발음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형을 ‘돌-’으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돕고’를 ‘돌→돕’ 즉 ‘ㅌ→ㅂ’이라는 소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ㅌ→ㅂ’은 일반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리 방식을 긍정한다면 ‘덥-’으로 보지 않고 ‘덜-’으로 보고 규칙 활용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ㅅ 불규칙도 마찬가지이다. ‘ㅈ’

91) ‘ㅁ/므’로 끝나는 용언 중 그 덧생김이 보이지 않는 용언은 없으므로 만약 ㄹㅇ, ㄹㄹ, ㅈㅇ류 용언을 규칙 활용으로 볼 것이라면 그 덧생김도 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배주채(2000:169)). 이들 모두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고영근(2020)과 임지룡 외(2020)에서 ‘시므다’를 불규칙 활용으로 보았으므로 일단 이를 따랐다.

92) 관련 기출로 17 6평 11-12번이 있다. 2026학년도 수완 실전모의고사 5회에는 이를 규칙 활용으로 보는 지문형 문제를 출제하였다. 전은주 외(2025)에선 ‘눕-’이 아니라 ‘눌-’을 기본형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이 ‘ㅅ’으로 바뀌는 것 역시 보편적인 음운 규칙이 될 수 있다. ‘짚→짓’, ‘돌→돕’ 등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반면 그 반대 변화인 ‘짓→짚’, ‘돕→돌’은 필수적인 변화가 아니다. 물론 고영근(2020)을 비롯한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불규칙 활용으로 보지만, 규칙 활용으로 볼 여지 역시 존재한다.<sup>93)</sup>

#### 다. 어미 불규칙 활용 (☆☆)

##### 다(1). 약 불규칙 활용

‘-아/어’계 연결어미가 ‘ㅎ다’의 어간 ‘ㅎ-’ 뒤에서 ‘-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ㅎ다’뿐 아니라 ‘수랑ㅎ다’나 ‘간난ㅎ다’ 등의 ‘ㅎ다’ 통합형 용언에도 보인다. 즉 ‘ㅎ- + -아/어’가 ‘하’가 아니라 ‘ㅎ야’로 쓰이는 것이다. 현대국어의 여 불규칙 활용의 전신이다.

##### 다(2). ‘ㄷ’류 어미의 교체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서술격조사와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ㄷ’으로 시작하는 ‘-다, -더-, -도-, -다가’ 등의 어미가 ‘-라, -러-, -로-, -라가’ 등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ㅎ리다, ㅎ리도다, ㅎ리더니’ 등은 쓰이지 않고 ‘ㅎ리라, ㅎ리로다, ㅎ리러니’ 등으로 쓰였다. 서술격조사 역시 ‘이다, 이더니, 이다가’ 등은 쓰이지 않았고 ‘이라, 이러니, 이라가’ 등으로 쓰였다.

##### 다(3). ‘오’류 어미의 교체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나 선어말어미 ‘-오/우-’가 서술격조사 뒤에서 ‘로’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이- + -음 → 이그옴’과 같이 ‘오/우’가 그대로 나타났으나 서술격조사의 경우 ‘이- + -음 → 이롬’, ‘이- + -오디 → 이로디’, ‘이- + -오- + -ㄴ → 이론’과 같이 쓰였다.

##### 다(4). ‘아/어’류 어미의 교체(거 불규칙, 나 불규칙)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나 선어말어미 ‘-아/어-’가 자동사 뒤에서 ‘거/가’로 교체되고 동사 ‘오다’ 뒤에서 ‘나’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받다’나 ‘먹다’와 같은 타동사의 경우, ‘-아늘/어늘, -아-/어-’가 결합한 경우 ‘바다늘, 바다다, 머거나’와 같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았다’와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의 경우 ‘았거늘’, ‘았거든’, ‘았거다’와 같이 활용되었고, 특별하게 ‘오다’의 경우엔 ‘오나늘, 오나둔, 오나다’와 같이 활용되었다. 이들은 과거에 인정되었던 거라 불규칙 활용과 너라 불규칙 활용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sup>94)</sup>

#### 더 알아보기: 이형태와 불규칙 활용

이형태란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체는 음운론적 조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특정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나타나는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불규칙 활용은 용언의 활용 체계에서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활용형을 묶어 둔 범주이다. 불규칙 활용은 기술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ㅎ다’ 뒤

93) 불규칙활용을 피력하는 연구로 고영근(2005)이, 규칙활용을 피력하는 최근 논의로 고경재(2023)가 참고된다

94) 2017년 어문 규범 개정과 함께 ‘-거나/너라’ 불규칙 활용이 삭제되었다.

에서 연결어미가 ‘-야’로 실현되는 것은 특정 어간 뒤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인데, ‘ㅎ야’를 “야 불규칙 활용에 의해 ‘-야’가 쓰여 ‘ㅎ- + -야’인 것”으로 바로 분석할 수도 있고 “‘ㅎ- + -아’에서 야 불규칙에 의해 ‘야’로 교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어미의 불규칙 활용도 마찬가지이다. ‘-아/어 vs 야’나 ‘-어- vs -거-’, ‘-다 vs -라’ 등은 각각 형태론적 이형태의 관계인데 기본형 설정에 따라 설명 방식이 두 가지가 된다.

이형태들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기본형을 설정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형에서 다른 이형태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는 그런 이형태 모두를 기본형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널리 퍼져 있다. 가령 현대의 국어사전은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를 이루는 주격조사 ‘이’와 ‘가’ 모두 기본형으로 싣고 ‘나무+이’가 ‘나무+가’로 교체된다고 기술하지 않고, 애초부터 ‘나무 가’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미 불규칙 활용의 경우, 단일 기본형을 잡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sup>95)</sup> 여기서는 평가원 기출에서 서술격조사의 기본형을 ‘이다’ 대신 ‘이라’로 잡은 것을 고려하여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이형태에 한해서 하나의 기본형을 설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모두 기본형인 것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를 ‘이/가’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게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를 보이는 어미를 ‘-오/우/로-’, ‘-어/거-’, ‘-도/로-’와 같이 표현하겠다. 용언 어간은 기본형이 사전에 하나만 등재되므로 이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학교문법의 처리와 동일하게 하나의 기본형만을 잡겠다. 즉 이 책에서는 ‘덥다’, ‘짓다’, ‘시마다’ ‘이시다’, ‘녀다’가 기본형이다.

### 더 알아보기: ‘ㄱ’류 어미의 교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ㄹ이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어간과 서술격조사, 선어말어미 ‘-리-’와 ‘-니-’ 뒤에서 ‘o[h]’로 교체되는 현상을 어미 불규칙 활용으로 싣는 경우가 많다. ‘ㄷ외- + -고 → ㄷ외오’, ‘이- + -거늘 → 이어늘’, ‘-리- + -거늘 → 리어늘’과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고, -거늘’ 등의 어미가 ‘-오, -어늘’ 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ㅣ’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라도 위의 조건이 아니면 ‘o’으로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가지다’의 어간 ‘가지-’는 ‘-고’가 결합하더라도 ‘가지고’로 나타났다. 그런데 활용 시 ‘ㄹ’과 ‘j’ 뒤에서의 ㄱ 약화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이었는데 이를 불규칙 활용의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가? 불규칙 활용은 말 그대로 일관되게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인 것이다. 그런데 ‘ㄱ 약화’를 음운 변동으로 설정하면 이를 용언에 적용할 시 불규칙활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ㄹ’과 ‘j’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의 ㄱ 약화를 불규칙활용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ㄱ 약화는 형태·음운론적 현상이므로 학교문법 체계에 입각하여 서술하려면 **음운론적 ㄱ 약화와 형태론적 ㄱ 약화**를 분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합당하다.<sup>96)</sup> 이러한 관점에서는 서술격조사와 일부 선어말어미 뒤에서의 ㄱ 약화는 형태론적 환경이므로 불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2.3.2.4의 더 알아보기’에서 후술.

### 라. 어미의 체계 (☆☆)

중세국어의 어미도 현대국어와 같이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쓰여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어말어미는 용언 활용의 끝에 오는 어미를 말한다. 어말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전성어미로 나뉜다.<sup>97)</sup>

95) 물론 기본형을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96) 서술격조사와 일부 선어말어미의 음가를 이중모음 /ij/로 잡아 음운론적 현상으로 일관되게 설정할 방법도 있겠으나 학교문법에서 /ij/를 설정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갈래	흐 라체		흐 야써체	흐 쇼셔체	반말
평서형	-다, -니라 -(오)마(약속)		- Ningda	-이다	-니, -리
의 문 형	직 접 의 문  1,3인칭	〈판정〉 -녀(-니여,-니야, -니아) -려(-리여,-리야,-리아) 〈설명〉 -뇨(/-니오), -료(/-리오)	-닛가 -릿가	〈판정〉 -니잇가, -리잇가 〈설명〉 -니잇고, -리잇고	-니 -리
		-ㄴ다 -ㅎ다			
	간접의문	〈판정〉 -ㄴ가, -ㅎ가 〈설명〉 -ㄴ고, -ㅎ고			
명령형	-라		-어써	-소셔	-고라
청유형	-져/-자, -져라			-사이다	
감탄형	-도다 -ㄴ뎌, -ㄹ써 -게라/-에라/-애라		-ㄴ뎌		

종결어미. 임지룡 외(2020:408)

갈래	세부 갈래	어미 용례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고, -며, -며셔; -거나 ~-거나 ; -나, -ㄴ마른 등
	종속적 연결어미	-니, -매 ; -면, -거든; -거늘, -ㄴදி; -라, -려, -고져 등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게/-에, -그/-의, -기/-의 ; -디; -고

임지룡 외(2020:409)

갈래	세부 갈래	어미 용례
전성어미	명사형 어미	-옴/-움; -기; -디
	관형사형 어미	-ㄴ; -ㄹ

임지룡 외(2020:409)

97) 몇몇 종결어미는 학자마다 설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자세한 것은 통사론에서 후술.

선어말어미는 시제, 높임 등의 문법적 의미 또는 감동, 확인 등의 서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갈래	기본형태	이형태 및 사용조건	용례
주체 높임	-(으)시-	-시-: 자음 앞	가시고, 가시면, 가시뇨, 가시니이다, 가시던
		-샤-: 모음 앞	가샤, 가샤되, 업스샀다, 지스챤, 올무샴
객체 높임	-습-	-습-: ㄱ, ㅂ, ㅅ, ㅎ 뒤	막습고, 업습꺼늘, 둡습고, 쪽스뱌뇨, 저쓰뱌(절-+-습-+-야)
		-좁-: ㄷ, ㅈ, ㅊ, ㅌ 뒤	듣좁고, 안쪽뱌시니(앉-+좁-+-아시니), 조짜뱌(좇-+-좁-+-야), 골좁느니라(골-+-좁-+-느니라)
		-습-: 유성음 뒤	보습건댄, 말이습거늘, 안수뱌, 아수뱌(알-+-습-+-야)
상대 높임	-(으)이-	-이-: 평서형	아니이다, 잇느이다, 오소이다
		-잇-: 의문형	그러흐리잇가, 흔니잇가, 흔시느니잇고

임지룡 외(2020:404)

갈래	형태	용례
현재	-느-	가느니, 물느다, 브르시느다, 둡노니(돕-+-느-+-오-+-니)
과거	-더-	드외더라, 잇더니, 나아오던덴, 後   러라(後   -+-더-+-라); 흔다니
미래	-리-	솔펴보리라, 어드리오, 사ㄹ미리오, 가시시리여, 여희리이다

임지룡 외(2020:405)

또,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선어말어미가 많았는데 인칭법과 대상법에 쓰인 ‘-오/우-’,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원칙]을 나타내는 ‘-니-’, [감동]을 나타내는 ‘-웃-, -돛-, -ㅅ-’ 등이 쓰였다. 어미의 자세한 기능은 통사론 단원에서 제대로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간단히 목록만 제시하도록 한다.

선어말어미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동시에 실현될 수 있었는데 그 결합 순서가 대체로 정해져 있었다. [객체 높임 - 과거 시제 - 주체 높임 - 현재 시제 - 화자 표시 - 미래 시제 - 감동 - 원칙 - 상대 높임]의 순서였는데 이는 상대적인 위치를 제시한 것이다. 자세한 것이 궁금하다면 스스로 통사론 단원에서 그 순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해 보자.

### 2.3.1.5 수식언

#### 가. 관형사 (☆☆)

관형사는 체언의 내용을 수식해 주는 품사로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체언을 어떤 의미로 꾸며주느냐에 따라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고유어 계통의 관형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 ㄱ. 이 곧 데 고대 後△날 다른리잇가
- ㄴ. 眞金은 진딧 金이라
- ㄷ. 連環은 두 골회 서르 니슬씨라

(ㄱ)의 ‘이’와 ‘데’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관형사로 ‘그, 어누, 므슈’ 등이 있다. (ㄴ)의 ‘진딧’은 ‘순수한’을 의미하는 관형사로 체언의 모양, 상태, 성질을 자세히 나타내는 성상관형사에 속한다. ‘새, 헌, 옛, 외’ 등이 있다. (ㄷ)의 ‘두’는 ‘二’를 뜻하는 관형사로 수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이다. ‘흔, 세/서/석, 네/너/넉, 다/다/다, … 스물/스므, … 온, 즈믄’ 등이 있다.

#### 나. 부사 (☆☆)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해 주는 품사로 일반적으로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지만 일부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한다.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한 성분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눌 수 있다. 성분 부사로는 ‘그르, 못, 더욱, 노피, ㅋ장, 아모리, 아니’ 등이 있고, 문장 부사로는 ‘모로매, 모더, 그러나, 그리고, 및’ 등이 있다.

##### 2.3.1.6 관계언: 조사

조사는 체언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나 특수한 의미를 표현하는 말인데, 중세국어의 조사도 현대국어와 같이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체언의 말음에 따라 교체되는 것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모음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도 고려되어 조사가 달리 쓰였다. 현대국어와 같이 조사가 생략된 경우도 빈번히 관찰된다.

#### 가. 격조사 (☆☆☆)

##### 가(1). 주격조사

환경에 따라 ‘이/ㅣ/∅’가 쓰였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가’가 쓰이지 않았다.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ㅣ’는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는 모음 ‘ㅣ’ 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 나타났다. 한자어 뒤에는 ‘ㅣ’를 그대로 썼다.

- (1) 냉+이 이려 → 내히 이려
- (2) 부텨+ㅣ 니루샤다 → 부텨 니루샤다
- (3) 불휘+∅ 기픈 → 불휘 기픈
- (4) 孔子+ㅣ 니루샤다 → 孔子ㅣ 니루샤다

##### 가(2). 보격조사

형태가 주격조사와 동일하다.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ㅣ/∅’가 쓰였고 ‘드븘다(>드외다)’와 ‘아니다’ 앞에서만 나타난다.

### 가(3). 서술격조사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라/ | 라/∅라’가 쓰였다.<sup>98)</sup> 주격조사와 동일한 환경에 따라 조사가 달리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했듯 서술격조사 뒤에서는 여러 어미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서술격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활용이 가능하다. ‘이라/ | 라/∅라’의 어간은 ‘이-/ | -/∅-’인 것이다.

- (1) 뿐 + 이- + -니 → 뿐더니
- (2) 부텨 + | - + -라 → 부텨라
- (3) 한 가지 + ∅- + -라 → 한 가지라

### 가(4).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로는 ‘훑/를, 올/을, 르’이 쓰였는데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리고 또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다. ‘막수 물(막숨을), 법을’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모음조화에 따라 ‘올/을’이, ‘나훑, 부텨를’과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모음조화에 따라 ‘훑/를’이 쓰였다. ‘르’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라면 모음과 상관없이 결합할 수 있었고, ‘|’는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훑/를’이 모두 쓰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기에 예외적인 표기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 가(5).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는 ‘이/의, ㅅ, |’가 쓰였는데 주로 보이는 것은 ‘이/의’와 ‘ㅅ’이다. ‘이/의’는 평칭의 유정물 즉 높일 필요가 없는 유정물에게 모음조화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고, 유정물이더라도 ‘부텨’, ‘세존’과 같이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ㅅ’이 쓰였다. ‘ㅅ’은 존칭의 유정물 말고도 무정물인 경우에도 선택되었다. ‘|’는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유정물 뒤에 쓰였다. 이때 ‘ㅅ’은 선행 체언이 공명음(모음 + 공명자음)인 경우에만 쓰였고 ‘이/의’는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쓰였다. ‘ㅅ’은 앞서 표기법 단원에서 언급했듯이 표기상의 문제로 따지면 ‘ㅅ’은 명사구/합성명사의 사잇소리를 나타내는 ‘사이시옷’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형태론적으로 고려하면 관형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관형격조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둘을 구별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둘을 구별하기 무척 어려우니 여기서는 별개의 층위에서 분석하여 나온 결과로 해석한다. 관형격조사의 특별한 쓰임이 있기도 한데 이는 통사론의 문장성분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 가(6).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는 현대국어와 같이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므로 특정 조사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표로만 제시한다. ‘애/에/예’는 현대국어의 ‘애’에 대응하는 조사로 양성모음에는 ‘애’가, 음성모음에는 ‘에’가, 모음 ‘|’나 반모음 ‘j’에는 ‘예’가 쓰였다. ‘이/의’는 관형격조사와 형태가 동일하지만 부사격조사로 쓰이는 조사로 이러한 부사격조사만을 취하는 체언을 특이처격이라고 한다. 현대국어와 달리 인용의 부사격조사는 보이지 않는다.

98) ‘이다/ | 다/∅다’라고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18 6평 15번과 21수능 15번에서 ‘다’가 아니라 ‘라’로 기술하였다. ‘-다’와 ‘-라’가 형태론적 이형태이기 때문에 기본형을 ‘다’ 대신 ‘라’로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의미	용례
애/예/예	처소	내히 이리 바른래(바를+애) 가느니
	시간	勸進之日에 平生 그 뿐
	비교(기준)	나랏말쓰미 中國에 달아
	원인, 이유	도적에 도라갈 길히 업스니
의/의	처소	무트(물+의) ... 靑蓮花] 나며
	시간	나진(낮+의) 하늘해 오르며
애셔/에셔/예셔 이셔/의셔	출발점	이베셔(입+에셔) 靑蓮花へ 香내 나며
으로/으로/로	지향점, 재료, 도구, 방법, 자격,	漢字로 몽져 그를 맹골오 天尊으로 겨ษา 侍病旱샤
과/와	비교, 동반	사름과 그티 너기시니
이/ㅣ/∅, 두고, 도곤/두곤, 라와	비교	그루매 비취요미(비취음+의) 곤旱니라
		光明이 히들두고 더으니
		이비 블라와 더으니
의/의게, 이/의그에, 썩	수여, 수취	부텨기와 중의게 布施旱리도
		夫人썩 술복샤다

### 가(7). 호격조사

호격조사는 ‘아, 야/여, 하’가 쓰였다. 이중 ‘아’와 ‘야/여’는 높일 필요가 없는 평정의 대상을 부를 때 쓰였고, ‘하’는 ‘님금’과 같이 높여야 하는 존칭의 대상을 부를 때 쓰였다. ‘아’는 선행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든 모음이든 쓰일 수 있었지만, ‘야/여’는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야만 쓸 수 있었다. ‘이여’도 쓰였다.

지금까지 다룬 격조사 중 주요 조사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99)</sup>

99) 조사는 역대 평가원·교육청 기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된 분야이며 장지문뿐 아니라 단순 지식형 문제에서도 출제되곤 한다. 240939, 240639, 2211 장지문, 220939, 210613 등 평가원 기출에서만 해도 무척 빈번하며, 교육청 학평 기출에서도 중세국어 조사는 한해에 거의 두 번은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형태	환경	용례
주격 조사	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사롭 + 이 → 사르미
		' '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부텨 +   → 부톄
	∅	모음 ' ' 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	불휘 + ∅ → 불휘
보격 조사	이/ /∅	'드 <sup>ㅓ</sup> 다(>드외다)'와 '아니다' 앞에서	
목적격 조사	을/을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곶 + 을 → 고졸
	를/를, 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부텨 를 + → 부텨를
관형격 조사	이/의	비존칭의 유정물 체언 뒤	범 + 의 → 범의
	ㅅ	존칭의 유정물 또는 무정물 체언 뒤	부텨 + ㅅ → 부텨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유정물 체언	臣下 +   → 臣下   , 나+   → 내
부사격 조사	애/에	모든 체언 뒤	그릇 + 에 → 그르세
	이/의	일부 체언 뒤	집 + 의 → 지빅
서술격 조사	이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일훔 + 이라 → 일후미라
	라	' '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바 +   라 → 배라
	∅라	모음 ' ' 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	머리 + ∅라 → 머리라
호격 조사	아	비존칭 체언 뒤	彌勒 + 아 → 彌勒아
	야/여, 이여	모음으로 끝나는 비존칭 체언 뒤	阿逸多 + 야 → 阿逸多야
	하	존칭 체언 뒤	님금 + 하 → 님금하

#### 나. 접속조사 (☆☆)<sup>100)</sup>

중세국어의 접속조사는 현대국어처럼 ‘과/와’가 대표적으로 쓰였다.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과’가 선택되었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와’가 선택되었다. 이때, 체언의 끝소리 자음이 르이라면 ‘ㄱ 약화’에 의해 ‘o[h]’으로 교체되어 ‘와’로 표기되었다<sup>101)</sup>.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은 접속조사가 쓰일 때 앞 체언과 뒤 체언에 모두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국어라면 ‘철수가 A와 B를 먹다’겠지만 중세 국어는 ‘철수가 A와 B와를 먹다’와 같이 쓰였다는 것이다. 현대국어처럼 앞 체언에만 접속조사가 결합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뒤 체언에도 결합하였다. 이외에도 ‘하고, (이)며, (이)여’ 등도 접속조사로 쓰였다.

- ㄱ. 혀와(혀+와) 엄과(엄+과) 니와(니+와 | ) 다 도흐며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 ㄴ. 짜콰(짱+과) 물와(물+과) 불와(불+과) 부름콰라(부름+과+ | 라) [짱과 물과 불과 바람이다]

100) 관련 기출로 22 7월 학평 장지문이 참고된다.

101) 여기서는 접속조사의 출현 환경이 현대국어와 동일하다고 보겠다. 즉 자음이라면 항상 ‘과’가, 모음이라면 ‘와’가 선택되었는데 르 뒤에서는 음운변동에 의해 음소적 표기를 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2.3.2.4의 더 알아보기’ 참고.

## 다. 보조사 (☆)

보조사는 특정 격을 나타내기보다는 여러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화제]나 [대조] 등을 나타내는 ‘는/는’, 은/은, ㄴ’, [역시] 등을 나타내는 ‘도’, [강조]를 나타내는 ‘사’와 ‘곳/옷’, ‘곰/옴’, ‘으란’, [각자]를 나타내는 ‘마다’, 등이 쓰였다. 또, 의문을 나타내는 보조사 ‘고/오’, ‘가/아’도 쓰였다. 보조사는 체언, 활용형, 부사 뒤 등 다양하게 결합했다.

### 2.3.1.7 독립언: 감탄사 (☆)

독립언에는 감탄사뿐인데,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다만 용례가 많지 않아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 아으, 엹, 아소’ 등의 감탄사가 확인된다. ‘이’는 슬픔이나 놀람을 나타내고 ‘아으’는 ‘아이구, 아아’를 뜻한다. ‘엡’은 확인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아소’는 ‘맙소사’라는 뜻이다.

### 2.3.1.8 품사의 통용 (☆☆)

중세국어 역시 현대 국어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여러 품사로 아울러 쓰이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중세국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과 세 가지 품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이 주로 다뤄진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자.

#### 가. 두 가지 품사 통용

단어	품사	용례
아니	명사	술가락 아니와애 (손가락 아닌 것에서)
	부사	부르매 아니 월씨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이/그/여	대명사	덜마다 본디 (전마다 본디)
	관형사	그 괴별 드르시고 (그 기별 들으시고)
엇데	부사	엇데 업스신가 (어찌 없으신가)
	대명사	엇데어뇨 ㅎ란디 (어쩐 일인가 하면)
닐굽 <sup>102)</sup>	수사	속바울 닐굽과 (솔방울 일곱과)
	(수)관형사	닐굽 고줄 (일곱 꽃을)
즐겁다	형용사	즐거운 빠디 (즐거운 뜻이)
	동사	便安을 즐겁거든 (평안을 즐거워하거든)
진딧	관형사	眞金은 진딧 金이라 (眞金은 진실된 금이다)
	부사	진딧 업수미 아니니 (진짜 없음이 아니니)

102) ‘닐굽’뿐 아니라 ‘다솟, 여돐’ 등 여러 수사들은 수사와 수관형사로 품사통용을 한다.

형용사-동사 품사 통용은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하다, 붉다, 통다, 고깝다’ 등 많은 형용사들은 중세국어에선 동사로도 쓰였다. 선어말어미 ‘-느-’를 취하기 때문인데, 보통 상태변화의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한다. 즉 ‘하다’와 ‘붉다’는 각각 형용사라면 ‘많다’와 ‘밝다’를, 동사라면 ‘많아지다’와 ‘밝아지다’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다.<sup>103)</sup>

#### 나. 세 가지 품사 통용

단어	품사	용례
새	명사	새를 맛보고 (새것을 맛보고)
	관형사	져비는 새 기슬 (제비는 새 깃을)
	부사	새 出家호 사루미니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어느	대명사	어늘 從 乎 시려뇨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관형사	어느 뉘 請 乎 니 (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부사	迷惑 어느 풀리 (미혹을 어찌 풀리?)

#### 2.3.2 단어의 구조와 형성

중세국어의 단어와 형태소의 결합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다른 점이 존재한다. 중세국어의 단어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뫼’, ‘하늘’과 같은 더 이상 형태소를 분석할 수 없는 단일어, ‘티디르다’, ‘날이다’와 같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 ‘밤낮’, ‘죽살다’와 같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분류될 수 있다.

##### 2.3.2.1 합성법 (☆☆)

둘 또는 그 이상의 어근을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합성법이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이때 결합된 단어의 순서가 우리말의 통사구조와 일치하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그렇지 않다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중세국어의 합성어의 경우, 명사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잘 보이지 않으나 용언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활발히 쓰였다. 합성부사와 합성관형사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다. 합성명사와 합성용언만 간단히 표로만 보고 가자.

##### 가. 합성 명사

명사+명사	똥오줌, 옷밥, 므쇼(물+쇼), 바느 실(바늘+실), 쇠불, 밤낮
명사+조사+명사	빗물, 빙새, 쇼의고기, 둘기앓(늙+이+앓), 귀옛골회
관형사형+명사	뜯머리, 늘그니(늙은+이), 주 물쇠, 한아비
관형사+명사	요소식, 떠즈음, 외섬
어간+명사 <sup>104)</sup>	빛돌(빛-+돌), 두디쥐(두디-+쥐), 붉쥐(붉-+쥐)

103) 다만 이를 품사통용으로 보지 않고 ‘-느-’의 특성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박진호(2019)가 참고되며 제주 방언에 비슷한 용법이 있다고 본 고영진(2007)도 참고된다.

## 나. 합성 용언

명사+용언	합성동사	물들다, 빛나다(빛+나다), 길잡다, 녀름짓다, 물좀다
	합성형용사	힘세다, 말굳다, 값없다, 맛나다
연결형+용언	합성동사	니려셔다, 아라듣다, 나사가다,
	합성형용사	
어간+용언	합성동사	빌먹다, 솟나다, 듣보다, 거두들다, 값돌다
	합성형용사	됴콧다(돛-+꼿-), 어위크다, 검붉다

### 2.3.2.2 파생법<sup>105)</sup>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이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이때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가 결합하면 ‘접미 파생어’라 하고,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가 결합하면 ‘접두 파생어’라고 한다. 여기서는 접미 파생법 위주로 살펴 보도록 하자.

#### 가. 파생 명사 (☆☆☆)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명사 파생 접미사는 용언 어근에 결합하는 ‘-옴/음’과 ‘-이/의’가 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모음에는 ‘-옴’과 ‘-이’가, 음성모음에는 ‘-음’과 ‘-의’가 결합한다.

명사 파생 접미사	출현 환경	용례
-옴/음	동사 어근 뒤	여름(열-+-음), 거름(걷-+-음), 막չ(돛-+-옴)
-이/의	형용사 어근 뒤	노찌(높-+-이), 키(크-+-의), 기리(길-+-의)

‘-옴/옴’은 명사형 전성 어미인데, 따라서 ‘춤’과 ‘우룸’ 등은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동사의 명사형이 굳어져 하나의 명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sup>106)</sup>

이외에도 ‘놀애(놀- + -애), 받개(받- + -개), 둑게(둑- + -게)’ 등에서 보이는 ‘-개/계’, ‘둘애(두르- + -애), 부체(붓- + -애)’ 등에서 보이는 ‘-애/애’, ‘무덤(묻- + -엄), 주검(죽- + -엄)’ 등에서 보이는 ‘-엄/암’, ‘이바디(이받- + -이), 하리(할- + -이)’ 등에서 보이는 ‘-이’, ‘불무질(불무+ -질)’ 등에서 보이는 ‘-질’ 등이 보인다.

#### 나. 파생 부사 (☆☆)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부사 파생 접미사는 용언 어근에 결합하는 ‘-이/ㅣ’와 ‘-오/우’가 있다. ‘올 히(옳-+-이), 불기(붉-+-이), 조비(좁-+-이), 해(해-+-ㅣ), 오래(오라-+-ㅣ), 슬피(슬프-+-ㅣ)’ 등이

104) 성조가 불일치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단어 형성 시의 변화로 보인다.

105) 파생법에 대한 쟁점은 국어사학회의 2021년 21호 학술지가 참고된다. 관련 기출로 22수능이 있다.

106) 임지룡 외(2020)에서는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명사화 접미사는 ‘-옴/옴’이라고 설명하나 19 6평 11-12에선 접미사 ‘-옴/음’을, 어미 ‘-옴/옴’을 제시하였다. 고영근(2020)에서는 ‘춤’과 ‘우룸’을 파생어로 설명하기 위해 어미 ‘-옴/옴’과 형태가 동일한 접미사 ‘-옴/음’을 인정한다.

그러한데, 끝소리가 자음이면 ‘-이’가, 모음이면 ‘-ㅣ’가 결합하였으며 끝 모음이 ‘·/—’이면 ‘ㅣ’ 앞에서 탈락했다. ‘-오/우’는 ‘비르수(비릇-+-우), 갓고로(갓글-+-오), 마조(맞-+-오),’ 등에서 보인다.

#### 다. 파생 동사 (☆)

중세국어 시기에는 동사 접미사로 피사동접사가 주로 쓰였으나 이는 통사론의 피사동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강세접미사 ‘-밭/왈-’, ‘-티-’, ‘-혀( 혀)-’가 결합하여 동사가 파생되기도 했다. ‘니르 밭다, 내밭다, 세월다’, ‘열티다’, ‘기우리혀다, 드위혀다, 니르혀다’ 등이 있다.

#### 라. 파생 형용사 (☆☆)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형용사 파생 접미사는 동사 어근에 결합하는 ‘-/-부/브/ㅂ-’가 있다. 동사 어근의 말음이 모음이면 ‘밉다(미-+-ㅂ-), 노흡다(노흐-+-ㅂ-)'과 같이 '-ㅂ-'이<sup>107)</sup> 쓰였고, 자음으로 끝나면 ‘믿브다(믿-+-브-), 깃브다(깃-+-브-)', ‘알푸다(앓-+-부-)'와 같이 '-부/브-'가 쓰였다. 다만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은 ‘웃쁘다'와 같이 '-브-'가 예외적으로 '쁘'로 쓰였다.<sup>108)</sup>

이외에도 ‘-압/업-’도 흔히 쓰였는데 끝 모음이 ‘ㅣ’인 동사 어근과 결합할 시 ‘ㅣ’가 탈락하였다. ‘앗갑다(앗기-+-압-), 즐겁다(즐기-+-업-), 므겁다(므기-+-업-)' 등이 있다. 동사 어근에 붙는 ‘-갑/겁-’과 체언에 붙는 ‘-돕/롭-'<sup>109)</sup>도 쓰였는데, ‘맛갑다(맛-+-갑-), 시름돕다(시름 -돕-)' 등이 있다.

#### 마. 접두 파생 (☆)

접두사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 주제이므로 대표적인 접두사 몇 가지만 알아보고 가자.

접두사	의미	용례
글-	배가 흰	글가마괴/글아마괴, 글거미
댓-	크고 억센	댓무수, 댓글리, 댓가지, 댓두려기
출-	찰기가 있는	출콩, 출기장, 추뿔, 축째
아춘-	작은	아춘아들, 아춘설
가쁜-	걸쳐	가쁜드드다, 가쁜놀다
티-	위로 올라가게	티초다, 티소다, 티디르다

#### 2.3.2.3 특이한 단어 형성법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독특한 단어 형성법이 존재하였다. 모음교체와 영파생이 그러한데 이를 파생법으로 볼 것인지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개론서에서는 파생법으로 다룬다. 겉으로 볼 때 형태상 어근이 그대로 바뀌지 않은 채 접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적 변화라고 하기도 한다.

107) 여기서는 ㅂ 규칙 활용이 아닌 ㅂ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므로 접미사를 ‘-ᆸ-'이 아닌 ‘-ㅂ-'으로 본다.

108) 접미사 ‘-쁘-'를 설정하기도 한다.

109) 접미사 ‘-돕-'은 대단히 복잡한 이형태를 가진다. 김현(1998)이 참고된다.

## 가. 모음교체 (☆)

모음교체(ablaut)란 한 단어에 사용된 모음이 다른 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국어에서는 양성모음-음성모음 짹에 의한 모음교체가 주로 관찰되는데 ‘마리-머리, 늙다-늙다, 맑다-맑다, 붉다-붉다’ 등은 모음이 교체되면서 의미가 변하였다. 이 때 양성모음이 먼저인지, 음성모음이 먼저인지는 명확히 밝히기 어려우며 또 이들을 학교문법에서 다루기는 무리인 듯하다.

## 나. 영파생 (☆☆)

영파생이란 무형 즉 형태가 없는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영파생이 적용되는 경우는 명사와 동사 어간이 동일한 경우와 부사와 용언 어간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때 명사가 먼저인지, 동사가 먼저인지 또 부사가 먼저인지, 용언이 먼저인지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보통 명사와 용언이 먼저인 것으로 보고 명사에서 동사가, 용언에서 부사가 파생된 것으로 다룬다. ‘명-동’류 단어로는 ‘신-신다, ㄱ물-ㄱ물다, 너출-너출다, 씩-씩다’ 등이 있고, ‘용-부’류 단어로는 ‘바른다-바른, 비른다-비른, 그르다-그르, 모도다-모도’ 등이 있다. 이들을 설명할 때, 영파생의 견해에서는 ‘깃 + -∅ - → 깃-’, ‘바른- + -∅ → 바른’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본다.

다만 학교문법에서 영접사에 의한 영파생을 파생법으로 인정하게 되다면 파생법의 정의가 난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품사 통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파생은 학교문법에서 다루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다뤄야 한다면 전은주 외(2025:218)와 같이 ‘어간형 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봄직하다. 즉 영파생 또는 영변화<sup>110)</sup>로 다루지 말고 ‘어간형 부사’, ‘어간형 명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어간과 형태가 동일한 명사나 부사가 쓰였다고만 기술하는 것이다.

### 2.3.2.4 형태 음운론 (☆)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음운이 바뀌듯이 파생 또는 합성을 통해 단어가 새로 형성될 때도 음운의 교체가 보인다.

합성어가 형성될 때는 ‘므쇼(믈+쇼)’와 같은 ㄹ 탈락이나 ‘ㄱㄹ븘(ㄱㄹ+비)’나 ‘한삼(한+삼)’과 같은 공명음 뒤에서의 예외적인 ‘ㅂ→븀’과 ‘ㅅ→ㄷ’이 보이기도 했다. 또, 접두사 ‘글-’이 결합할 때 ㄱ 약화에 의해 ‘글- + 가마괴’, ‘글- + 괴’가 ‘글아마괴’, ‘글외’가 쓰였으며 접두사 ‘대-’가 결합할 때 ‘대- + 범’이 ‘대범’으로 쓰이기도 했다.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할 때, 어근이 용언의 어근일 경우 불규칙 활용과 동일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즉 ‘듣- + -이-’가 ㄷ 불규칙에 의해 ‘들이다’로, ‘오른- + -이-’가 ㄹㅇ 활용에 의해 ‘올이다’로 쓰이는 등이 그러하다. ‘칩니다’도 ㅂ 불규칙 용언으로 본다면 ‘치븘’는 ‘칩- + -의’에서 ㅂ이 ㅂ으로 불규칙하게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놀애(놀- + -개)’와 같이 접미사의 음운이 교체되기도 했다. 다만 파생이나 합성어에서 보이는 음운의 교체는 매우 불규칙하고 또 개별적이기도 하므로 일정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다. 합성/파생이라는 형태론적인 요소와 음운의 변동이라는 음운론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형태음운론’이라 하는 것이다.

110) 영변화와 영파생의 차이는 혀원영(2019:19-20)에 재인용된 송철의(1992) 참고

## 더 알아보기: ㄱ 약화의 형태음운론적 문제와 기본형 문제

누차 언급했듯이 ‘ㄱ 약화’는 음운론적 현상임과 동시에 형태론적 현상이다. 용언의 활용과 체언과 조사의 결합 시 모두 ‘ㄹ’과 ‘j’ 뒤에서는 필수적으로 ‘ㄱ’이 ‘o’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음운론적 현상이다. 그러나 모음 ‘ㅣ’를 지닌 말은 그 형태소가 서술격조사의 어간, 선어말어미 ‘-리-’와 ‘-니-’일 때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o’으로 교체되었다. ‘ㅣ’도 음운론적 환경에 포함된다면 ‘가지고’나 ‘혹시거늘’도 ‘\*가지오’와 ‘\*혹시어늘’로 표기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정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나타나므로 형태론적 현상이다. 더욱이, ‘소리오(소리 ø- + -고)’와 같이 영형태로 실현될 환경에서도 ㄱ 약화가 일어난다는 점도 그러하다. 여기서는 ‘ㄱ 약화’를 만약 교과 과정에 도입할 경우 발생할 쟁점을 음운론적 예외와 기본형 설정이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음운론적 ㄱ 약화의 예외이다. 바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할 때인데 어근 ‘늘-’과 접미사 ‘-개’, 그리고 접두사 ‘골-’과 어근 ‘가마괴’가 결합할 때 ‘늘애’와 ‘골아마괴’로 쓰이기도 했으나 ‘늘개’와 ‘골가마괴’로도 많이 쓰였다. 만약 ㄱ 약화가 공시적으로 필수적인 현상이었다면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더라도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에 대한 해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교문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을 다루지 않거나 혹은 다루더라도 파생어여서 나타나는 예외로 볼 수 있다.<sup>111)</sup>

둘째는 기본형 설정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다른 논의와 같이 음운론적 ㄱ 약화를 공시적이고 또 필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정하였다. 그저 중세국어의 표기법의 원리가 표음주의기 때문에 ‘o’으로 표기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ㄱ 약화에 의한 음소적 표기는 음운변동이 일어나기 전을 고려하여 형태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만약 ‘머물오’를 ‘머물- + -오’로 분석한다면 이는 마치 현대국어 ‘살는지’를 음소적 표기 ‘살른지’로 쓴 후 ‘살- + -른지’로 분석하는 꼴이다. 이는 당연히 잘못이다. ‘머물오’는 표의주의를 따르면 ‘머물고’로 써야 하므로 곧 ‘머물- + -고’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의문 보조사 ‘고’, 강조의 보조사 ‘곰’, 접속조사 ‘과’ 역시 ㄱ 약화를 공시적인 필수 음운 변동으로 본다면 ‘罪오’, ‘필옴’, ‘물와’는 ‘罪고’, ‘필곰’, ‘물과’를 음소적 표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罪(죄)+고’, ‘필+곰’, ‘물+과’로 분석함이 타당하다.

여기서의 문제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j’로 끝나지 않는 모음인 경우에는 ‘ㄱ’류 조사는 ‘o’류 조사로 쓰였다. 곧 ‘漸次오’, 比丘음, 나와 등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 체언에서의 ㄱ 약화를 용언의 활용과 다르게 본다면 위들 예 모두 음운변동의 결과가 된다. 즉 ‘漸次(점차)+고’, 比丘(비구)+곰, 나+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ㄱ 약화의 결과로 설명하면, 체언의 ㄱ 약화와 용언의 ㄱ 약화가 서로 다른 조건을 지닌 것으로 기술해야 하는데, 이는 서술의 일관성을 해친다. 따라서 굳이 이렇게 보지 않고,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그 기제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즉 자음으로 끝나면 ‘과’가, 모음으로 끝나면 ‘와’가 선택되었는데 단지 그 자음이 ‘ㄹ’일 경우에는 음운변동의 결과로 ‘과’가 ‘와’로 쓰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와’는 ㄹ 뒤의 ‘와[hwa]’ 그리고 모음 뒤의 ‘와[wa]’라는 두 개의 경우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처리 방식이 동일한 형태에 대한 다른 서술을 추가하여 과하게 복잡하게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현대국어와 그 기제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라 생각한다.

111) ‘j’ 뒤에서의 ㄱ 약화의 예외로 ‘곱기곰’이 있으나 이 ‘곰’은 강조의 보조사 ‘곰/옴’과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형태소는 모음 뒤에서도 ‘곰’으로 실현되었으므로 굳이 다뤄야 한다면 ‘곰’의 특수성에 의한 것으로 보겠다. 개론서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독자들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길 바란다.

학교문법에서 ㄱ 약화를 도입한다면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형을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주격조사가 ‘이/가’로 표기되는 반면 보조사 ‘도’는 ‘도/또’로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이/가’는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잡으면 나머지 형태를 유도하기 어려운 반면에 기본형 ‘도’에서 경음화라는 필수적인 음운변동으로 ‘또(ex. 집+도[집또])’가 쉽게 유도되기 때문이다. 만약 ‘j’로 끝나지 않는 모음도 음운론적 ㄱ 약화의 환경으로 본다면 그러한 체언 뒤에 보이는 ‘o’ 류 조사 ‘오, 옴, 와’ 등을 [ho], [hom], [hwa]로 보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선 기본형을 ‘고, 곰, 과’로만 잡아야 할 것인데, ㄱ 약화라는 음운변동으로 쉽게 유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국어와 크게 달라 학생들에게 혼란이 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예 그러한 환경의 o류 조사를 ㄱ 약화의 결과로 보지 말고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o], [om], [wa]와 같이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음운론적 이형태로 기본형 ‘과/와’로 잡을 수 있다. 다른 조사도 ‘고/오’나 ‘곰/옴’으로 기본형을 잡으면 된다.

이와 같이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체언과 용언의 ㄱ 약화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 기술 체계가 일관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현대 국어의 조사 선택 규칙과 동일한 분석을 적용할 수 있어 학습자의 직관적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기본형을 ‘과’로만 실현됨에도 ‘과/와’같이 설명하곤 했는데, 이는 학계 연구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학교문법의 기술 방식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국어에서 ‘과/와’로 쓰는 이유는 ‘과’와 ‘와’ 모두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선행 체언의 받침 유무로 ‘과/와’가 선택되는 것을 음운 변동으로 유도할 수 없다.

한편, 나찬연(2020)이나 고영근(2005) 등에서는 체언은 일반 모음 뒤에서도 ㄱ 약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각 저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처리는 곧 기본형을 ㄱ으로 잡겠다는 것을 내포한다. 여러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라리 아예 일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ㄱ 약화를 다루지 않는 것이 학교문법 서술에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ㄱ 약화는 7차 교육과정 시절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평가원 및 교육청 시험에서 관련 기출이 나온 적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애매하다. 음운론적 ㄱ 약화의 환경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기 바란다. 앞서 체언 뒤에서의 ㄱ 약화를 ‘더 알아보기’로 분리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술격조사의 어간이나 일부 선어말어미 뒤에서 나타나는 ㄱ 약화는 음운변동이 아니라 형태론적 현상이므로 음운 변동으로 포함되어선 안 된다. 이는 명백히 형태론적 교체이므로 어미의 불규칙 활용 또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봄이 학교문법 체계에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형태론적 현상을 음운변동에서 다루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2.4. 통사론

통사론은 단어와들이 결합하여 구, 절, 문장을 이루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로, 문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문법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중세국어의 통사 체계는 현대국어와 기본적인 어순과 문장 성분 등을 공유하지만, 선어말어미의 종류와 기능, 연결어미의 쓰임, 높임법과 시상 표현 등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통사적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국어의 구조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의 기본 문장 성분의 종류와 실현 방식, 조사와 어미의 통사적 기능을 살펴보고, 부정·사동·피동 등의 다양한 구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12)</sup>

### 2.4.1 문장 성분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같이 문장 성분을 주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부속성분인 ‘관형어, 부사어’ 그리고 독립성분인 ‘독립어’로 나눌 수 있다.

#### 2.4.1.1 주어 (☆☆)

주어란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일반적으로 체언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명사구, 명사절)에 주격조사 ‘이/ | /Ø’가 결합하여 실현되지만 주어 자리에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다. 이때 보조사가 쓰이는 것을 보통 격조사가 생략되고 보조사가 쓰인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애 이셔’ 등을 붙여 만들 수 있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단체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이는 주격조사 ‘에서’의 소급형이다. 중세국어에선 ‘나랗’에만 보이며 ‘애 이셔’는 ‘애 + 이시- + -어’의 구조이므로 주격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주어를 실현시키는 표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조사가 생략되어 체언만으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했다.

- ㄱ. 내희(녕+이) 이러 바른래 가느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 ㄴ. 네(너+ | ) 가사 ㅎ리라 [네가 가야 하리라]
- ㄷ. 꽃 끄코 여름 하느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ㄹ. 어미도(어미+도) 아드 를 모른며 [어미도 아들을 모르며]
- ㅁ. 나라해 이셔(나랗+애 이셔) 도조기 자취 받아 [나라에서 도적의 자취를 따라]

중세국어도 현대국어와 같이 주체가 높여야 할 대상이라면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에 ‘-시-’가 붙기도 하였는데,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쓰이기도 했다.<sup>113)</sup> 한편, 한 문장에 주어가 둘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겠지만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한다.

112) 중세국어 구문에 대한 쟁점은 국어사학회의 2021년 33호 학술지가 참고되며 중세국어 통사론 연구에서 다뤄지는 주요 선어말어미에 대한 쟁점은 국어사학회의 2014년 19호 학술지가 참고된다.

113) 선어말어미 ‘-오/우-’는 인정법 및 대상법 단원에서 다룬다.

#### 2.4.1.2 서술어 (☆☆)

서술어란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로 ‘동사, 형용사, 체언+서술격 조사’로 실현된다. 서술격조사는 앞서 언급했듯 선행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라/ ] 라/Ø라’로 달리 실현되었다.

- ㄱ. 므스글 얻는다(얻-) [무엇을 얻는가?]
- ㄴ. 民瘼을 모르시면(모르- ) [민막을 모르시면]
- ㄷ. 幻은 곡되라(곡도 + ] - + -라) [幻은 곡두(환영)이다]

#### 2.4.1.2 목적어 (☆☆)

목적어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체언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목적격조사 ‘을/을, 를/를, 르’ 등이 결합하여 실현되었다. 목적어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었고 아예 조사가 생략되어 체언만 쓰이기도 했다.

- ㄱ. 내 太子를(太子+를) 섬기 수 봐다 [내가 태자를 섬기되]
- ㄴ. 妖 호주란(꽃+란) 푸다 말오 [좋은 꽃은 팔지 말고]
- ㄷ. 어버시 子息 사랑호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은]

#### 2.4.1.3 보어 (☆)

보어란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말이다. 보어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달리 보는데, 여기서는 학교문법을 고려하여 ‘드는다(>드외다)’와 ‘아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만을 보어로 보겠다. 보격조사는 ‘이/ ] /Ø’가 쓰였다. 역시 다른 성분과 마찬가지로 보조사로 실현되기도, 조사가 생략되기도 했다.

- ㄱ. 草木이 軍馬](軍馬+ ] ) 드는니이다 [초목이 군마가 되는 것입니다]
- ㄴ. (이는) 世尊 스 다시(世尊+스 닷 + 이) 아니시다스이다 [(이는) 세존의 탓이 아니시었습니다]

#### 2.4.1.4 관형어 (☆☆)

관형어란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사, 체언+관형격 조사, 용언 어간 + 관형사형 어미’ 등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관형격 조사 ‘ㅅ’은 조사나 종결어미와 통합되어 쓰이기도 했다. 부사격 조사 ‘애/에’에 ‘ㅅ’이 결합할 땐 그에 선행하는 성분을 관형어가 되게 하였는데 ‘앳/엣’은 현대국어의 ‘에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에의’와 달리 ‘앳/엣’은 ‘에 대한’뿐 아니라 ‘에 있는’, ‘에 의한’ 등의 의미도 지녔다. 또한 평서형 어미 ‘-다’나 의문형 어미 ‘-근가’에도 ‘ㅅ’이 붙어 이를 통해 관형절을 만들기도 하였다.

- ㄱ. 새 구슬리 나며 [새 구슬이 나며]
- ㄴ. 사루민(사루+민) 모미 [사람의 몸이]

#### 2.4.1.5 부사어 (☆☆)

부사어란 용언 또는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는 말로 ‘부사, 체언+부사격 조사, 용언 어간+부사형 어미’ 등으로 실현되었다. 부사격조사는 그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소, 시간, 도구, 비교, 수여, 변화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ㄱ. 神力이 이리 세실씨 [신력이 이리(이렇게) 세시므로]
- ㄴ. 世尊이 象頭山애(象頭山+애) 가샤 [세존이 상두산에 가시어]
- ㄷ. 그 금으로(金+으로) 밍고 쇄니라 [그 금으로 만드니라]
- ㄹ. 부ته 文殊師利드려(文殊師利+드려) 니르샤다 [부처가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되]

#### 2.4.1.6 독립어 (☆)

독립어란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말로 ‘감탄사, 체언+호격 조사’로 실현되었다.

- ㄱ. 아 슬프다 [아 슬프다!]
- ㄴ. 堅牢야(堅牢+야) 네 큰 神力を [견우야, 너의 큰 신력을]

#### 2.4.1.7 관형격조사의 예외적 쓰임

##### 가. 주어적 관형격<sup>114)</sup> (☆☆)

관형격조사 ‘이/의, ㅅ’이 체언과 결합할 시 일반적으로 그 성분은 관형어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체언+관형격 조사’가 의미상 주어로 쓰인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특히 관형절이나 명사절의 주어는 주격조사 결합하는 것보다 관형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 )가 의미적 해석이다.

- ㄱ. 어의(어미+의) 간 짜 [어미의 간 땅](→ 어미가 간 땅)
- ㄴ. 聖人의(聖人+의) 『르치산』法 [성인의 가르치신 법](→ 성인이 가르치신 법)
- ㄷ. 이 사로미(사람+의) 잊는 方面을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이 사람이 있는...)
- ㄹ. 보렷(부터+ㅅ) 니르샤를 듣잖고 [부처의 이르심을 듣고](→ 부처가 이르심을...)

ㄱ~ㄹ의 밑줄 친 부분 모두 ‘의’로 해석하기보다 ‘이/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응하는 서술어가 있기 때문이기에 이때 ㄱ~ㄹ을 의미상 주어라 부르는 것이다.

##### 나. 목적어적 관형격 (☆)

의미상 주어뿐 아니라 구본관 외(2016)<sup>115)</sup>와 같이 의미상 목적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관형격조사 ‘ㅅ’이 체언과 결합할 경우 명사절이나 관형절에서 의미상 목적어로 기능한다

114) 관련 기출로 24 6평 지문형 문제가 있다.

115) 몇 달 전 『한국어문법총론 2』의 개정판이 출판되었으나 아직 읽어 보질 못해 목적어적 관형격이 빠졌는지 아직 그대로 실린 채로 출판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는 것인데 이 분석은 원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개론서에 실린 전통적인 해석을 제시할 테지만 이렇게 보지 않고 의미상으로도 관형어로 해석함이 온당하다. 자세한 논의는 박용찬(2010:131)과 황선엽(2016:83)이 참고된다.

- ㄱ. 楚水 보물 두번 보과라 [楚水의 보는 것을 두 번 보았다] (→초수를 보는 것을 두 번...)
- ㄴ. 眞實 닷고문 欲 여희요므로 [眞實의 닦는 것은 欲 여희는 것으로] (→진실을 닦는 것을...)

## 2.4.2 겹문장의 구조

### 2.4.2.1 안은문장 (☆☆)

#### 가. 명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명사형 전성 어미 ‘-옴/음, -기, -디’가 붙어 만들어진다.

- ㄱ. 부례 授記호샤미(授記호- + -샤- + -옴 + 이) 글 쓰미(쓰- + -음 + 이) 곤고  
[부처가 수기하심이 글을 쓴과 같고]
- ㄴ. 나랏 有情이 正覺 일우오율(일우- + -옴 + 을) [... 정각 이름을]
- ㄷ. 太子] 글 빠호기(빠호- + -기) 始作호샤 [태자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셔]
- ㄹ. 나리 쳐물씨 나가디(나가- + -디) 슬호야 [... 나가기 싫어하여]

이들 모두 안긴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드물지만 ‘-둘’로 명사절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 나. 서술절을 안은 문장

- ㄱ. 太子] 性 고봉샤 [태자가 성품이 고우셔]

주어가 둘 있는 문장을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한다. ‘太子] (性 고봉샤)’의 구조이고 ( )가 서술절로서 전체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 ’가 전체 문장인 것이다.

#### 다.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온/은, -눈/는, -ㄴ, -을/을, -ㄹ’에 의해 실현되며 현대국어와 달리 관형격조사 ‘ㅅ’에 의해 관형절이 실현되기도 했다. 종결어미 ‘-다’, ‘-노라’ 등에 ‘ㅅ’이 결합하면 ‘-(고 하)는’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된다.

- ㄱ. 신미 기픈(깊- + -은) 므른 [샘이 깊은 물은]
- ㄴ. 우눈(울- + -는) 聖女]여 슬허 말라 [우는 성녀여, 슬퍼 말라]
- ㄷ. 지빅셔 차반 링글(멍글- + -ㄹ) 쏘이 [집에서 차반 만드는 소리]
- ㄹ. 너비 光明이 비취닷(비취- + -다 +ㅅ) 브디오 [널리 광명이 비친다는 뜻이고]

## 라. 부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은 부사 파생접미사 ‘-이’와 부사형 어미 ‘-게, -듯/듯시, -도록/도록’ 등으로 형성된다.<sup>116)</sup>

- ㄱ. 돈 업시(없- + -이) 帝里예 살오 [돈 없이 장안에 살고]
- ㄴ. 나리 점으므로(점으물- + -므로) 밥 몯 머거슈물 [날이 저물도록 밥을 못 먹고 있음을]

## 마. 인용절을 안은 문장

현대 국어에서 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 ‘(이)라고’, ‘고’를 통해 실현되나 중세국어에는 이러한 조사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보고 파악하여야 한다. ‘니르다’의 연결형 ‘닐오디’와 같은 발화동사가 쓰이고 인용절 끝에 인용 동사 ‘흐다’가 쓰여 실현되었다. 인용 동사가 쓰이지 않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썼다. 현대국어로 치면 ‘라고’ 없이 ‘철수가 말하되 “내가 거기를 갔다” 하였다’와 같이 쓰는 격이다. 즉 “ ” 부분이 인용절이 된다.

- ㄱ. 比丘 | ... 닐오디 “내 ... 너희들히 다 당다이 부테 두외리라” 흐더니
- ㄴ. 世尊이 ... 니르샤디 “너희 一切 天人大小衆이 내 紫磨黃金色액 모물 보라” 흐시니
- ㄷ. 如來 상네 ‘우리를 아드리라’ 니르시니이다
- ㄹ. 제 닐오디 ‘臣은 이 酒中액 仙人이로라’ 흐니라

“ ”는 직접인용, ‘ ’는 간접 인용이다. 명확한 표지가 없어 둘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명사나 상대높임법의 쓰임 등을 통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다. (ㄷ)에서는 직접인용 표현인 ‘너희 내 아드리라’를 ‘우리를 아드리라’로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인용임을 알 수 있다. (ㄹ)은 원래 이백(李白)이 천자 앞에서 한 말인 ‘臣은 ... 仙人이로이다’를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흐라체로 종결어미를 바꾸어 ‘仙人이로라’로 쓴 것이다.

## 바. 관형사형 어미의 예외적 쓰임<sup>117)</sup>

관형사형 어미 ‘-ㄴ’과 ‘-ㄹ’이 명사형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그 용례가 많은 편은 아니며 이는 고대국어 편에서 언급했듯 본래 ‘-ㄴ’과 ‘-ㄹ’은 명사형 어미였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는 ‘-ㄴ’이나 ‘-ㄹ’이 명사형 어미로 활발히 쓰이지 않았으므로 공시적으로 이 둘을 명사형 어미로 설정하기는 무리이고, 관형사형 어미의 예외적인 쓰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ㄴ’과 ‘-ㄹ’이 이끄는 것은 명사절로 해석한다. ‘-ㄹ’은 어원적으로 전성어미 ‘-ㄹ’과 관형격조사 ‘ㅅ’의 결합형이나 보통 15세기 공시적으로 하나의 어미로 본다. 이를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이라 한다.

- ㄱ. 그뒷 흐(흐- + -오- + -ㄴ) 조초 흐야 [그대가 한 것을 따라 해서]
- ㄴ. 福이라 호늘(흐- + -오- + -ㄴ + 을) 나수라 [복이라 한 것을 바치러]
- ㄷ. 劫ㅅ 因이 아넓(아니- + -ㄹ) 아니며 [겁(劫)의 인연이 아님이 아닌 것이다]
- ㄹ. 다없(다오- + -ㄹ) 업순 긴 그루문 [다함이 없는 긴 강은]

116) 학교문법에서는 ‘-게, -도록, -듯이’를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라고 설명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설명함. ‘-이’를 부사형 전성 어미로 설정하기도 한다.

117) 관형사형 어미 ‘-ㄴ’과 ‘-ㄹ’의 명사형 어미적 쓰임에 대한 논의는 최준호(2019)를 참고할 수 있다.

### 2.4.2.2 이어진문장 (☆☆)

현대국어와 같이 중세국어의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로 형성되는데 이어진 문장 간의 관계에 따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연결어미 중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연결어미로 본용언+보조용언은 학교문법에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되므로 이어진문장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훌문장이다.

#### 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나열, 대립, 선택의 세 가지 관계가 있다. [나열]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인 ‘-고, (으/으)며’, [선택]을 나타내는 ‘-거나, -(으/으)나’, [대립]을 나타내는 ‘-(으/으)나, -건데, -건마흔, -디비’ 등에 의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실현되었다. 이때 ‘-고’ 뒤에는 강조의 접사 ‘-ㄱ’이 덧붙어 ‘곡’으로 쓰이기도 했다.

- ㄱ. 子는 아드리오(아들 + 이- + -고) 孫은 孫子|니 [子는 아들이고 孫은 손자이니]
- ㄴ. 소늘 드습거나(들- + -습- + -거나) 잠간 머리를 ... [손을 들거나 잠깐 머리를...]
- ㄷ. 光明도 하시나(하- + -시- + -나) 광업스실씨 [광명도 많으시나 끝이 없으므로]

#### 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조건, 이유, 양보 등 여러 의미 관계가 있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실현하는 종속적 연결 어미 역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아래에 제시된 의미가 다가 아니며 어미의 종류 역시 아래보다 많다. 일부만 제시하였다.

- ㄱ. 조건/가정: -거든/든, -(으/으)면, -ㄴ댄/덴, -란듸, 등
- ㄴ. 원인/이유: -(으/으)ㄹ씨, -거늘, -관듸, 등매, -라, -
- ㄷ. 양보: -고도, -아도/어도, -건마흔, -건데<sup>118)</sup>, -ㄹ선녕, 등
- ㄹ. 목적/의도: -(으/으)려, -고져, -과며, 등
- ㅁ. 전환: -다가, -거사, 등
- ㅂ. 동시: -(으/으)며셔, -다가며, 등

### 2.4.3 문장의 종결 표현

중세국어의 문장 종결법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 문체에 맞는 종결어미로 실현되었다.

---

118) ‘-건마흔’과 ‘-건데’은 종속적 연결어미로도, 대등적 연결어미로도 쓰였다.

갈래	흐 라체		흐 야써체	흐 쇼셔체	반말
평서형	-다, -니라 -(으)마(약속)		-닝다	-이다	-니, -리
의 문 형	직 접 의 문  1,3인칭	〈판정〉 -녀(-니여, -니야, -니아) -려(-리여, -리야, -리아) 〈설명〉 -뇨(/-니오), -료(/-리오)	-닛가 -릿가	〈판정〉 -니잇가, -리잇가 〈설명〉 -니잇고, -리잇고	
		-ㄴ다 -ㅎ다			-니 -리
	간접의문		〈판정〉 -ㄴ가, -ㅎ가 〈설명〉 -ㄴ고, -ㅎ고		
명령형	-라		-어써	-쇼셔	-고라
청유형	-져/-자, -져라			-사이다	
감탄형	-도다 -ㄴ뎌, -ㄹ써 -게라/-에라/-애라		-ㄴ뎌		

임지룡 외(2020:408)

#### 2.4.3.1 평서문 (☆☆)

현대국어와 같이 기본적인 평서형 어미는 '-다'이지만 '-다'는 선어말어미 '-오/우-, -(으/으)리-, -(으/으)니-, -더-'나 서술격조사의 어간과 결합하면 '-라'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라'로 볼 수 있다. (ㄷ)과 같이 평서형 종결어미의 특수한 형태로 '-(으/으)니라'도 쓰였다. 보수적인 즉 예스러운 어미라고 설명된다.

- ㄱ. 須達이 조차 가라 흐시다(흐- + -시- + -다) [수달이 쫓아 가라 하시다]
- ㄴ. 내 ... 어미 짜흘 뵈요리라(뵈- + -오- + -리- + -라) [내가 ... 어미의 간 땅을 보일 것이다]
- ㄷ. 사루물 다 眷屬이라 흐느니라(흐- + -느- + -니라) [사람을 다 권속이라 한다]
- ㄹ. 부데 아르시리이다(알- + -으시- + -리- + -으- + -다) [부처가 아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말체 평서형 종결어미 '-리, -니'. [약속]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어미 '-마' 등으로도 평서문이 실현되었는데, '-마'는 선어말어미 '-오/우-'를 앞세워서 실현되었다.

#### 2.4.3.2 의문문 (☆☆☆☆)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의문형 종결 어미나 의문 보조사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때, 의문형 어미는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에 따라, 또 인정과 상대높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의문 보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형성하였다. 현대국어와 달리 보조사로도 의문문이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판정의문문	1/3인칭	- <sup>(으/으)</sup> 녀, - <sup>(으/으)</sup> 려 -ㄴ가, -ㄹ가	- <sup>(으/으)</sup> 니…가, - <sup>(으/으)</sup> 리…가	-(으/으)니…가, -(으/으)리…가	-(으/으)니, -(으/으)리
	2인칭	-ㄴ다, -ㄹ다			
설명의문문	1/3인칭	- <sup>(으/으)</sup> 뇨, - <sup>(으/으)</sup> 료 -ㄴ고, -ㄹ고	- <sup>(으/으)</sup> 나…고, - <sup>(으/으)</sup> 리…고	-(으/으)나…고, -(으/으)리…고	-(으/으)나…고, -(으/으)리…고
	2인칭	-ㄴ다, -ㄹ다			

의문 보조사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가/아	고/오

판정의문문이란 상대방에게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ㅏ’ 계열 의문 어미와 보조사가 쓰였다.

- ㄱ. 功德이 하녀(하- + -녀) 져그녀(적- + -으녀)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 ㄴ. 西京은 편안한가(한- + -ㄴ가) 몽한가(한- + -ㄴ가) [서경은 편안한가, (편안하지) 못한가?]
- ㄷ. 이 쪽리 너희 종가(종+가) [이 땅이 너희 종인가?]
- ㄹ. 이는 상가(상+가) 罷아(별+가) [이것은 상인가, 별인가?]

설명의문문이란 상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누, 므슴, 엇데, 엇던, 몇’ 등의 의문사가 함께 쓰인다. 설명의문문은 ‘ㅗ’ 계열 의문 어미와 보조사가 쓰였다.

- ㄱ. 太子] 이제 어드 있느뇨(잇- + -느- + -뇨) [태자가 이제 어디 있느냐?]
- ㄴ. 모른 이제 어느 땅에 있는데 있느고(잇- + -느- + -ㄴ고) [말은 이제 어느 땅에 있는가?]
- ㄷ. 子息 업더니 므슷 罷오(죄 + 고) [자식 없더니 무슨 죄인가?]

‘-(으/으)녀’는 ‘-(으/으)니여, -(으/으)니아, -(으/으)니야’의 형태로도 쓰였고, ‘-(으/으)뇨’는 ‘-(으/으)니오’의 형태로도 쓰였다. ‘려’와 ‘료’도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글에서 주어가 ‘너’나 ‘그디’와 같이 2인칭일 경우에는 설명의문문이든 판정의문문이든 동일하게 ‘-ㄴ다’와 ‘-ㄹ다’로 의문문이 실현되었다.

- ㄱ. 네 엇데 안다(알- + -ㄴ다) [네가 어찌 아느냐?]
- ㄴ. 네 信호노다(한- + -ㄴ다) 아니 信호노다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 ㄷ. 네 내 마를 다 드를따(듣- + -을다) [네가 내 말을 다 들겠느냐?]
- ㄹ. 그디는 어느 저괴 도라올다(오- + -ㄹ다) [그대는 어느 적에 돌아오겠느냐?]

119)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을 따른 것이다. 자세한 것은 나찬연 교수의 글을 참고.

흐라체에서는 인정에 따른 의문문의 분화가 확인되나 흐야써체와 흐쇼셔체에서는 인정에 따른 의문문의 분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흐야써체에서는 인정뿐 아니라 판정/설명의문문과 상관없이 항상 '-닛가'와 '-릿가'로 실현되었다.

- ㄱ. 엇데 부테라 흐느닛가(흐- + -느- + -닛가) [어찌 부처라 하십니까?]
- ㄴ. 그듯 아바니미 잇느닛가(잇- + -느- + -닛가) [그대의 아버님이 있습니까?]

흐쇼셔체에서는 '-니...가/고'와 '-리...가/고'가 의문형 어미인데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 '-잇-'이 끼어들어 항상 '-니잇가/고', '-리잇가/고' 꼴로 쓰였다.<sup>120)</sup> 이를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에 끼어든다고 하여 불연속 형태라고 한다. 즉 어미의 형태가 잘려 있다는 것이다.

- ㄱ. 사르미 지비 잇느니잇가(잇- + -느- + -잇- + -니...가) [사람의 집이 있습니까?]
- ㄴ. 므스므라 오시니잇고(오- + -시- + -잇- + -니...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 ㄷ. 아들을 여희리잇가(여희- + -잇- + -리...가) [아들을 여의겠습니까?]
- ㄹ. 뇌 王과 겼구리잇고(겼구- + -잇- + -리...고) [누가 왕과 겨루겠습니까?]

반말에서는 '-(으/으)니'와 '-(으/으)리'로 의문문이 실현되는데, 흐야써체와 같이 판정/설명의문문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실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ㄱ. 님금 말쓰미 그 아니 올흐시니(올흐- + -시- + -니) [임금의 말이 그 아니 옳으시니?]
- ㄴ. 이제 엇데 怨讐를 니즈시느니(느- + -으시- + -느- + -니) [이제 어찌 원수를 잊으시니?]
- ㄷ. 모던들 아니 깃수불리(깃- + -술- + -으리) [모진들 기뻐하지 않으리?]
- ㄹ. 聖人 神力を 어느 다 술불리(술- + -으리) [성인 신력을 어찌 다 말하리?]

### 2.4.3.3 명령문 (☆☆)

중세국어의 명령형 어미도 높임의 등급에 따라 '-라, -아/어써(써), -쇼서' 등의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 ㄱ. 어울워 뚫디면 글방쓰라(쓰- + -라)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아울러 쓰라]
- ㄴ. 彌勒아 아라라(알- + -알라) [미륵아 알아라]
- ㄷ. 그 뽀들 널어써(느- + -어써) [그 뜻을 말하오]
- ㄹ. 이 뽀들 낫디 마루쇼서(말- + -으쇼서) [그 뜻을 잊지 마십시오]
- ㅁ. 내 願을 일티 아니케 흐고라(흐- + -고라) [내 소원을 잃지 아니하게 하구려]

(ㄱ)은 흐라체의 명령형 종결어미 '-(으/으)라'가, (ㄴ)은 흐라체의 '-아/어라'가 쓰인 것이다. (ㄷ)은 흐야써체의 '-어써'가 쓰인 것이고, (ㄹ)은 아주높임에 해당하는 흐쇼셔체의 '-(으/으)쇼서'가 쓰였다. (ㅁ)은 반말체의 명령형 어미 '-고라'인데 '-고려'로도 쓰였다. '-고라/고려'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뿐 아니라 화자의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120) '-니잇가, -리잇가'를 하나의 종결어미로 인정하고 선어말어미를 형태소 분석 시 쪼개어 상대높임은 선어 말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종결어미로 보지 않고 의문형 종결어미를 '-니...가'인 것으로 설정하겠다. 불연속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으며 견해차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 2.4.3.4 청유문 (☆☆)

중세국어의 청유형 어미는 현대국어 ‘-자’에 해당하는 ㅎ라체의 ‘-쟈/져, -저라’와 ‘-십시오’에 해당하는 ㅎ쇼셔체의 ‘-사이다’가 쓰였다. 다른 상대높임법 등급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보이지 않는다.

- ㄱ. 이 劫 일후므란 賢劫이라 흐저(흐- + -져) [이 겁 이름은 현겁이라 하자]
- ㄴ. 스승님을 보습고져 ㅎ노니 훈뻑 가져라(가- + -져라) [스승님을 보고자 하니 함께 가자]
- ㄷ. 太子의 술보더 “가사이다(가- + -사이다)” [태자께 말씀하되 “가십시오”]
- ㄹ. “흔 디 가 나사이다(나- + -사이다)” ㅎ야시늘 [“함께 가 (태어)나십시오”라고 하시니]

#### 2.4.3.5 감탄문 (☆☆)

중세국어의 감탄형 종결 어미는 ㅎ라체의 ‘-ㄴ뎌, -애/에라, -게라, -ㄹ써’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감동법 선어말어미에 평서형 종결어미가 붙어서 실현되기도 한다.<sup>121)</sup> 감동법 선어말어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감동법 단원에서 다루도록 한다.

- ㄱ. 큰 오온 빤들 보디 몬흐눈뎌(몬흐- + -눈뎌) [크고 온전한 뜻을 보지 못하는구나!]
- ㄴ. 摩耶] 如來를 나쓰봉실써(낳- + -습- + -으시- + -ㄹ써) [마야가 여래를 낳으셨구나!]
- ㄷ. 거짓말로 “등 알패라(알푸- + -애라)” ㅎ샤디 [거짓말로 “등이 아프구나!” 하시되]
- ㄹ. 보비를 아니 앗기높다(앗기)- + -ㄴ- + -옷- + -다)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 2.4.4 높임법

중세국어의 높임법도 현대국어와 같이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2.4.4.1 주체 높임법 (☆☆☆☆)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높임방식으로 선어말어미 ‘-(으/으)시/샤-’가 결합하여 실현된다. 용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으시/샤- / -으시/샤-’가 쓰이며 모음으로 끝나면 ‘-시/샤-’가 쓰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ㄹ’로 끝나는 어간에는 ‘-시-’가 쓰이지만 중세국어는 음운변동 단원에서 언급했듯이 ‘ㄹ’로 끝나는 어간에도 ‘-으/으시-’가 쓰였다. 이때 자음 어미 앞에서는 ㄱ~ㄷ과 같이 ‘-(으/으)시-’가,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ㄹ~ㅁ과 같이 ‘-(으/으)샤-’가 쓰였다.

- ㄱ. 聖孫이 一怒흐시니(一怒흐- + -시- + -니) [성손이 한번 노하시니]
- ㄴ. 世尊이 須達이 올 뜰 아르시고(알- + -으시- + -고) [세존이 수달이 올 것을 아시고]
- ㄷ. 世尊이 큰 法雨를 비흐시며(빙- + -으시- + -며) [세존이 ... 큰 법우를 뿌리시며]
- ㄹ. 王이 니르샤디(니르- + -샤- + -오디) [왕이 말씀하시되]
- ㅁ. 부텨 냉바깃 뼈 노푸샤(높- + -으 샤- + -아) [부처님의 정수리뼈가 높으시어]

121) 평서~감탄문 등은 종결표현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선어말어미가 종결어미에 붙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다소 어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제7 차 고등학교 『문법』에서 이렇게 보았다.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애/계-’ 등도 감동법 선어말어미로 보았으나 고영근(2020)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따른다.

이때, 주체 높임의 ‘-(으/으)시/샤-’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뿐 아니라 그 주체와 관련된 물건이나 일을 높이는 데도 쓰였다. (ㅁ)의 ‘노푸샤’가 높이는 대상은 ‘부텨’가 아니라 ‘부텃 덩바깃 짜’이다. 이처럼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나 신체의 일부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의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높임이 아니면 모두 직접 높임이다.

이외에도 특수어휘로도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특수어휘로는 ‘좌시다(먹다의 높임말)’와 ‘겨시다(잇다의 높임말)’ 등이 쓰였으며<sup>122)</sup>, 현대국어와 달리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에 해당하는 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 ㅂ. 王이 좌시고(좌시- + -고) [왕이 드시고]
- ㅅ. 如來 ... 뭇고래 수며 겨샨(겨시- + -아) [여래가 ... 산골에 숨어 계셔]

#### 2.4.4.2 객체 높임법 (☆☆☆☆)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높임방식으로 선어말어미 ‘-습/습/즙/술/술/줄-’을 결합하거나 부사격조사 ‘씌(스괴)/스그에’가 붙어 실현되었다. ‘-습-’은 ‘ㄱ, ㅂ, ㅅ, ㅎ’ 뒤에 사용되었는데 ㅎ 뒤에 쓰일 경우 ‘ㅎ’과 ‘ㅅ’이 결합하여 대체로 ‘썹’으로 표기되었다. ‘-습-’은 모음이나 공명자음 ‘ㄴ, ㄹ, ㅁ’ 뒤에 쓰였으며, ‘-즙-’은 ‘ㄷ, ㅌ, ㅈ, ㅊ’ 뒤에 쓰였다. 이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 앞에서는 ‘-술/술/줄-’으로 쓰였다.

- ㄱ. 부텃기 머리 쪽습고(쪽- + -습- + -고) [부처께 머리를 조아리고]
- ㄴ. 부텃 像을 ... 座애 便安히 노썹고(놓- + -습- + -고) [부처의 상을 ... 자리에 편안히 놓고]
- ㄷ.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습고져(보- + -습- + -고져)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뵙고자]
- ㄹ. 賴鬱이 부텃 功德을 듣즙고(듣- + -즙- + -고) [賴鬱이 부처의 공덕을 듣고]
- ㅁ. 臣下] 님그를 돋수방(돕- + -술- + -아) [신하가 임금을 도와]
- ㅂ. 如來ㅅ 일후를 듣즈부면(듣- + -줄- + -으면) [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객체 높임 역시 현대국어와 같이 특수어휘로도 실현되었는데 ‘�다(이르다의 높임말), 드리다(주다의 높임말), 모시다/뫼시다(드리다의 높임말), 빠다(보다의 높임말), 옛잖다(말하다의 높임말), 저습다(절하다의 높임말)’ 등이 쓰였다.<sup>123)</sup>

- ㄱ. 王씩 가아 말미 옛잖고(옛잖- + -고) [왕께 가 말미를 여쭙고]
- ㄴ. 如來를 저슥방(저습- + -아) [여래에게 저씁고]
- ㄷ. 부텃 술리를 뵐셔다가(뫼시- + -어다가) [부처의 사리를 모셔다가]
- ㄹ. 無上尊을 빠라(빠- + -라) [무상존을 빠어라]
- ㅁ. 臣下] 님급기 숲논(습- + -ㄴ- + -오- + -ㄴ) [신하가 임금께 사로는]

122) 이 두 단어의 ‘시’는 어원적으로 ‘-시-’가 맞지만, 15세기 공시적으로 선어말어미로 볼 수 없다. ‘\*좌다’와 ‘\*겨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주무시다’와 ‘계시다’의 ‘시’가 ‘-시-’가 아닌 것과 같다.

123) ‘옛잖다’와 ‘저습다’는 어원적으로 객체높임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것이 맞으나 공시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 어간을 ‘옛잖-’과 ‘저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옅-’이 문증되긴 하나 이미 어휘화됐다고 본다. ‘�다, 옛잖다, 저습다’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 2.4.4.3 상대 높임법 (☆☆☆)

상대 높임법은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편을 높여 표현하는 방식인데 중세국어는 선어말어미로도 실현되었다.<sup>124)</sup> 중세국어는 아주 높임의 ھ쇼셔체, 예사 높임의 ھ야씨체 아주 낮춤의 ھ라체가 있었으며 이에 더해 청자를 높이기도 어렵고 낮추기도 어려운 반말체도 확인된다. 현대국어의 예사낮춤에 해당되는 ‘하게체’는 근대국어에야 등장한다. 반말체는 ھ야씨체와 ھ라체 사이의 높임 정도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의 상대높임법 체계와 현대국어의 그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게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 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민현식 외(2019: 162)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ھ쇼셔체	-(-으/으)이-	-잇-	-(-으/으)쇼셔	-사이다	-(-으/으)이-
ھ야씨체	-잉- <sup>125)</sup>	-(-으/으)닛가, -(-으/으)릿가	-어씨		
반말	-(-으/으)니, -(-으/으)리	-(-으/으)니, -(-으/으)리	-고라		
ھ라체	-다/라, -(-으/으)니라	-(-으/으)녀 -(-으/으)뇨	-(-으/으)라 -(아/어)라	-져, -저라	-ㄹ 씨, -애라, -ㄴ 데

#### 가. ھ쇼셔체

아주높임에 해당하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평서법과 감탄법은 선어말어미 ‘-(-으/으)이-’를 통해, 의문법은 ‘-잇-’을 통해, 명령법과 청유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었다. 따라서 평서문은 ‘-이다’,

124)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를 다룬 기출로 15학년도 7월 학평(B형)과 16번 17학년도 4월 학평 14-15번이 있다.

125) 이를 ‘-ঁ-’ 또는 ‘-ঁ-’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전자는 구본관 외(2016), 후자는 나찬연(2020)에 보인다.

의문문은 ‘-니잇가(판정)’와 ‘-니잇고(설명)’, 감탄문은 ‘-도소이다’로 끝났다.<sup>126)</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니잇가’는 불연속 형태인 의문형 어미 ‘-니…가’에 선어말어미 ‘-잇-’이 개입한 것이다. 감탄문의 ‘-도소이다’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이 분석된다. 명령문과 청유문은 각각 종결어미 ‘-(으/으)쇼셔’와 ‘-사이다’로 실현되었다.

## 나. ㅎ야쩌체

예사높임에 해당하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평서법은 선어말어미 ‘-잉-’을 통해, 의문법, 명령법, 감탄법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었다.<sup>127)</sup> 따라서 평서문은 ‘-잉다’로 끝났다. 의문문은 ‘-닛가(판정)’와 ‘-닛고(설명)’, 명령문은 ‘-아/어쩌’로 실현되었다.

- ㄱ. “부례시다” 호노닝다(ㅎ- + -느- + -잉- + -다) [“부처시다”라고 하오]
- ㄴ. 내 그런 빤들 몰라 호댕다(ㅎ- + -더- + -오- + -잉- + -다) [내가 그런 뜻을 몰라 하였소]

## 다. 반말

ㅎ야쩌체와 ㅎ라체 사이에 있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현대국어의 ‘해체’와 유사하다. 평서형 종결어미 ‘-니, -리’와 명령형 종결어미 ‘-고라’가 쓰였다. 의문형 종결어미는 평서형 종결어미와 그 형태가 동일하다. 화자가 청자를 낮추기도 높이기도 어려울 때 쓴다.

## 라. ㅎ라체

아주낮춤에 해당하는 상대높임 등급으로 현대국어의 상대높임과 같이 종결어미로만 실현되었다. 평서법은 ‘-다/라’와 ‘-(으/으)니라’로 실현되었다. 의문법은 ‘-(으/으)녀(판정)’와 ‘-(으/으)뇨(설명)’가 대표적이지만 ‘-(으/으)니여’, ‘-(으/으)려’, ‘-(으/으)니오’, ‘-(으/으)료’ 등으로도 쓰였다. 2인칭 주어인 경우 앞서 언급했듯 의문문이 설명/판정과 무관하게 ‘-ㄴ다’와 ‘-ㄹ다’로 실현되었다.

## 2.4.5 시간 표현<sup>128)</sup>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 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 범주를 시제(時制)라고 한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 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와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제와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동작상(動作相)이 있는데, 동작상이란 발화 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진행상, 완료상 등으로 나뉘며 국어에서는 보조 용언을 통해 동작상을 나타낸다.

126) 이들을 하나의 종결어미로 볼 것인지는 학자마다 다를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더라’를 하나의 어미로 등재하고 ‘-더-’와 ‘-라’로 분석된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이다’, ‘-니잇가/고’, ‘-도소이다’를 하나의 종결어미로 설정하고 형태소를 분석하여 선어말어미 ‘-이-’로 상대높임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127) 학교문법에서 ‘-잉-’을 다루지 않으나 학평에서 ‘-이-’를 인정했으므로 평행하게 ‘-잉-’을 설정하겠다.

128) 시제 선어말어미의 일반적인 쓰임만 다루도록 한다.



이삼형 외(2019:113)

#### 2.4.5.1 과거 시제 (☆☆☆)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중세국어에는 동사일 때는 아무런 표지 없이 쓰거나 또는 선어말어미 ‘-더-’를 써 나타냈으며, 형용사나 서술격조사의 경우 ‘-더-’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이때 무형의 표지를 ‘-∅-’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중세국어에는 (ㄱ)과 같이 ‘-∅-’을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ㄱ. 네 아비 ھ마 주그니라(죽- + -∅- + -으니라) [네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
- ㄴ. 네 命終훈다(命終 ھ- + -∅- + -ㄴ다) [네가 목숨 마쳤느냐?]
- ㄷ. 놀 爲<ھ>야 가져간다(가져가- + -∅- + -ㄴ다) [누구를 위하여 가져갔느냐?]

‘-더-’는 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면 ‘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더-’는 ‘-시-’와 함께 쓰일 경우 현대국어와 달리 순서가 ‘시더’가 아니라 ‘더시’로 나타났으며 1인칭 주어와도 잘 어울렸다. 다만 ‘-더-’가 서술격조사의 어간 그리고 선어말어미 ‘-리-’ 뒤에 쓰일 때는 ‘-러-’로 쓰였다.

- ㄹ. 그뒷 쟁률 맛고져 호더이다(ھ- + -더- + -이- + -다) [그대의 떨을 맛이하고자 하더이다]
- ㅁ. 受苦 | 만타라(많- + -더- + -오- + -다) [수고가 많더라]
- ㅂ. 내 롱담<ھ>다라(ھ- + -더- + -오- + -다) [내가 농담하였다]
- ㅅ. 轉法을 조차 호더시니이다 [법왕이시니 전법을 따라 하셨습니다]
- ㅇ. 무리 三億萬이러라(이- + -러- + -다) [무리가 억만이더라]

관형사형의 경우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관형사형 어미 ‘-(으/으)ㄴ’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때 ‘-더-’가 관형사형 어미에 결합하여 ‘-던’으로 과거 시제가 실현되기도 하였다. 현대국어에서 ‘-던’을 ‘-더- + -ㄴ’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있지만 중세국어에선 공식적으로 ‘-더- + -ㄴ’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 2.4.5.2 현재 시제 (☆☆)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식이 일치하는 시제이다. 중세국어의 현재 시제의 경우 동사에는 선어 말어미 ‘-느-’가 결합하여 쓰였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ㄴ/느-’이라고 보면 된다. ‘-느-’는 선어말어미 ‘-오-’와 결합하면 ‘노’의 형태로 나타났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쓰였을 때는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냈다.

- ㄱ. 네 이제 쪼 묻느다(묻- + -느- + -다) [네가 이제 또 묻는다]
- ㄴ. 내 오늘 받노라(받- + -느- + -오- + -다) [내가 오늘 받노라]
- ㄷ. 이제 엊데 羅睺羅를 았기노다(았기- + -느- + -ㄴ다) [이제 어찌 羅睺羅를 아끼느냐?]
- ㄹ. 내 오늘 實로 無情호라(無情호- + -오- + -다) [내가 오늘 실로 무정하다]
- ㅁ. 모딘 일 니기눈(니기- + -느- + -ㄴ) 衆生이 [모진 일을 익히는 중생이]

중세국어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는 ‘-눈’인데 이는 ‘-느-’와 ‘-ㄴ’의 결합이므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를 분석할 수 있다. 현대국어의 ‘-는’은 공시적으로 선어말어미 ‘-느-’를 분석할 수 없기에 하나의 어미이지만, 중세국어에는 ‘-느-’가 공시적으로 쓰였기에 (ㅁ)처럼 ‘-느-’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눈’은 ‘-느- + -ㄴ’으로 분석함이 합당하다. ‘-느-’와 ‘-ㄴ’ 사이에 ‘-오/우-’가 결합하여 ‘논’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는 마치 현대국어 문법에서 평서형 종결어미 ‘-는다’를 ‘-는- + -다’의 결합으로 보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을 분리하는 것과 같다.

#### 2.4.5.3 미래 시제 (☆☆)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중세국어는 선어말어미 ‘-(으/으)리-’를 통해 실현되었다. ‘-(으/으)리-’는 현대국어의 ‘-겠-’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뿐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의문문의 경우, 어원적으로 ‘-(으/으)리-’가 결합한 ‘-(으/으)려/료’와 ‘-을/을다, 을을고, 을/을가’에 의해 미래 시제가 실현되었다.

- ㄱ. 고줄 몯 언드리라(얻- + -으리- + -라) [꽃을 못 얻을 것이다]
- ㄴ. 료훈 이리 하리이다(하- + -리- + -으- + -다)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 ㄷ. 므스거스로 道를 사므로(삼- + -으료) [무엇으로 도를 삼겠는가?]

관형사형의 경우 현대국어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으)르’에 의해 미래 시제가 실현되었다. 이 때 관형사형 뒤에는 일반적으로 의존명사 ‘것’이나 ‘ㄷ’가 쓰였다.

시제 표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형태	
과거	무형의 선어말어미 (동사)	-∅-
	회상 선어말어미 (용언, 서술격조사)	-더-
현재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동사)	-느-
	표지 없음 (형용사, 서술격조사) <sup>129)</sup>	
미래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으/으)리-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으)르

129) 과거 시제의 ‘-∅-’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로 놓기도 한다. 과거시제 ‘-∅-’는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현재는 이삼형 외(2019:214)에만 있다. 만약, 현재시제도 ‘-∅-’로 본다면 현대국어도 ‘-∅-’를 분석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를 중세국어 과거 시제에서만 쓰는 표지로 보도록 한다. 중세국어도 ‘-∅-’를 쓰지 않는 것이 교육상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 2.4.5.4 동작상 (☆☆)

동작상은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나뉜다. 진행상은 보조적 연결어미 ‘-고’와 보조용언 ‘이시다’를 써 나타냈다. 현대국어의 ‘-고 있다’와 동일한 구조인데 중세국어는 진행상을 ‘-고 있다’로 나타내는 것이 드물었다. 그 대신,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를 매개로 보조용언 ‘이시다’와 ‘가다’를 이용한 ‘-아/어 있다’와 ‘-아/어 가다’로 주로 진행상을 나타냈다. 현대국어에선 ‘-아/어 있다’가 주로 완료상만을 나타내지만 중세국어는 반대였다.

- ㄱ. 묘호 차반 먹고 이쇼디 [좋은 차반 먹고 있으되]
- ㄴ. 묘호 香 푸우고 잇거니 [좋은 향을 피우고 있거니]
- ㄷ. 나모 미틔 가 누늘 長常 뺄아 잇더라 [나무 밑에 가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 ㄹ. 法이 펴디여 가미 [법이 펴지어 감이]

완료상은 ‘-아/어 이시다/겨시다’를 통해 주로 나타냈다.<sup>130)</sup> ‘이시-’는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아/어 이시-’는 ‘잇’으로 교체될 환경에서 본용언과 결합하면서 ‘ㅣ’가 연결어미 뒤에 그대로 쓰인 경우가 많았는데, 음운 변동에서 언급하였듯 반모음화이다. 또, 본용언이 ‘두다’일 경우 어미 ‘-어’가 탈락하여 ‘고’만 남았다. 이외에도 ‘-아/어 뿐리다’, ‘-아/어 두다’로도 완료상이 실현되었다.

- ㄱ. 흔 말도 몯후야 잇더시니 [한 말도 못 하고 있으시더니]
- ㄴ. 世尊이 니버 겨신 皐衣 [세존이 입고 계신 조의]
- ㄷ. 迦葉 比丘] 웃느니여(<와 잇느니여) [迦葉 비구가 와 있는 것인가?]
- ㄹ. 싸해 무렛던(<무텨 잇던) 보비 [땅에 묻혀 있던 보배]
- ㅁ. 우리도 兵馬 뒷노소니(<두어 잇노소니) [우리도 병마를 두고 있으니]
- ㅂ. 地獄을 낮아 부려 [지옥을 부수어 벼려]

#### 2.4.6 피동법 (☆☆)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能動)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被動)이라 한다. 현대국어와 같이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인 짧은(파생적) 피동문과 보조용언에 의한 피동문인 긴(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뉜다.

##### 2.4.6.1 짧은 피동문

피동사는 타동사 어근에 피동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지는데, 중세국어의 피동접미사는 ‘-이-’, -하-, -기-가 있었다. 대체로 피동사는 자동사이고, 능동사는 타동사이다. 피동사와 대응하는 능동사의 예문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0) 정언학(2004)은 중세국어의 ‘-고 있다’가 주로 완료상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나 고영근(2020)과 나찬연(2020)에서는 완료상의 표지로 ‘-고 있다’를 제시하지 않는다. 구본관 외(2016)에서도 중세국어의 ‘-고 있다’는 완료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석의 차이인 것인데, 여기서는 개론서를 따라 ‘-고 있다’는 완료상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보도록 한다.

- ㄱ. 사<sub>르</sub>미 ... 조치여(쫓- + -이- ) 두라 머리 가셔 [사람이] ... 쫓기어 달아나 멀리 가서]  
行陣을 조<sub>초</sub>샤(쫓- ) [행진을 쫓으시어]
- ㄴ. 짜 우희 차 두피고(둘- + -이- ) [땅 위에 (가득) 차 (땅이) 덮이고]  
네 天下를 두페(둘- ) 잇고 [네 천하를 덮고 있고]
- ㄷ. 東門이 도로 다타고(닫- + -하- ) [동문이 도로 닫히고]  
닫돈(닫- ) 이피 열어늘 [닫은 문이 열리거늘]
- ㄹ. 므리 솟글허 숲기더니(숲- + -기- ) [물이 솟끌어 삶기더니]  
罪人이 모물 술<sub>무</sub>며(숲- ) [죄인의 몸을 삶으며]

#### 2.4.6.2 긴 피동문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와 보조용언 ‘디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현대국어의 ‘-어지다’와 같다.<sup>131)</sup>

- ㄱ. 즈믄 모<sub>니</sub> 디 다 글희여 디거늘(글희- + -어 디-) [천 마디가 다 풀려지거늘]
- ㄴ. 부<sub>르</sub>매 竹筍 것거 냅고(겄- + -어 디-) [바람에 죽순이 꺾어져 있고]
- ㄷ. 그쳐 딜(굵- + -어 디-) 빠 업슨 뻔 [끊어진 적이 없는 때에는]

#### 2.4.7 사동법 (☆☆)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主動)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使動)이라 한다. 사동 역시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인 짧은(파생적) 사동문과 보조용언에 의한 사동문인 긴(통사적) 사동문으로 나뉜다.

##### 2.4.7.1 짧은 사동문

사동사는 자/타동사 및 형용사 어근에 사동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지는데, 중세국어의 사동접미사는 ‘-이-’, ‘-하-’, ‘-기-’, ‘-오/우-’, ‘-호/후-’, ‘-으/으-’가 있었다. 사동사와 대응하는 주동사/형용사의 예문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ㄱ. 한비를 아니 그치샤(굵- + -이- ) [큰비를 안 그치게 하시어]  
시미 기픈 므른 그<sub>모</sub>래 아니 그<sub>출</sub>씨(굵- )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 ㄴ. 술위를 그우릴(그울- + -이- ) 씨니 [수레를 굴리는 것이니]  
그 술위 절로 그우려(그울- ) [그 수레가 절로 굴러]
- ㄷ. 變化로 法音을 너피실씨 너피실씨(넙- + -하- ) [변화로 법음을 넓히시므로]  
如來へ 藏心이 넙고(넙- ) [여래의 장심이 넓고]
- ㄹ. 투구 아니 벗기시면(벗- + -기- ) [투구를 아니 벗기시면]  
니버 잇더신 鹿皮 오솔 바사(벗- ) [입고 계시던 녹비옷을 벗어]
- ㅁ. 그<sub>르</sub>매 비 업거늘 열우시고(열- + -우- ) [강에 배 없거늘 (강물을) 열리시고]  
어미 얻녀 모미 다 어려(열- ) [어미를 찾아 다니느라 몸이 다 얼어]

131) 현대국어의 ‘-어지다’도 ‘-어 지다’이다. 즉 보조용언이다. 다만 한글맞춤법 제47 항에서 편의를 위해 붙여 쓰기로 했기에 관습적으로 ‘-어지다’라는 하나의 단위로 쓸 뿐이다. 엄연히 보조용언 구성을이다.

- ㅂ. 衆生들히 무수 물 오을와(오을- + -오- )[중생들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善心이 오을면(오을- ) [선심이 온전하면]
- ㅅ. 功德을 너비 나토샤(날- + -호- )[공덕을 널리 나타나게 하시어]  
應<sup>호</sup>야 나들(날- ) 쫓<sup>로</sup>미라 [응하여 나타날 때<sup>로</sup>이다]
- ㅇ. 나랏 小民을 사르시리잇가(살- + -으- )[나라의 백성을 살리시겠습니까?]  
始祖] 慶興에 사르샤(살- ) [시조가 경흥에 사시어]

그런데 같은 용언인데 사동접미사가 달리 붙을 경우 두 사동사가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살다-살이다(거주하게 하다)-사르다(살리다)’, ‘돌다-돌이다(돌리다)-도르다(돌이키다)’, ‘일다-일우다(이루다)-이르다/이른다(쌓다/세우다)’, ‘길다-길우다(길게 하다)-기르다(기르다)’가 그려하다.

또, 사동접미사가 중첩돼 사동사가 형성되기도 했다. 현대국어의 ‘-이우-’와 같은 것인데 이를 하나의 사동접미사로 설정하기도 두 개의 사동접미사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힘<sup>嬖</sup>우다(힘쁘- + -이- + -우- )’와 ‘조히오다(조<sup>호</sup>- + -이- + -오- )’가 그 예이다.

#### 2.4.7.2 긴 사동문

보조적 연결어미 ‘-게/기’와 보조용언 ‘<sup>ㅎ</sup>다’를 통해 실현되었다. 현대국어의 ‘-게 하다’와 같다. ‘ㄹ’과 ‘j’ 뒤에서는 ㄱ 약화에 의해 ‘에/의’로 표기되었다.

- ㄱ. 목수를 일케 흐야뇨 [목숨을 잃게 하였는가?]
- ㄴ. 疏를 가져다가 사기게 흐야 [疏를 가져다가 새기게 하여]
- ㄷ. 모든 무수 물 즐기고 흐느니 [모든 마음을 즐기게 하니]
- ㄹ. 사르 물 알의 흐는 거시라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다]

#### 2.4.8 부정법 (☆☆)

중세국어의 부정법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용언을 사용한 긴 부정문과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를 사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나뉜다. 어휘적 부정이나 아니다 부정문을 다루면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다소 복잡해지므로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한다.

의미	긴 부정	짧은 부정
단순/의지 부정	-디 아니 <sup>ㅎ</sup> 다	아니 + 용언
능력 부정	-디 몯 <sup>ㅎ</sup> 다	몰 + 용언

이외에도 ‘말다’를 이용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긴 부정문이 있으며 주로 명령문에서 쓰이나 청유문에서 드물게 쓰였다. 현대국어와 달리 ‘-디 말다’뿐 아니라 ‘-게 말다’의 구조로도 쓰였다. 또, ‘아니<sup>ㅎ</sup>다/몰<sup>ㅎ</sup>다’는 ‘-둘/들 아니<sup>ㅎ</sup>다/몰<sup>ㅎ</sup>다’로 쓰이기도 했다.

- ㄱ. 正호 보물 허디 아니후며 [올바른 봄(보는 것)을 헐지 아니하며]
- ㄴ. 몯 일우면 아니 도라오리라 [못 이루면 아니 돌아오리라]
- ㄷ. “머므디 몯호놋다” 후시고 [“머물지 못하는구나!” 하시고]
- ㄹ. 년기 가면 몯 이끄리니 [남이 가면 못 이길 것이니]
- ㅁ. 브즈러니 지써 게으르디 말라 [부지런히 (일을) 지어 게으르지 말아라]

## 2.4.9 서법 표현

서법 또는 양태란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서법 표현**이라고 한다. 화자의 태도에는 ‘확인, 원칙, 감동’ 등이 있다. 중세국어의 서법 표현 역시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고영근 교수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의 기술을 따르는 것이 학교문법에 기반한 중세국어를 서술함에 있어 가장 중립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중 학생들이 혼란을 느낄 법한 기술은 배제하도록 하였다.

### 2.4.9.1 확인법<sup>132)</sup> (☆☆)

확인법이란 화자가 사태를 확정(결정)적으로 파악하여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법으로 선어말어미 ‘-아/어-, -거-, -나-’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를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어-’는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 반모음 첨가에 의해 ‘야/여’로 쓰였다. ‘-거-’는 ‘ㄹ’과 ‘j’ 뒤에서 음운론적 그 약화에 의해 ‘어’로 표기될 수 있었으며 서술격조사 뒤에서도 형태론적 현상에 의해 ‘어’로 표기되었다. ‘-아/어-’는 (ㄱ~ㄹ)과 같이 타동사에, ‘-거-’는 (ㅁ~ㅈ)와 같이 비타동사(자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에 결합하였고, 그중 용언의 어간이 ‘오-(오다)’일 경우 (ㅊ)과 같이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는 ‘-나-’로 실현되었다. 서로 형태론적 이형태 관계이다.

- ㄱ. 山 中에 가 道理 닷가라(닻- + -아- + -라) [산 중에 가 도리를 닦으렷다]
- ㄴ. 나라히 威神을 일허다(잃- + -어- + -다) [나라가 위신을 잃었것다]
- ㄷ. 엇던 사루물 보려니오(보- + -리- + -어- + -니오) [어떤 사람을 보렸다?]
- ㄹ. 舍利弗이 이끄여다(이끄- + -어- + -다) [사리불이 (노도차를) 이겼것다]
  
- ㅁ. 衆生이 福이 다오거다(다오- + -거- + -다) [중생이 복이 다했것다]
- ㅂ. 시르미 더욱 깁거다(깊- + -거- + -다) [시름이 더욱 깊것다]
- ㅅ. 이 寶藏이 自然히 니를어다(니를- + -거- + -다) [이 보배 창고가 저절로 이르렀것다]
- ㅇ. 셜블써 世界 뷔어다(뷔- + -거- + -다) [서럽구나! 세계가 비었것다]
- ㅈ. 바미 ㅎ마 半이어다(이- + -거- + -다) [밤이 이미 반이것다]
  
- ㅊ.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오- + -나- + -다) [오늘 보장이 자연히 왔것다]

그런데, ‘-아/어-/거-’는 1인칭 주어일 때 선어말어미 ‘-오/우-’와 결합하면 어간의 종류와 상관이 없이 ‘-과/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때 그 약화의 환경에서는 ‘와/아’로 표기되었다.

---

132) ‘-거-’의 재점은 이병기(2014)가 참고된다. 현대어역은 원의를 최대한 살리고자 ‘-겼다’류 어미를 썼다.

- ㄱ'. 내 이제 훤히 즐겁과라(즐겁- + -과-(-거- + -오-) + -라) [내가 이제 훤히 즐겁것다]
- ㄴ'. (내) 第五橋를 알와라(알- + -과-(-아- + -오-) + -라) [(내가) 第五橋를 알았것다]
- ㄷ'. (내) 너를 맞보과라(맞보- + -과-(-아- + -오-) + -라) [(내가) 너를 만나 보았것다]
- ㄹ'. (내) 胡床애 앉가니오(앉- + -가-(-거- + -오-) -나오) [(내가) 호상에 앉것다?]
- ㅁ'. (내) 시름을 솔아니오(솔- + -가-(-아- + -오-) + -나오) [(내가) 시름을 사르것다?]

이처럼 화자는 용언 어간에 확인법 선어말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믿음에 바탕으로 두고 별화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거늘/-어늘/-나늘’과 ‘-거든/-어든/-나든’과 같은 연결어미는 선어말어미 ‘-거/어/나-’를 분석하지 않는다. 항상 ‘거/어/나’가 있는 채로 쓰이지, 이들이 없는 ‘-늘/든’ 따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의 연결어미에서는 확인법 선어말어미를 분석하지 않는다. 이는 ‘-건덴’이나 ‘-건마룬’과 같은 어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2.4.9.2 원칙법<sup>133)</sup> (☆)

원칙법이란 화자가 사태를 원칙적(불변적)인 사실로 파악하여 알림으로써 청자의 주의가 그것에 집중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서법이다. 원칙법은 선어말어미 ‘-(으/으)니-’로 실현되며 주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문장에 실현된다. 이때 ‘-(으/으)니-’는 시제 선어말어미 뒤에 쓰인다.

- ㄱ. 사르미 살면 주그미 이실씨 모로매 늙느니라(늙- + -느- + -니- + -라)  
[사람이 살면 죽음이 있으므로 모름지기 늙느니라]
- ㄴ. 蜀애셔 邳이 갓갓느니라(갓갑- + -느니- + -라) [촉에서 공이 가까우니라]
- ㄷ. 네는 眷히 업서 대를 엿거 그를 쓰더니라(쓰- + -더- + -니- + -라)  
[옛날은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를 엮어 (거기에) 글을 쓰더니라]

원칙적 즉 불변적으로 파악된 사실이라는 것은 그 사태가 객관적으로 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을 말한다. (ㄱ)은 ‘사람이 늙어 죽는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한 것이고 (ㄴ)은 ‘촉에서 공이 가깝다는’ 사실을, (ㄷ)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엮은 대나무에 글을 썼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한 것이다. 즉 ‘-니-’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보편적인 사실을 청자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다.

#### 더 알아보기: -니라

원칙법 선어말어미를 설정할 때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평서형 종결어미 ‘-니라’와 원칙법 선어말어미 ‘-니-’와 종결어미 ‘-다’의 결합형 ‘-니라’가 형태상으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법 선어말어미 ‘-니-’는 ‘니라’의 형태로만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니라’를 평서형 종결어미와 원칙법 선어말어미의 쓰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견해일지도 모른다. 아래의 (ㄱ)과 (ㄴ)은 고영근(2010/2020)에 의하면 원칙법 표현으로 볼 수 없고 보수성을 띠는 평서문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니-’의 예문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보이는가?

133) 선어말어미 ‘-니-’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7차 고등학교 『문법』에서 ‘원칙 법’으로 다뤘으므로 이를 따르겠다. ‘-니-’에 대해선 각주 (119)와 문병열(2019)이, ‘-니라’에 대해선 고영근 (1982)와 김영욱(1989)이 참고된다. 여기서는 원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니라’류 어미로 번역하였다.

- ㄱ. 주거미 날오다 내 ㅎ마 주그니라(죽- + -으니라) [주검이 말하되 “내가 이미 죽었다”]
- ㄴ. 너를 외에 아니호노니라(아니 ㅎ- + -느- + -오- + -니라) [너를 그릇되게 아니한다]

물론 2.4.9.2의 예문들과 위의 (ㄱ~ㄴ)을 비교하면 전자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반면 후자는 개인적인 이야기임이 드러나긴 한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어역만 보고 학생들이 알아챌 수 있을까? 곧 이론의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상 “‘-니라’와 ‘-나라(-니- + -다)’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형태상 동일한 어미를 달리 처리하며 복잡성을 오히려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이야기고 해가 갈수록 교과서의 서술이 간략해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니-’에 대한 언급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볼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 서법을 가르쳐야 한다면 원칙법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평서형 종결어미 ‘-나라’만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는 원칙법을 인정하는 대신 평서형 종결어미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원칙법 선어말어미의 쓰임으로 보는 것이다. 어찌됐든 일관되게 동일한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문법 교육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sup>134)</sup>

#### 2.4.9.3 감동법<sup>135)</sup> (☆☆)

감동법이란 문장으로 표현하는 일에 대한 화자의 느낌이나 믿음과 같은 정감을 나타내는 서법으로 선어말어미 ‘-도/로-’, ‘-돛/돛-’, ‘-웃-’, ‘-ㅅ-’에 의해 실현되었다.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도-’로 실현되고, 서술격조사와 ‘아니다’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으)리-’ 뒤에서는 ‘-로-’의 형태로 실현된다.

- ㄱ. ㅎ오사 平床이 뷔엿도다(뷔- + -어 + 잇- + -도- + -다) [흔자 평상이 비어 있도다]
- ㄴ. 들 찌비 불써 이도다(일- + -도- + -다) [들 집이 벌써 이루어지도다]
- ㄷ. 네 업던 이리로다(일 이- + -로- + -다) [옛날에 없던 일이로다]
- ㄹ. 가야 ㅎ리로다(ㅎ- + -리- + -로- + -다) [가야 하리로다]

이때 ‘-로다’와 ‘-로라’를 모두 감동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개론서 수준에서 이는 잘못이다. ‘-로라’는 곧 다루겠지만 선어말어미 ‘-오-’에 의해 ‘-다’가 ‘-라’로 쓰인 것이다. ‘-로다’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의 이형태가 쓰인 것이지만 ‘-로라’는 ‘-오-’의 이형태가 쓰인 것이다.

‘-돛/돛-’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돛-’으로 실현되고, 서술격조사와 ‘아니다’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리-’ 뒤에서는 ‘-돛-’의 형태로 실현된다. ‘-돛-’이 ‘ㅎ돛더라’와 같이 자음 어미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 ㄱ. 내 몬져 듣도소이다(듣- + -돛- + -오- + -으]- + -다) [내가 먼저 들었습니다]
- ㄴ. 이 이리 쪼 어렵도소이다(어렵- + -돛- + -으 이<sup>136)</sup>- + -다) [이 일이 또 어렵습니다]

134) 고영근(2004:207)에서 “교화서류(敎化書類)에 나타나는 직설법을 둘째설명법[보수적 평서문]으로 볼 것인지 원칙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확연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고영근(2004:210)에서 “둘째설명법이며[보수적 평서형 종결어미]와 원칙법의 변별과정에서는 아직도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역시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육상 그닥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135) 감동법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는 河崎啓剛(2016/2020)이 참고되며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쟁점을 다룬 연구로 이승희(2014)와 河崎啓剛(2014)이 참고된다.

136) 고영근(2020)은 ‘-으 이-’에 의해 ‘\*도스이다’가 형성되고 ‘도’의 ‘으’에 동화되어 ‘도소이다’가 되었다고 설

- ㄷ. 呂人을 주기리로소녀(죽이- + -리- + -롯- + -오녀) [흉악한 사람을 죽이겠느냐?]
- ㄹ. 아기로소이다(아기 Ø- + -로- + -롯- + -으이- + -다) [아기입니다]

‘-옷-’은 다른 선어말어미 뒤에 실현되었다. ‘-(으/으)샤-, -느-, -더-, -어/거-’ 등의 선어말어미에 붙어 서로 결합하여 각각 ‘-(으/으)샀-, -놋-, -닷-, -팟-’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닷-’은 선어말어미 ‘-더-’가 ‘-러-’로 쓰일 환경에서는 ‘-랏-’으로 쓰였다.

- ㄱ. 골복리 업스샀다(없- + -으샤- + -옷- + -다) [대적할 이가 없으시도다]
- ㄴ. 보비를 아니 앗기놋다(앗기- + -느- + -놋- + -다) [보배를 아니 아끼는구나]
- ㄷ. 허리天에 겨시닷다(겨시- + -더- + -옷- + -다) [도리천에 계셨구나]

‘-ㅅ-’은 그 뒤에 선어말어미 ‘-오-’나 소위 매개모음 ‘으’를 지닌 어미와 함께 쓰여 ‘-소라, -소니, -순다, -스라’로 실현되었다.

- ㄱ. 우리들토 ... 머리셔 오소이다(오- + -ㅅ- + -오- + -이- + -다) [우리들도 멀리서 왔습니다]
- ㄴ. 너희들히 므스글 보느순다(보- + -느- + -ㅅ- + -온다) [너희들이 무엇을 본 것이냐?]
- ㄷ. 모다 아라스라(알- + -아- + -ㅅ- + -으라) [모두 알아라]

위들 표현 모두 정감성 즉 감정의 개입을 나타냈는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는 우리가 현대인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sup>137)</sup>

## 2.4.10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어미 ‘-오/우-’는 국어학계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형태소이며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현행 5종 교과서에선 ‘-오/우-’가 인칭법을 담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고려하여 인칭법(화자 표시법)과 대상법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의도법과 같은 ‘-오/우-’와 관련된 쟁점은 석주연(2014)이 참고된다.

### 2.4.10.1 인칭법 (☆☆☆)

현행 5종 교과서에서 선어말어미 ‘-오/우-’는 문장의 주어가 ‘나, 우리’와 같이 1인칭일 때 쓰였다고 기술된다. 주어가 1인칭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칭법이라고도 한다. ‘-오/우-’는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면 그 선어말어미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는 ‘노’의 형태로, ‘-더-’는 ‘다’의 형태로, ‘-거/어-’는 ‘가/과’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서술격조사와 결합할 시 ‘로’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 ‘-오/우-’는 서술격조사와 결합하면 ‘-로-’로 나타났고, 종결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오/우-’ 뒤에서 ‘-라’로 교체되어 쓰였다.

---

명한다. ‘도소녀, 도소니’도 동일하다. 공식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으니 예외적인 교체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 혹은 ‘-오이-’로 분석하고 ‘-으이-’의 변이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137) 고영근(1980:76)에서도 “필자가 中世語(중세어)의 様態(양태)·情感(정감)의 敏法(서법) 곧 強調法(강조법)을 體系化(체계화)하면서 부딪힌 가장 어려웠던 점은 意味把握(의미파악)의 方法(방법)이었다.”라고 밝히며 의미파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 ㄱ. 내 이를 위하여 … 밍그노니(밍골- + -ㄴ- + -오- + -니) [내가 이를 위해서 … 만드니]
- ㄴ. 우리들히 毒藥을 그르 머구니(먹- + -우- + -니) [우리들이 독약을 잘못 먹었으니]
- ㄷ. 내 통담<sup>후</sup>다라(통담<sup>후</sup>- + -더- + -오- + -라) [내가 농담하였다]
- ㄹ. 내 … 이러호니(이러<sup>후</sup>- + -오- + -니) [내가 … 이러하니]
- ㅁ. 내 … 너두려 널오리라(나른- + -오- + -리- + -라) [내가 … 너더러 말하겠다]
- ㅂ. 나는 弟子 大目捷連이로라(이- + -오- + -라) [나는 제자 대목건련이로다]
- ㅅ. 내 이거슬 怪異히 너기가니(너기- + -어- + -오- + -니) [내가 이것을 괴히 여기거나]

### 더 알아보기: 화자 표시법 (☆☆)

그러나, 형태상 주어가 1인칭이 아닌 경우에도 ‘-오/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칭법에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화자’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따라서 ‘-오/우-’의 출현환경을 정확히 얘기하면 “화자인 체언이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이다. 이 때문에 ‘인칭법’보다는 ‘화자 표시법’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 곧, 화자가 1인칭 대명사로 나타날 수도, 3인칭 명사로 나타날 수도 있던 것이다.

- ㄱ. 누른 새노 … 任意로 호노라(호- + -ㄴ- + -오- + -라) [누른 새는 … 임의로 하노라]
- ㄴ. 如來 … 度<sup>후</sup> 얌직<sup>후</sup>니를 아노니(알- + -ㄴ- + -오- + -니) [여래가 … 건념직한 것을 아노니]
- ㄷ. 弟子는 … 아디 몽호니(몰<sup>후</sup>- + -오- + -니) [제자는 … 알지 못하니]
- ㄹ. 네 한아빈 계을오미 오라오니(오라- + -오- + -니) [네 할아버지는 게으름이 오래나]

(ㄱ)과 (ㄹ)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시를 한글로 풀이한 책인 『두시언해』의 예문인데 각주를 보면 ‘自謂’ 즉 ‘누른 새’와 ‘네 한아비’는 두보가 자기 자신임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었다. 시인인 ‘두보’가 화자인데 그 화자를 시적으로 표현하였으니 ‘-오-’가 실현된 것이다. (ㄴ)은 도사가 된 부처가 비구들에게 하는 말인데 주어인 ‘如來’가 화자 자신이므로 ‘-오-’가 실현되었다. (ㄷ)은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화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맥락 또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주어가 화자라면 ‘-오/우-’가 실현되었다.

이때, 주어가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오/우-’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어미의 형태로 주어가 화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아닌 2/3인칭 주어는 ‘머그니’, ‘밍그느니’, ‘흐더라’, ‘흐느다’와 같이 쓰였다는 것이다.

### 2.4.10.2 대상법 (☆☆)

대상법 선어말어미 ‘-오/우-’는 관형절에 쓰이기도 했는데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관형절의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일 경우에 쓰였다. 따라서 ‘대상 표시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 ㄱ. 須達이 지순(지- + -우- + -ㄴ) 精舍마다 [수달의 지은 정사마다]
- ㄴ. 부테 … 得<sup>후</sup>산(한- + -샤- + -오- + -ㄴ) 妙法을 [부처가 얻으신 묘법을]
- ㄷ. 부텨 가시논(가- + -시- + -ㄴ- + -오- + -ㄴ) 짜히 [부처가 가시는 땅이]
- ㄹ. 너희 住흔(住한- + -오- + -ㄴ) 짜히 [너희가 사는 땅이]
- ㅁ. 須達이 버릇업순(버릇없- + -우- + -ㄴ) 주를 보고 [수달의 버릇없는 줄을 보고]
- ㅂ. 부텨를 소랑<sup>후</sup>습논(소랑<sup>후</sup>- + -습- + -ㄴ- + -오- + -ㄴ) 전초로 [부처를 사랑하는 까닭으로]

(ㄱ~ㄷ)은 피수식 체언이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이고, (ㄹ~ㅁ)은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이다. 관형절로 안기기 전 문장으로 바꿔 보면 (ㄱ)과 (ㄴ)은 각각 ‘須達이 精舍를 짓다’와 ‘부테 妙法을 得 ھ시다’가 된다. 즉 서술어-목적어 관계를 이룬다. (ㄹ)과 (ㅁ)은 각각 ‘부테 싸해 가시다’와 ‘너희 싸해 住 ھ다’가 된다. (ㄷ)은 동격관형절의 경우로 ‘須達이 벼를 없다’이 ‘줄’의 내용과, ‘부녀를 소랑 ھ다’와 ‘전초’의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의미적으로 동격인 경우인데 이때도 ‘-오/우-’가 쓰였다. 다만 대상법 선어말어미 ‘-오/우-’는 피수식 체언이 목적어이든 부사어이든 또는 동격이든 실현될 상황임에도 실현되기도 실현되지 않기도 했으며 예외가 무척 많다. 다만 피수식 체언이 목적어 관계를 이룰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오/우-’가 쓰였다.

한편, 관형절의 서술어와 수식 체언이 ‘서술어-목적어’ 또는 ‘서술어-부사어’ 관계를 이루지 않고 ‘주어-서술어’ 관계를 이룬다면 ‘-오/우-’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

- ㄱ. 아기 나훈(낳- + -은) 겨집들 훌 보고 [아기(를) 낳은 여자들을 보고]
- ㄴ. 찻물 기魯(긷- + -을) 嫁女를 [찻물(을) 길는 체녀를]

(ㄱ)과 (ㄴ)을 관형절로 안기기 전 문장으로 바꿔 보면 각각 ‘겨집들 훌 아기(를) 낳다’와 ‘嫁女 | 찻물 길다’와 같이 주술 관계를 보인다. ‘나훈’이나 ‘기魯/기魯’로 쓰이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관형절의 서술어와 수식 체언이 통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관형절에서 ‘-오/우-’가 선택이 달리 된 것이다.

이때 화자 표시법 ‘-오/우-’를 ‘-오/우-<sub>1</sub>’라고 하고, 대상법 ‘-오/우-’를 ‘-오/우-<sub>2</sub>’라고 하여 둘을 구별한다. 마치 현대국어에서 형태가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른 두 어미를 나누는 것과 같다. 또, ‘-옴/움, -오디/우디, -오던/우던, -올덴/울덴, -올던/울던’ 등의 어미에서도 ‘오/우’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때의 ‘오/우’는 형태소를 분석하지 않으며 어미의 일부로 본다. ‘-ㅁ’이나 ‘-더’, ‘-덴’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 2.4.11 능격성<sup>138)</sup> (☆☆)

중세국어에는 뚜렷한 형태 변화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두루 쓰인 동사가 많이 보였다. 이를 ‘능격 동사’ 또는 ‘자·타 양용 동사’라고 부른다. 이때 자동사의 의미는 보통 피동사와 같아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지 않더라도 의미상 피동의 범주에 처리할 수 있다.<sup>139)</sup>

- ㄱ. 名言へ 길히 그츠니(굵- ) [이름(名)이나 말하기(言)의 길이 끊어지니]
- ㄴ. 닐웨예 닐굽 쇠줄 그처(굵- ) [이례에 일곱 쇠사슬(을) 끊어]
- ㄷ. 뵈해 살이 박거늘(박-) [산에 화살이 박히거늘]
- ㄹ. 兄님 눈에 모듈 바그니(박-) [형님 눈에 못을 박으니]
- ㅁ. 두 갈히 겄그니(겄-) [두 칼이 꺾이니]
- ㅂ. 허리 겄구메(겄-) 褊 器具 [허리(를) 꺾음에 쓰는 기구]

138) 한국어의 능격성에 대해선 고영근(2015)이 참고된다.

139) 관련 기출로 17 수능 13번이 있다.

위와 같이 동일한 동사가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였는데 이외에도 ‘열다(開), 닫다, 비취다, 낫다, 흘다’ 등 능격동사의 종류가 현대국어에 비해 무척 다양했다.

## 2.5. 어휘론 (☆☆)

언어의 어휘는 한 시대의 사회·문화·사상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역으로, 문법 체계보다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특히 한자어의 확산과 외래 요소의 유입은 국어의 어휘 체계를 변화시켰다. 어휘의 변화는 단어의 형태에도 변화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의미가 재편되면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변한다. 여기선 우선 어휘들 사이의 의미 관계, 중세국어 시기 어휘 체계의 변화 양상과 어휘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 2.5.1. 어휘의 의미 관계

단어들은 서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가 서로 비슷할 수도, 관계가 없을 수도, 정반대일 수도 있다. 서로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유의, 반의, 동음이의 등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는 중세국어의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sup>140)</sup>

#### 2.5.1.1 유의 계관

유의 관계란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끼리 서로 맺는 관계를 뜻한다. 중세국어에서 유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을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의미	단어	의미
가다 ~녀다	가다	각시 ~ 갓 ~ 겨집	아내
값 ~ 빙	값	괴다 ~듯다 ~수랑하다	사랑하다
그위 ~ 마술	관청	쁘 ~ 빠니 ~ 빠 ~ 적	때
느외 ~ 다시	다시	눔 ~ 녀느	남
동다 ~ 입다	좋다	만흐다 ~ 하다	많다
뛰다 ~ 움즈기다	움직이다	叟시 ~ 서리	사이
오히려 ~ 순지	오히려	작다 ~ 혁다	작다

중세국어의 많은 유의 관계는 현대국어에서까지 지속되지 못했는데 이는 유의 관계가 지닌 본질적 속성 때문이다.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휘가 공존하는 경우, 화자는 미세한 의미적 차이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한쪽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로 인해 유의 관계를 이루던 어휘들은 상호 간에 사용 빈도를 두고 경쟁하게 되며, 경쟁에서 진 어휘는 점차 사용이 감소하여 사어화되거나 의미 영역이 바뀌어 새로운 쓰임을 얻게 된다.

#### 2.5.1.2 반의 관계

반의 관계란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끼리 맺는 관계를 뜻한다. 중세국어에서 반의 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을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0) 중세국어 어휘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홍사만 교수의 연구가 참고된다.

상보 반의 관계		등급 반의 관계		방향 반의 관계	
단어	의미	단어	의미	단어	의미
남진~겨집 <sup>141)</sup>	사내~여자	덥다~춥다	덥다~춥다	형~아우	형~아우
아들~딸	아들~딸	깊다~얕다	깊다~얕다	앞~뒷	앞~뒤
알다~모른다	알다~모르다	넓다~좁다	넓다~좁다	주다~받다	주다~받다
이시다~없다	있다~없다	쉽다~어렵다	쉽다~어렵다	풀다~사다	팔다~사다

반의 관계는 그 성격에 따라 세 부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반의 관계는 ‘아들~딸’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 반의 관계, ‘덥다~춥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 관계, ‘형~아우’나 ‘앞~뒤’ 등과 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 관계가 있다.<sup>142)</sup>

## 2.5.2 어휘 체계의 변화

### 2.5.2.1 한자어의 증가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고유어가 현대국어보다 훨씬 많이 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국어 시기의 어휘 체계는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조선은 정치·법률·학문·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이 한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관료 선발을 위한 과거제 역시 한문 독해와 문장 능력을 핵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배층에게 한문학은 필수 교양이자 실질적인 통치 도구였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행정, 학술, 의례, 법률, 의학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자어가 지속적으로 유입·정착되었고, 일부는 일상어휘로도 확산되었다. 또한, 15세기 이후 불교 관련 문헌의 언해본을 대량으로 간행하면서 한자어와 관련된 불교 관련 어휘가 한자어 형태 그대로 유입되어 쓰이게 됐다. ‘布施(포시), 三昧(삼매), 釋迦(석가), 成佛(성불), 慈悲(자비), 衆生(중생), 解脫(해탈)’ 등과 같은 불교 용어가 그러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고유어 어휘가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즈믄(千)’, ‘잣(城)’, ‘아츰(親戚)’, ‘미르(龍)’, ‘아롭데(私私로이)’, ‘그롬(江)’, 등과 같이 고유어가 한자어로 교체되는 것은 모든 품사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고유어가 사어가 됐다. 게다가 한자어가 한자음 그대로 한글로 표기되면서 한자어로 인식되지 않고 고유어로 인식되게 되었다. ‘위두(<爲頭)’, ‘딤치(<沈菜)’, ‘남진(<男人)’, ‘녀편(<女便)’, ‘귓것(<鬼+ㅅ+것)’, ‘차반(<茶飯)’ 등이 그러한데, ‘딤치’처럼 음운 변화를 통해 완전히 귀화한 것도 있다.

141) ‘남진’과 ‘겨집’은 모두 다의어라서 ‘남진’은 ‘사내’와 ‘남편’을, ‘겨집’은 ‘여자’와 ‘아내’를 모두 뜻했다. 따라서 ‘남진-겨집’은 ‘사내-여자’의 의미라면 상보 반의 관계, ‘남편-아내’라면 방향 반의 관계가 된다.

142) 방향 반의 관계는 그 단어들의 의미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형-아우’ 등과 같은 역의 관계, ‘팔다-사다’ 등과 같은 역행 관계, ‘시작-끝’ 등과 같은 대척 관계가 그렇다. 자세한 것은 구본관 외 (2016)의 의미론을 참고하자.

### 2.5.2.2 차용어의 유입

중세국어 시기에는 차용어도 많이 유입되어 쓰였다. 특히 중국어 차용어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중국어 차용어는 문화적인 어휘가 많았는데 의복, 옷감, 기구 등에 관련된 어휘가 대표적이다. 현대 국어로 이어져 널리 쓰이는 중국어 차용어로는, ‘감토(<敢頭:감투>)’, ‘다홍(<大紅:대홍>)’, ‘부치(<白菜:배추>)’, ‘사탕(<砂糖:사탕>)’, ‘상투(<上頭>)’ 등이 있다.

전기 중세 국어에서 후기 중세 국어로 넘어올 즈음에 몽고어 차용어 유입도 어휘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몽고어 차용어로 알려진 것이 ‘말’과 ‘매’에 관한 단어인데 ‘가라물(검은 말), 간자물(눈 위에 흰 점이 있는 말), 가리온물(갈기와 꼬리가 검은 말)’ 등과 ‘갈지게(누른 매), 럭진(늙은 매), 도룡태(작은 매의 일종), 송골(매의 일종)’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 ‘必者赤(서기)’, ‘達魯花赤(진수관)’ 등과 같은 관직명이나, ‘火尼赤(양치는 사람)’, ‘時波赤(매 다루는 사람)’ 등과 같은 명사도 있다. 또, 어원적으로 몽고 차용어이지만 현대 국어에서 귀화되어 고유어화한 것으로는 ‘갈비, 사돈, 오랑캐’ 등이 있다.<sup>143)</sup>

여진어(만주어) 차용어도 소수지만 관찰되는데 『용비어천가』에 기록된 함경도 지명 ‘투먼(두만강: 만(萬)의 여진어)’, ‘통견(동간산: 종(鍾)의 여진어)’, ‘나단(나단산: 7의 여진어)’ 등이 그 예이다.

### 2.5.3 어휘 형태의 변화

어휘 형태 변화는 어휘마다 과정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화하기 어렵다. 대체로 어휘의 변화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별 어휘사’의 예를 몇 개 소개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중세국어 문헌에 문증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하였는지 다룬다.

어휘 변화는 원래의 기본적인 어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형이 바뀌는 ‘어형 변화’와 기존의 어휘 형태가 아예 다른 어휘 형태로 바뀌는 ‘어휘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늙’이 ‘하늘’이 된 것은 기본적인 형태는 같으나 ‘、’의 소실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니 ‘어형 변화’이다. 어형 변화는 음운 체계의 변화나 개별적인 음운 현상 또는 이형태의 합류로 일어난다. 특히 중세국어 시기 특수 어간교체를 하던 ㄱ 덧생김, ㅋ ㆁ, ㄹㄹ류 체언은 이형태가 하나로 합류하여 더 이상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지 않고 단일화했다. ‘나모-낡, 아속-얇, 누르-늘ㆁ, 흐르-훑’ 등의 교체는 일어나지 않고 각각 ‘나무, 아우, 노루, 하루’로 단일화했다. ㅎ 종성 체언도 더 이상 ㅎ이 덧나지 않는다.

반면, ‘머구리밥’은 현대국어에선 ‘개구리밥’으로 쓰이는데 이는 ‘머구리’와 ‘개구리’는 별개의 단어 이므로 ‘어휘 교체’이다. 어휘 교체는 기존에 있던 어휘인 보수형과 새롭게 등장한 개신형 간의 경쟁으로 일어나며 이때 개신형이 승리하면 보수형은 쓰이지 않게 되거나 방언과 같은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만 쓰인다.

### 2.5.4 어휘 의미의 변화

어휘의 의미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의미 변화의 양상에 따라 확대, 축소, 이동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여기서도 중세국어 문헌에 문증되는 단어가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143) 몽고어 차용어 연구로는 이기문(1985/1991/2007)이 참고된다.

변하였는지 다룬다. 의미의 변화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근대국어 또는 개화기 시기에 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5.4.1 의미의 확대

단어의 원래 의미가 변화하여 그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 영역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의 확대라고 한다. 의미 확대의 예로는 ‘다리(脚), 영감, 겨레’ 등이 있다.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과 같은 유정 명사에만 붙을 수 있던 말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상, 책상’ 등의 무정명사에까지 쓰이게 되었다. ‘영감’은 원래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인 남자 노인을 가리키는 말도 뜻하게 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또한 ‘겨레’는 본래 종친 또는 친척이라는 의미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민족’을 뜻하기도 하며 이 역시 의미의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기존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

#### 2.5.4.2 의미의 축소

단어의 원래 의미가 변화하여 그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 영역보다 좁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의 축소라고 한다. 의미 축소의 예로는 ‘증상, 놈, 겨집, 얼굴, 힘, 여워다, 사랑하다’ 등이 있다.

‘증상’은 불교 용어 ‘衆生’에서 온 말로 원래 생물 전체를 뜻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말인 ‘짐승’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놈’은 보통의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겨집’ 역시 본래 일반적인 여자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여자를 낚추어 말할 때 쓰는 말인 ‘계집’으로 의미 영역이 줄어들었다. ‘얼굴’은 원래 ‘모습’이나 ‘틀’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대국어로 넘어오며 ‘낯(面)’으로 그 의미 영역이 줄어들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미 영역이 축소되는가 하면 여러 의미를 지니다가 하나가 사라진 경우에도 의미 축소라고 한다. ‘힘’은 원래 ‘힘(力)’과 ‘힘줄(筋)’의 의미를 모두 지녔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힘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여워다’도 중세 국어 시기에서는 ‘수척하다(瘦)’와 ‘마르다(瘠)’의 뜻으로 쓰였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마르다’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으며, ‘사랑하다’는 ‘사랑하다(愛)’와 ‘생각하다(思)’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思]라는 의미를 ‘생각하다’에 넘겨주어 그 의미 영역이 줄어들었다.

#### 2.5.4.3 의미의 이동

의미의 확대도 축소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뀐 것을 ‘의미의 이동’이라고 한다. 의미의 이동의 예로는 ‘빌, 빠니, 어리다, 어엿보다, 식식하다, 쓴다’ 등이 있다.

‘빌’은 원래 ‘값(價)’ 즉 ‘가치’라는 뜻이었는데 전혀 다른 뜻인 ‘빚(債)’ 즉 ‘채무’로 의미가 바뀌었다. ‘빠니’는 원래 한자 ‘時(시)’의 새김으로 쓰였고 ‘-할 적’ 등과 비슷한 뜻을 나타내며 ‘때’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현재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로 의미가 바뀌었다.

‘어리다’도 의미 이동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중세국어의 ‘어리다’는 ‘어리석다(愚)’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며 ‘나이가 어리다(幼)’는 뜻으로 바뀐 것이다. 이외에도 ‘어엿보다’는 ‘불쌍하다’의 뜻에서 ‘예쁘다, 아름답다’로 바뀌었고, ‘식식하다’는 ‘장엄하다’의 뜻이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씩씩하다’의 뜻으로 바뀌었다.

‘쓰다’ 역시 의미 이동을 겪었다. ‘쓰다’는 원래 ‘값이 나가다’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의 ‘비싸다’를 뜻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빈 쓰-’와 같이 ‘값’이라는 뜻을 가진 ‘빈’과 자주 어울리면서 이 결합 형태가 ‘비쓰다’가 되어 ‘값이 나가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다’는 ‘비쓰다’에 대립되는 형태·의미가 되어버려 현대 국어의 ‘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결국 ‘쓰다’는 ‘값이 나가다’에서 ‘값이 낮다’로 되어 그 의미가 정반대로 변화했다.

### 제3 편 근대 국어

## 제4 편 개화기 국어

## 유용한 자료

### 학회

- [국어학회](#)
- [국어사학회](#)
- [구결학회](#)
- 이외에도 참고문헌에 제시된 학회 사이트 모두 유용하다.

### 사전

- [우리말샘](#)
- [근현대 국어사전](#)

### 영인 자료 원문

- [세종한글고전 DB](#)
  - 검색 기능이 다소 불친절하나 원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어자료 검색 사이트

-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 [어드메](#)
- [초자씨](#)
- 검색 기능이 무척 편리하며 모바일로도 옛한글 검색이 쉽게 가능하다. 또한 구결자도 검색이 가능할뿐더러 시기별로 또 문헌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 참고 문헌

### <기본자료>

- 민병곤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미래엔.
- 민현식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방민호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 서혁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지학사.
- 이관규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
- 이삼형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지학사.
- 전은주 외 (2025),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천재교육.
- 최형용 외 (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 EBS (2025),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 (2025),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한국교육방송공사.

### <논저>

- 고경재 (2023) 15세기 국어 용언 활용의 규칙성에 대한 검토 - 소위 ‘ㅂ, ㅅ 불규칙 활용’과 ‘특수 어간 교체’를 중심으로
- 고경재 (2023), 「15세기 국어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주로 후음 ‘ㅇ’의 음가와 ‘흔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72, 우리말학회.
- 고광모 (2012), 「15세기 국어의 종성 ㅅ에 대하여 - 종성 ㅅ을 확인하고 선어말어미 {-삽-}의 교체를 설명함-」, 『국어학』 64, 국어학회.
- 고광모 (2023), 「된소리의 발달」, 『언어학』 95, 사단법인 한국어학회.
- 고영근 (1980), 「中世語의 樣態·情感의 敍法에 대한 研究」, 『인문논총』 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고영근 (1982), 「敍述性語尾와 冠形詞形語尾의 關聯性에 관한 研究」,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 (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 『국어학』 46, 국어학회.
- 고영근 (2010), 『제3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 (2015), 「민족어에는 정말 능격 구문이 없을까」, 『형태론』 17, 형태론.
- 고영근 (2020), 『제4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영진(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275, 한글학회.
- 구본관 (1996),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관 외 (2015), 『한국어문법총론 1』, 집문당.
- 구본관 외 (2016), 『한국어문법총론 2』, 집문당.
- 국립국어원 (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성규 (2007),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성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 김성규 (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 김성규 (2017), 「訓民正音의 聲調」,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영욱 (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완진 (1985), 「母音調和의例外에 대한研究」, 『한국문화』 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유범 · 고경재 (2019) 「‘훈민정음’의 각자병서자와 전탁음의 음가에 대한 재론」, 『우리말연구』 59, 우리말학회.
- 김유범 (2024), 「형태론으로 바라본 국어사 교육」, 『형태론』 26, 형태론.
- 김정인 (2023), 「15세기 속격 ㅅ의 음가 변화의 몇 가지 의문점 - 속격 ㅅ 표기 용례 검토를 통하여」, 『국어국문학』 204, 국어국문학회.
- 김정인 (2024), 「15세기 ㅅ계 합용병서 음가 변화의 배경과 기제」, 『국어국문학』 208, 국어국문학회.
- 김주원 (2008), 「알타이언어의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하여」, 『한글』 282, 한글학회.
- 김지은(2022), 「중세·근대 국어 자음체계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사연구』 35, 국어사학회.
- 김한별 (2012), 「순경음 ‘崩’에 대한 통시적 연구 - ‘ㅂ’ 약화 규칙의 어휘 확산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 (1998), 「중세국어 형용사 파생 접미사 {-돕-}의 이형태 빈도와 역사적 변화」, 『관악어문연구』 2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나찬연 (2020), 『중세 국어의 이해』, 도서출판 경진.
- 남미정 (2012), 「중세국어의 사이시웃과 합성명사」, 『언어와 정보 사회』 1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문병열 (2019),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형태 ‘-니-’에 대하여 - 기존 논의 검토를 중심으로 -」,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 박용찬 (2010), 「중세국어 속격조사의 예외적 쓰임」,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 박용찬 (2024), 「중세국어 비자동적 교체 용언의 통시적 변화 - ‘으/으’ 말음절 용언과 ‘르/르’ 말음절 용언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103, 우리말글학회.
- 박진호 (2019), 「15th century Korean Grammar from a Viewpoint of Linguistic Typology and Historical Gramma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배영환 (2011), 「중세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 배주채 (2000), 「불규칙활용」, 『새국어생활』 10, 국립국어원.
- 석주연 (2014), 「선어말어미 ‘-오-’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소신애 (2008), 「중세 국어 음절말 유음의 음가와 그 변화 - 방언 자료와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국어학』 53, 국어학회.
- 소신애 (2012) 「접진적 음변화로서의 ㅅ > ㅊ」, 『국어국문학』 162, 국어국문학회.
- 소신애 (2024), 「중세 국어 후음 ㅇ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국어학』 112, 국어학회.
- 신기상 (1974), 「15世紀 ‘나모와’語 攷」,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 신성철(2022) 「고대 국어 음운 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국어사연구』 35, 국어사학회.
- 신승용 (2021), 「15세기 국어 적극적 기능의 ‘ㅇ’ 재고」, 『한글』 82, 한글학회.
- 엄상혁 (2018), 「‘르’ 말음 용언과 으-계 어미 결합의 변화」, 『구결연구』 40, 구결학회.
- 유필재 (2001), 「중세국어 성조 연구사」,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 윤현우 (2024), 「ㄱ/ㅋ/ㅌ/ㅍ 탈락 현상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진단학회.
- 이기문 (1978), 「十五世紀 表記法의 一考察」, 『언어학』 3, 사단법인 한국어학회.
- 이기문 (1985), 「蒙古語 借用語에 대한 研究」, 『언어학』 3, 사단법인 한국어학회.
- 이기문 (1991), 「Mongolian loan-words in Korean」, 『알타이학보』 3, 한국알타이학회.
- 이기문 (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기문 (2007), 「중세몽고어 차용어에 대하여」, 『어학연구』 2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이동석 (2014)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독서와 문법 Ⅱ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학』 69, 국어학회.
- 이동석 (2017), 「훈민정음의 자음」,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문규 (2017), 「성조형 실현 규칙의 임의화와 16세기 말엽의 성조 체계」,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 이병기 (2014), 「선어말어미 {-거-}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이병기 (2023),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 국어 문법 교육」, 『국어사연구』 37, 국어사학회.
- 이상혁 (2015), 「폴리바노프(Polivanov)의 언어관에 대하여 - 구소련 언어관과의 대조 및 그의 알타이 계통론을 중심으로 -」, 『아시아문화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이승녕(1949), 「ㄱ, ㅋ, ㆁ'의 음가 변이론」, 『한글』 106, 한글학회.
- 이승재 (1983), 「再構와 方言分化一語中 '-ㅅ/-'類 단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12, 국어학회.
- 이승희 (2014), 「선어말어미 '-돗-'의 연구사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이준환 (2010), 「중세국어 ㅎ말음 체언의 음운론」, 『구결연구』 24, 구결학회.
- 이진호 (2017), 「훈민정음의 모음」, 『관악어문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임지룡 외 (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정언학 (2004), 「-고 있다' 구성에서의 '진행' 의미 발전 양상」,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 최준호 (2019),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웅 (1987), 「15세기 국어 맞춤법」, 『국어생활』 8, 국립국어원.
- 허원영 (2019), 「국어 품사 통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선엽 (1998), 「중세국어 '술갑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황선엽 (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 황선엽 (2016), 「중세·근대국어 속격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국어사학회.
- 河崎啓剛 (2014), 「소위 감동법 '-ㅅ-'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 河崎啓剛 (2015), 「15세기 한국어 속격 '-ㅅ'의 이표기들의 분포」,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 河崎啓剛 (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깨달음과 복수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河崎啓剛 (2020),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노트」, 『형태론』 22, 형태론.
- L. Campbell and W. J. Poser (2008), 『Language Classification: History and Meth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Ki Moon and S. R. Ramsey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